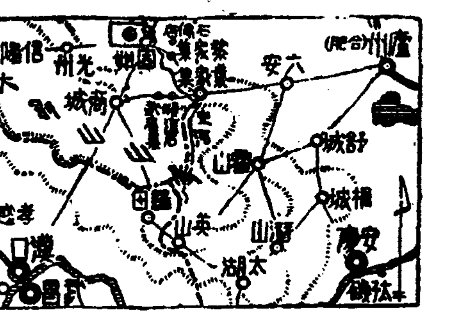
朝鮮日報
夕刊 十六日(金)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所 朝鮮日報社

# 空、陸兩部隊協力下 商城을完全占領
## 城頭노피日章旗飄揚

【○○十六日同盟特派員發】我快速戰車隊는 十六日早曉商城總攻擊開始와함께 前面의敵을擊破하면서午前九時 商城東門을 蹴破하고突入、城門노피 日章旗를날리고 目下城內殘敵을 掃蕩中이다

【○○十六日同盟特派員發】十六日午前九時五分 我快速部隊는 商城에突入하엿다 이와 同時에 我飛行隊는 城內의 敵에 對하야 低空飛行을 敢行하면서 猛烈果敢한 機銃掃射를 行하고 空陸相呼應하야 商城內의 敵에게 最後의 攻擊을하고 後續部隊는 現在商城東方五키로地點에서 敵을追擊 一路商城을 向하야 驀進中이다

【○○十六日同盟特派員發】快速戰車隊를 先頭로한 我商城攻擊部隊는 十六日早曉를期하야 總攻擊을開始 먼저 戰車隊가 驚異的快速度로 群集한 敵兵을蹴散하면서 商城의東門外에達하엿다 北部戰線에 突然勇姿를出現한戰車가 隊列을가추어 城外에 肉薄하니 敵의最後的抵抗도 물리치고 이를爆破한後 城門노피 日章旗를 揭揚하엿다 戰車隊가 회몰려 城內에進入한때는 正히 午前九時五分 이때마침空中에서 我陸의 荒鷲가 機首를地上에 向하야 猛烈한 對地射擊을 行하야 逃走하는 敵兵을 殲滅한 其間 戰車隊는 進擊을停止하고勇士들은 戰車에掩蔽蓋를 開하야 얼골을 내여 荒鷲의 機上掃射의 壯擧를 보고『命中百파센트』라고 兩手를 드러 歡示하니 荒鷲는 再次 上空에 旋回하고 戰車는 또 前進을 開始城內를 蹂躪하엿다 이리하야 空中의 荒鷲는陸의 猛牛와 呼吸을 가티하야 商城內 掃蕩을急速히 하엿다




# 地上部隊와呼應
## 陸荒鷲群、各線서猛活動

【南京十五日發同盟】中支軍十五日午後六時發表=十四日朝來 薄暮은 戰場을덥고 百米以上의 山上은 密雲에차여잇는데 陸荒鷲群은 各戰線에서 猛活動을 繼續하고잇다

▲光州、商城戰 衣川 西澤 田中(晴)各部隊는 敵의 亂射를무릅쓰고 驀進을 繼續、敗走하는 敵을 捕捉하야 地上追擊部隊를、誘導하고 或은 山間의 隘路에 敵縱隊를 捕捉하야 爆擊掃射、此를 潰走四散시키고 會心의 追擊戰을 敢行하엿다

▲京漢線方面 中園、久保木、佐瀨各部隊는大擧하야 멀리 京漢線確山을襲擊、그停車場及 線路를 爆破하야 南下할라는 敵軍의 鐵道利用을 不可能하게하엿다

▲廣濟戰線 釘宮、高橋各部隊는 一部로써 偵察及 連絡에 當케하고 主力으로써 地上部隊西園의 敵에 猛爆을 加하야 戰果擴大에 努力하엿다

▲瑞昌西方戰線 關田、石川、釘宮各部隊는 前日來 險峻한 山岳 錯綜한敵陣地帶를 銳意攻略中의 地上部隊와 協力하야山上을 차고 陣地를爆擊 特히午前九時頃에는 老虎嶺及그南方各地를 退却하는敵을發見 掃射爆擊을 行하야 多大한 戰果를거두엇다

▲星子戰線 田中(哲)、下村、前島各部隊는 夜半西孤山南麓陣地에攻擊準備를한 地上部隊와 互相呼應하야 敵의前線陣地를 猛爆 此를潰亂시키고 隘口街附近의 砲兵陣地를猛爆하야 此를 沈默시키어서 地上友軍의 戰況發展에 協力하엿다

# 石本、平田兩部隊 湖北省內로進入

【王家十五日同盟特派員發】馬頭鎭의背後를 衝擊바더 周章狼狽總崩壞하야 西方에潰走하는 敵을殲滅코저 追擊戰에移한 ○○部隊는 十五日午後四時半省境을突破하고 湖北省에 進入하엿다 敵은 苗母山 烏頭山을連하는陣地에依據하야 我○○部隊의進擊을、阻止하려하엿스나 十五日朝來 我猛攻에 敵의 三線陣地는 苗母山 和尙山附近부터 崩壞되여 石本部隊는追擊을繼續 敵을 蹴散하고 劉家嶺을占據 여기에서 一部는 北方鄒家山에向하고 一部는 南方大魚鯉山에向하야省境을 突破、平田部隊는 徐家窪 敵을 潰滅시키고 更히白陽山을 奪取하고 街道로省境에 肉迫 玆에左翼兩部隊의 先頭部隊도 大槪同時刻 即午後四時半頃에 省境을突破하엿다

## 盧湯陳을占領

【劉家庄十六日發同盟】湖北省進出部隊는 猛攻에猛攻을 加하야 十六日午前一時夜襲을 決行하야 敵의 陽新前面據點盧湯陳을占領하야 陽新까지 七十里의 地點에 追到하엿다

## 隘口街攻防戰開始

【廬山東南發秀峰寺에서十六日同盟特派員發】西孤嶺制壓以來 廬山東南方을 南方으로 驀進中의 我○○部隊의戰局은 매우 有利하게展開 一旬에亘하야 頑强한抵抗을하던 敵大軍도 그太半은組織的抵抗力을 일코 士氣不振 後方 隘口街로 向하야 敗走中이다 一方 十四日朝來 敗敵을 急追中의 津田、福井各部隊는 終日의 激戰끄테 夕陽에는 各各 朱家港、橋頭、浦風墻의 線에進出確保、南方一키로 山家山에 據하는 敵陣地와 對峙하야 十五日朝來左翼 布施部隊와 互相呼應하야 壯烈한 隘口街攻防戰이 展開되엿다

## 光州總攻擊開始

【○○十五日同盟特派員發】十五日午前來平寺의 敵陣地를 制壓하고 光州를向하야 進擊을開始한 我有力部隊는 同夕光州南方防禦陣地의一角인 孫營에突入 그陣地를 占領하고 前面僅僅二키로의 近距離에 光州를내다보며 光州總攻擊의 幕은開始되엿다

【○○十六日發同盟】光州攻擊部隊는 十五日夜 敵의本防禦陣地의 一角 孫營을占領하자 最後의 攻擊態勢를 整備하고 十六日早朝를 期하야 一擧에 總攻擊을 開始하엿다

# 潼關砲擊開始로 隴海線運轉不能

【○○十六日發同盟】陝西省首都西安에의 關門潼關의 大砲擊을 始作한 我○○部隊는 繼續砲門을모아 一齊射擊을 퍼붓는一方 陸의荒鷲山淵部隊는 ○○機編隊로써 猛爆을敢行 드듸여 十六日朝에 潼關附近의隴海線列車運轉을不能케하엿다 我黃河渡河를 阻止코저하는 敵은 銃砲로써 應戰하는同時에 西安方面으로부터 繼續增援部隊를 보내어 必死防戰에努力하고잇는데 一部는벌서 逃亡을 꾀하고잇서 同方面은 大混亂을 呈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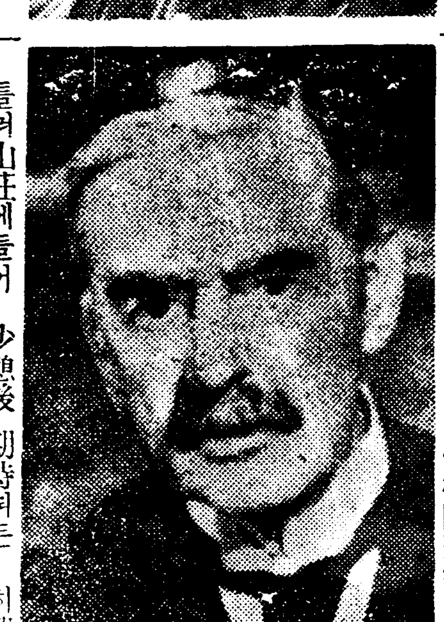
## 小山衆議院議長一行 政務總監招待宴

大野政務總監은 十六日午前十一時二十分 汝矣島着 旅客機로 入京한 衆議院議長 小山松壽、俵孫一、植原悅二郎의三氏를 十六日 午後七時부터 大和町官邸에 招待晩餐會를 開催하기로되엿다

## 天皇陛下 秘露使節團에賜謁

【東京電話同盟】去十四日來朝한 訪日秘露經濟文化使節團 團長펜레氏 以下 團員四名은 十六日 天皇陛下께謁見 敬意를 奉表하엿다 그때 펜레團長以下一行은 禮裝에 威儀를正히하고 同國公使와同伴、午前十時 參內 天皇陛下께옵서는 御軍裝 御凜凜하옵시게 同十時半 鳳凰間에 出御하옵시사 團長으로부터 來朝의 人事말슴을 言上 恭遜히 敬意를 奉表한바 惶悚하옵시게도 陛下께옵서는 親히 握手를 賜하옵시고 御慰勞의 말슴을 賜하옵섯다고 拜承된다 團員 三氏에게도 賜謁하옵시어 一同은 光榮에 恐懼感激하야 十一時 가까히 宮中을 退下하엿다

# 兩國巨頭歷史的會見!
# 世界視聽集注裏에 三時間餘會談繼續
## 風雨難測의 쳄、히 會見內容



【베르히테스가덴十五日發同盟】全歐의 期待를 질머지고 히틀러總統과 會見할 英首相쳄벌린氏는 隨員 윌슨顧問 스트렁 中歐局長을帶同하고 十五日午後飛行機로 뮨헨市에安着、렙펜트롭프獨外相 헨더슨 駐獨大使等의 歡迎을 바드며 即時 "베르히테스가덴"에 向하야 午後四時半 히틀러山莊에들어 少憩後 期待되든 히總統과의 間에 사람을 避하고 和戰의 歷史的會見을 開始하엿다 (寫眞은 히總統과 쳄首相)

【베르히테스가덴十五日發同盟】쳄벌린首相과 히틀러總統의 歷史的會見은 베르히테스가덴山莊에서 十五日午後五時부터 八時까지 前後三時間동안 行하엿는데 今日會談內容에 關하야 히總統과 쳄벌린首相은 現下의 情勢에關하야 隔意업는意見交換을 遂하엿다 고簡單히發表되엿슬뿐으로 詳細는 判明되지아니하엿다 但右會談結果 쳄벌린首相은 至急閣議를 열고 協議할 必要가 생겻스므로 一日會談을中止 十六日倫敦에 歸還키로 決定하엿다 쳄벌린首相은 緊急 閣議를 마추고 二三日中에 再次 베르히테스가덴에 出馬 兩巨頭會談을 續行할터이다 이에 關하여 十五日夜 베르히테스가덴의 英國側隨員團으로부터 如左히 發表되엿다 쳄벌린首相은 明十六日 倫敦에 向하야 閣議를 開催하고 重要事項에 關하야 協議를行한後 二、三日中에 再次 獨逸로 오기로 되엿다

## 쳬코政府 헨라인氏逮捕發令

【프라하十五日發同盟】쳬코政府는 十五日 內亂罪嫌疑로 주데텐黨首 헨라인氏逮捕命令을發表하엿는데 右逮捕令은 十五日午前 헨라인黨首가 주데텐地方의 獨逸合倂을要求한것은 國法에 反하야 治安을 紊亂케한다는 理由에 基한것이다

【伯林十五日發同盟】AP伯林支局이 주데텐黨 某領袖로부터 어든 確報에 依하면 十五日午前 주데텐地方의 獨逸合倂要求宣言 發表와 同時에 곳 亡命 無事 獨逸領內에 逃亡하엿다고한다

## 英首相急遽歸國
## 二三日中會談續行할터

【베르히테스가덴十五日發同盟】쳄벌린英首相은 히틀러總統과 會見後 明十六日 倫敦에 歸還하야 各閣僚와 協議後 二、三日中에 베르히테스가덴 에 飛來 히틀러總統과의 會談을 續行할터이라고 十五日夜 發表하엿다 쳄首相은 十六日飛行機로 베르히테스가덴에서倫敦에歸還緊急閣議에 出席하야 히總統과의 會見顚末을報告한後 英國側最後的態度를 協議하고 다시二、三日中에再次베르히테스가덴에다시 가서 드듸어 最後의 重大協議를할豫定이다

## 各種報道로 쳬코不安激昂

【伯林十五日發同盟】十五日伯林에 達한情報에 依하면 주데텐地方에는 總罷業이 開始되엿다 하며 一方確報는아니나 獨政府가드듸여 쳬코政府에對하야 주데텐地方返還을要求하엿다는 報道도잇서 쳬코의不安은 더욱注目을 끈다

## 英、緊急閣議召集

【倫敦十五日發同盟】英政府는 十五日베르히테스가덴에 滯在中의 쳄首相으로부터의 要請에 接하야 十六日午後 緊急閣議를 召集하고 그目下 倫敦市內에 待機中인 各閣僚에 通達하엿다

## 佛首相 倫敦에急行 쳄首相과會見次

【巴里十五日發同盟】쳄벌린英首相은히總統과의 會談結果를 齎來十六日急遽倫敦에 歸還키로되엿는데 달라디어 佛首相도쳄벌린首相과會見하고今後의態度에關하야充分協議코저 十六日쳄벌린首相의 倫敦歸還前後하야 空路倫敦에赴하기로 되엿다 佛國側에서는 쳄首相 倫敦歸還決定報에最初若干驚愕한 狀態이엿스나 쳄首相이 再次 베르히테스가덴에 赴하야 히總統과 會談을續行할을알고 多少安堵하야 今後의會談成果에 希望을가지고잇다

## 란卿도歸國

【프라하十六日發同盟】쳄벌린首相이 히總統과會見中途에 十六日倫敦에歸還할것과 互相呼應하야 쳬코問題의斡旋役으로서 一個月間 프라하에滯在中이던 란시맨卿도 十六日突然 倫敦에歸還키로되엿다 란시맨卿은 倫敦에서 쳄首相과 쳬코問題에關하야 重要協議를遂할것으로보인다

# 히氏提案은重大?
## 倫敦政界의觀測

【倫敦十五日發同盟】倫敦政界에서는 十五日夜쳄벌린首相은 히總統과의 會談中途에 一旦倫敦에歸還하야閣議를열고協議를行한다는報道를接하고 意外의 느낌을가지고잇는데 歐洲政局의 危機打開에 悲壯한決意를가지고 히總統과의 直接交涉에出動한 쳄首相이、會談途中 歸國할地境인즉 히總統이 무슨重大한 提案을 하엿슬것이라고보고잇다 但그提案內容이 如何한것인지 只今全혀 判明되지아니하야 會談前途는 全然 推測할수업다

## 프랑당前佛首相 戰爭反對態度表明

【巴里十五日發同盟】各紙는 쳄벌린 히틀러兩巨頭會談成功에 希望을 부치고 安堵의 비츨 보이며 又漸次國民投票實成論等의 軟化論이 만히나게되엿는데 極少數는 亦是英佛의 屈辱的讓步를 非難하고잇다 巴里의 有力紙들紙는 十五日社說로 獨逸에 對하야 반드시平和的解決의 길은잇다 쳬코에對하야 武力干涉을 하지안키를希望한다 又프랑당元首相은 十五日會議紙上에서 議會에 諮詢치안코 戰爭은할수업슬것이다라고 戰爭反對論을 述하고잇는데 프랑당氏는 一日前에首相과 會見의際에도 그主旨를 述한것으로 보인다

# "주데텐獨逸人을 祖國에歸還식히라"
## 헨黨首强硬宣言發表

【에게르十五日發同盟】주데텐獨逸黨首헨라인氏는十五日 에게르市에서 "주데텐獨逸及世界의輿論에訴함"이라고 題하야 주데텐地方의 獨逸에의 合倂을 要求하야 如左한强硬한 宣言을 發表하엿다 쳬코官憲의 테로리즘은 주데텐獨逸人이 쳬코國內에 머물러잇슬수업슴을 表示하는것이다 我等은 一九一九年에는 自決權을行使치못하고 强制的으로 쳬코共和國에編入되엿다 주데텐獨逸人은 公正한 解決을發見키爲하야 可能한限 努力하엿스나 我等의 努力은 드듸여 쳬코側의 拒否한바되엿다 我等은 自由로운 獨逸人으로서 生活키를欲望한다 我等은 平和가再次도라오기를 바라며 祖國에서 活動하기를 欲望한다 我等은 獨逸에歸還하기를 欲望한다

## 時事解說 獨쳬兩國軍備

中歐의 火藥庫로 일커러잇는 쳬코問題는 드듸여 惡化하야 주데텐黨員毆打事件을發端으로再昨十四日午後獨逸國境가까운"우타"는地方에서 주데텐獨逸人 二千餘名이 警戒中인 軍隊와 衝突하야 雙方死傷者 百餘名을내이자 國內到處에 空氣는 險惡化하엿스므로 英政府는 大驚失色하야 十四日即刻 쳄벌린英首相은 히틀러總統에게 會見을 要請하고 이어 十五日午後四時는 獨逸에赴하야 베르히테스가덴에서 全世界의注目을 끌으며 兩國巨頭가 歷史的 會見을 하게 되엿다 會見內容은 아직 發表가 업스므로 今後事態를 容易히 推斷할수는업스나 昨今은 獨逸이前古未曾有의 强硬大演習을實施하고잇는 最中이라 軍事衝突은 實로間一髮에잇는바 그러타면 現在의 쳬코自體의 軍事實力은 얼마나되는가 쳬코의軍事實力은 軍事專門家들로서도 獨逸에不下하는 實力을가젓다고 評하는 바로 特히注目할것은 有名한 스코다武器會社를 中心으로한 世界有數의 武器生產國으로 一九二〇年以來 軍備를 擴張하야 今年初頭에 이르러는 現役二十萬 豫備兵百六十萬 兵器는勿論完全하야 飛行機一千臺以上을 가지고잇는터이나 쳬코軍의 큰缺陷은 假敵人種이 多數인것과 國土의 要衝部가 獨逸에包圍된一方 墺國合倂이된 墺太利國境은 無防備狀態로잇는外에 獨逸에比하야 人口의 大差(現在千五百萬人)는 戰時後備兵力의 大差를 免치못하게되여 英、佛、蘇의援助가업시는 獨逸의 敵이못되리라는 結論이다. 여기에對하야 獨逸의兵力은 今年初頭에 常備兵百二十萬 親衛隊突擊隊外에 [illegible] 二千機以上 [illegible] 獨逸의弱點으로는 [illegible] 軍備前까지 十六年間 [illegible] 을 못하야 壯丁의教育 [illegible] 取하야 [illegible] 備兵이 [illegible] 以外에 [illegible] 軍事家들은 [illegible]

## 人事·集會

▲山澤第二郎氏(慶南知事)十八日午後十時五分京城驛發任地에向
▲富田正次氏(慶尙府釜山府長)十七日午後四時十五分京城驛發東京에出張
▲新妻莞氏(京城日報社理事編輯局長)新任人事次十六日來社

## 八面鋒

◇飛行機로 獨逸을訪問한 英首相、베르히테스가덴山莊에서 히總統과 會見하고 다시 歸英하야 閣議를열고 다시 渡獨한다고。
◇히總統이 難問題를 提出한 모양。
◇如何間 英首相이 直接 出馬햇스니 戰爭에까진 이르지 안케하고 말것지!
◇綠材의 飢饉으로 京城府의 初等校擴充에 一大支障이생겻다고。
◇何必 京城府뿐이라오。그러나 이것만은 餘百事하고 實現해야할일。
◇敎育은 第一線의 戰爭이니까。
◇虎列刺患者 얼만해도 不熄。
◇海上으로 떠도라 다니는것이니 人力으로 退治키도 어려운모양。
◇陸上에는 올라오지 못하도록 絕對 警戒가 必要。

温突紙 朝鮮紙 北川紙物商會

流行歌 九曲肝腸 朴響林 Columbia 40826 콜럼비아레코-드

在庫豊富 東亞織物販賣株式會社 京城瑞麟町 秋夕前에 色具에는 東亞織物로

松谷 李鳴鶴先生 運命鑑定所 京城島信町 六七八五

音樂敎授 피아노、聲樂、바이올린 其他敎授、初步者歡迎 規定書進呈 京城明治町二丁目二一 音樂社 音樂スタヂオ

時計士養成 三個月間卒業通信敎授의便도有함 規則要郵券二錢 京城府敎岩町四一四 京城時計修理院

朝報案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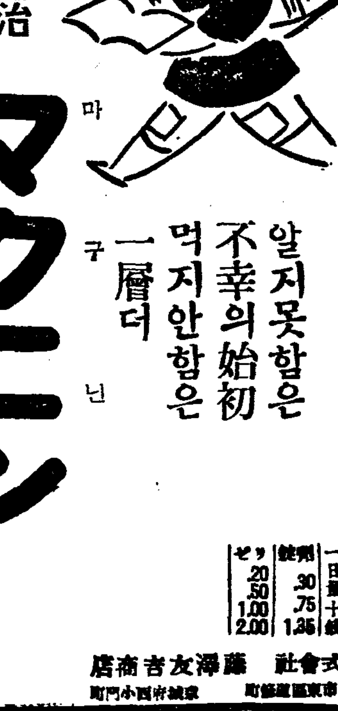
懸賞尋犬 金二圓贈呈 京城三坂通一〇五 乳販賣所

垈地讓渡 明倫町一丁目 二百貳拾八坪

古本 斯然高價買入 電話下命出張買受 京城府寬勳町 三中堂書店 電話光三三四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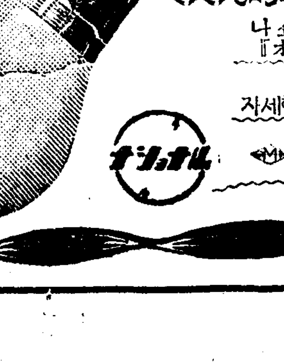
生徒募集 京城自動車學校へ

惡疫猖獗 腸胃に全治 一道丸




最新强壯劑 フェロトン

藥은 安澤商店으로 仕入하십시요
今般弊店에서 營業을擴張하는同時에 藥品部를新設하고 各種藥品、藥種貿易을主로全鮮各地에 同業者諸位에게 萬分之一이라도便宜를圖謀하고저 弊店藥品部特約販賣店이 無한場所에 設置코저하오니 全鮮同業者諸位는信實한主義下에進行하는 弊店과 握手하시와 藥品供給에圓滑을圖謀하시압소서 通信으로新聞名記入하시서照會하여주시면 親切히規定을回報하겟사오니 早速申込하시압소서
京城府臥龍町八十番地
各種藥品 皇漢製品 藥種貿易 卸 安澤商店藥品部 告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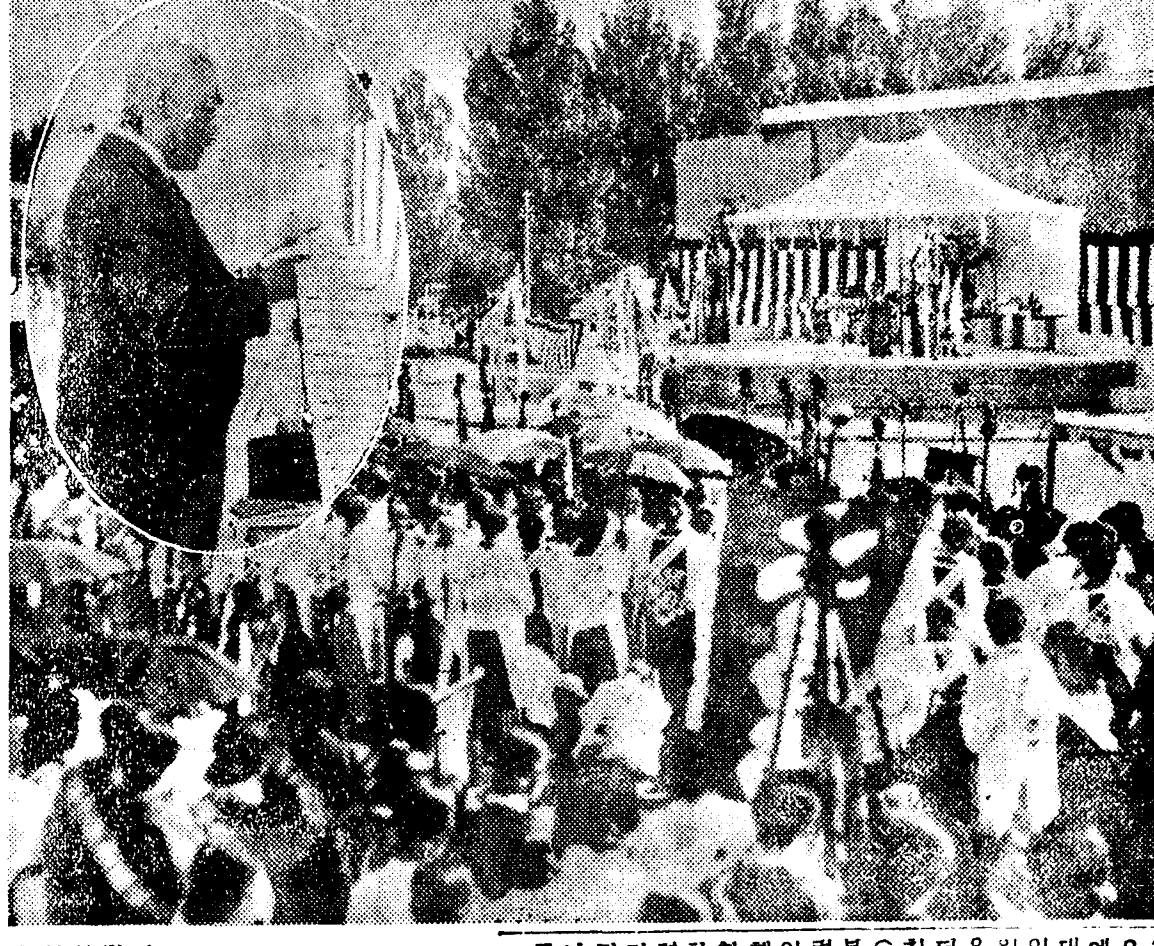
純國產電球 나쇼날 ナショナル 普及運動

愛國債券付賣出 一等
나쇼날電球一個式사신분에게『オタノシミ袋』를進呈합니다
자세한것은販賣店에서 무르시요
ナショナル電球株式會社

九月十七日부터 短期再映
MODERNTIMES モダンタイムス
原作 監督 主演 チャーリー・チャップリン
彼獨特の皮肉と諷刺とを投げ爆笑の渦の中で彼は斷然唄ふてす其の唄が現代人に、どう響いたか？
京日讀賣 朝日パテー 音聲発声ニユース映画
M・G・M社特作 踊る不夜城
監督 主演 ロイ・デル・ルース ロバート・テイラア エリノア・パウエル
踊る、唄ふ、タツプは亂れ 得意の妙技は交々に 燦然、麗彩、正陶醉境に魅了す
BROADWAY MELODY OF 1938
明治座

# 張鼓峯事件戰死者 合同告別式 各地擧行

## 全朝鮮一齊默禱、哀悼表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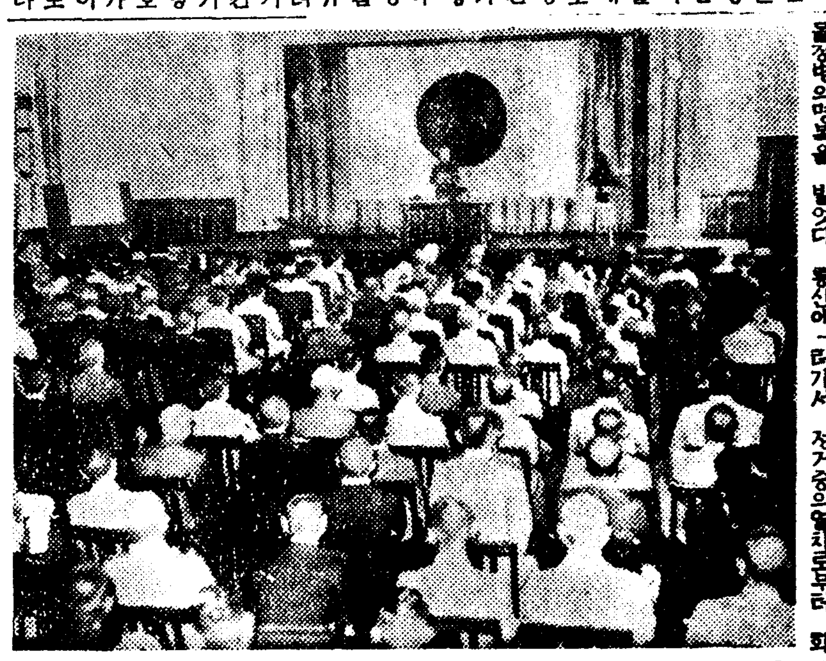
지난번 장고봉(張鼓峯)사건에 위제일선에서 희생되여 영구를(柱)의 유골은 회령(會寧)라남(羅南)함흥(咸興)의 원대에 이 서 현현한 무훈을세우고 국경방면의 영령을남긴 용사○○주 미 각각무언의 귀환을 하엿는 데 십오일회령원대에서는 중촌(中村)군사령관 미고(尾高)국경 방위부대장이하 전원참렬하에신 식(神式)으로 엄숙한 고별식 (告別式)을 집행하엿고 십륙일 오전아홉시반 부터는 라남원대 에서 중촌군사령관 총독대리로 대죽(大竹)내무국장 미고국경방 위부대장이하 원대전우유족등전 원이도렬하고 판민다수참렬한가 운데 고별식이 엄숙하게 집행 되엿다 경성에서는 판민합동주 최로이날오전열시 경성부 제장 (齋場)에서 대야(大野)정무총감 북야(北野)군참모장이하 판민유 력자 군대와 학교단체등 무려 일만여명이참렬하야 위령제를거 행하고 호국의 영령에게 경건 한 조의를표하엿다 이날을 기 하야 전조선일제히 이거룩한영 령에게조의를 표하게되여서 오 전열시에『싸이렌』과함께 길가 던 사람이나 집에잇는 사람이 나 누구나 모두 일분간 묵도 를 바치애도의 뜻을 표하엿다



# 京城府의慰靈祭

## 午前九時半一萬軍官民參列 英靈에玉串을捧奠

경성부주최 장고봉사건 전몰 장병위령제(張鼓峰事件戰歿將兵 慰靈祭)는 십륙일오전 아홉시반 부터 부내 훈련원(訓練院)에특 설한 부민회장(府民會場)에서엄 숙한 가운데 성대히 집행하엿 다 먼저 재주(齋主)시경성신사궁 사(市京城神社宮司)가 초혼(招 魂)의식을 행하고 신찬을올니 고 재주축사(祝詞)를 맛븐다음 제주 좌백부윤(佐伯府尹)이 제 문을올니고 제주가 옥관(玉 串)을 봉전(奉奠)한데이어 창 덕궁어사 이겸성(李謙聖)이 우꽁가어사 강엽후(康福府)、 조선군사령관(代理北野少將)、 대야정무총감(大野總監) 심택 부대장(代理石垣大佐) 도민대 표 갑자경기도지사(甘蔗知事) 남자단체대표 안배량부 소장 (安倍少將) 부인단체대표 중 촌군사령관부인 칠십만부민을 대표하야 대야부회부의장 (大 野府會副議長)등 참렬자의 옥 관봉전으로 식을마치엇다 이날참배 자는 무려일만 식중오전열시에 동일시반 『싸이렌』을울녀 전시가의령 의묵도를올렷다



(사진은 부민회장위령식장과좌 백부윤의제문랑독)

## 朝鮮軍慰靈祭

조선군사령부에서는 십륙일오 전아홉시오십분에 정내(庭內)국 기게양대미테서 전장병이 참집 하야 오전열시 『싸이렌』이나자 일제히 일분간의 묵도를바치서 장고봉사건전몰장병의 영령의명 복을 빌엇다 제이십사단 사령 부에서는 십륙일오전 아홉시 오 십분에 정내에참집하야 역시오 전 열시를기하야 묵도를바치 전 몰장병의명복을 빌엇다 룡산에 잇는 각부대에서도 역시그영 령(英靈)에게묵도를 바치엇다

## 日英兩將校 拔劍騷動

【天津十五日發同盟】 십오일오전 십이시경에 장교이하 수명의영 국병이 화물열차(貨物列車)에 을 보이지도안코 중국인의원의 정지를거절하고 『프랜드존』에도 러가서 정거중의열차로부터 화 물을 끄내스므로 일본헌병이 제지하랴 하얏든바 흥분한 『오 렌』소좌는 돌연히 일본헌병에 [illegible] 이에 일본인장교는 이영국장 교의 폭행에극도로 분개하야그 칼집을 빼엇스나 그들을 [illegible] 유하지아니하야 [illegible]

## 프러殺人

[illegible] 십오일오후 두시이십분 서대문서관내 [illegible] 삼백삼십일번지 [illegible] 이십 세가량되는 조선청년이 치어 죽엇는데 운전수는 곳 서대문 서에 인치되어 취조를받고잇다

# 防共協會京畿道支部 今日結成式盛況

## 閉式後朝鮮神宮參拜

조선방공(防共)협회 경기도연 합회지부 결성식은십륙일 오후 두시부터 경기도청 제일회의실 에서 삼교(三橋)협회장을 비롯 한 관민백여명출석하에 성대히 거행되엿다 식은 중촌(中村)경 기도 고등과장의개회사의 뒤를 이어 일동의국가합창이 잇슨후 고(高)경기도 방공협회장으로부 터 방공협회 설립의 취지설 명이 잇섯고 뒤이어 감자 (甘蔗)경기도 회지부 장의 결성 보고 조선방공 협회 규약 발 표 역원·축라이 잇슨후 감자 지부장의 식사 삼교 협회장의 고사 래빈대표 한상룡(韓相龍) 씨의 축사가잇슨후 황국신민서 사제창 만세를봉창한후 동세시 에 원만히 폐회하고 그리고 식후 일동은 조선신궁에 참배 하엿다 (사진은 결성식광경)

## 八月中小賣物價 騰貴率低落

### 物價抑制策의實效

총독부상 공과(商工課)조 사에의하 면지난팔 월중의전 조선소매 물가 (小 賣物價) 는 조사 품목팔십 오품중에 등귀된것이 사십이품저락된것이 삼십삼품보 합(保合)하고잇는것이 십품이다 식료품은 선월에 비교하야일 『퍼-센트』가 저락되엿스나 그 중 백미 보리 조 콩 께 분 두부등은 이『퍼-센트』가 올랏고 감자 고구마 파 버섯 사과 배나나등은 일할이나 떠 러젓다 또 육유(肉類)계란 우 유등은 일『퍼-센트』 삼이올르 고 생선 미역 해의(海苔)등은 전월파가티 보합하여잇고 사탕 소금 간장 된장 고초 기름 술 담배등은 령『포인트』구『퍼- 센트』가 떠러젓다 그다음 의 복감 장신구등은 일『포인트』 [illegible] 『퍼-센트』 등귀엿고 [illegible] 『포인트』 [illegible] 가 성립되여 상품의 가격표시 등 물가억제책이 효과를내인것 이라고한다

# 隔江千里의兩江岸

# 船舶人馬往來禁止

## 鎭南浦、中和두곳에또虎疫患者發生되어

# 大同江의防疫陣一層鞏固!

【平南支社電話】 평남에는 의연 히 호열자가 발생하고잇다 진 남포 비석리(碑石里)삼백십일번 지에사는 로동사 정태걸(鄭泰 杰)(三一)은 십오일 오후두시경에 발병하야 십륙일 오전여섯시에 사망하엿는데 진성호열자로 판 명되엿고 또 중화군 양정면 삼 합리(中和郡楊井面三合里)농업김 주섭(金周燮)(四一)은 십사일오후 네시부터 발병하야 중태에잇는 데 아직 진성여부는 알수업스 나 대개진성환자에 틀림업슬것 으로 단정하고잇다 도당국에서 는 만전의 방역진을치고잇슴에 도 이가티 환자가 계속발생함 에 놀래고잇다 전염계통을보면 대동군 남곳면(大同郡南串 面)에서 대동강물로 빨래를 하 고 일가족이 호열자에 걸린것 등으로 보아 대동강물이 직접 전염하고잇다는 견지에서 대동 강상의 방역진을 일층강화키로 하고 대동강상의 선박과 떼목 의 래왕을 일체정지키로하야진 남포(鎭南浦)에서 평양(平壤)상 류지방 고방산(高坊山)에까지이 르는사이에는 일체의선박왕래를 금하기로 십륙일다시 도령이발 포되엿다 또그구간에서는 도선 (渡船)도일체금하기로 되엿는데 그중 평양의양각도(羊角島)와평 양과에도 선장만은 평양시민의 교통이 빈번한곳이므로 다소판 대히 보아주기로하엿다 이때문 에 대동강은 완전히 사람과의 따게를끈흔 죽음의 물이 된셈 이고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두 강안은 완전히 교통이 끈허저 이야말로『격강천리』의 감을더 욱깁게 하고잇다 또호열자가만 히 발생된 대동강안의 대동군 남곳면과 중화군의 양전면과당 정면(唐井面)의 교통을 차단하 야 정기 자동차통행가튼 것도 금하게되여 동구역은 완전히봉 쇄되엿다 동시에 동지역내의채 소 과실등 기타의 음식물의반 출도 금하엿다 그러고 중화군 파 강동군(江東郡)도 시체검사 구역에너헛다

# 地方에도波及?

## 中央無盡事件續報

누보=본정서의 남카로호해부 일에는 다시동사외무(外務)주임 정택(鄭澤)과 조사파의 진기(辰 己)를 검거하고 엄중히 추궁중 인데 범죄사실은 원체십년전부 터 지금까지 계속되여오던것인 만큼 판게자가 무수히판명되여 갑부들의 부정사건은 그뒤순렵 한취조가 계속되고잇는데 [illegible] 서 어디로 어떠케되어갈지 취 조당국으로도 알수업스며 사정에 따라서는 지방지점 간부급에까 지 파급될 형세를보이고 잇스 므로 장래가 주목된다 더욱 사건의판계자는 모다조 선구진의 거부들로서 중앙 무진이 생기전 공제(共濟)무 진의 역원들로서 한동통제된오 날에도 그들의 절대의 세력을 가지고 현연키어려운 악덕을게 속해오든것이다

## 事件을徹底히 糾明할方針

### 二見司法主任談

이사건으로마려 연일연야 맹렬 한활동을하고잇는 이견(二見)사 법주임은 다음과가티 말한다 아직은 어떠라고 말할수업스 나 사건이 예상이외로 큰것 파 그늘 중역의 악덕에놀라다 지 안흘수업다 될수잇는대로 가입자(加入者)대중의 피해를 방지하기위하야 이기회에 철 저히 사건을 규명시킬터이다

## 藤谷氏는無關聯

중앙무진사건에 연좌되여 십 오일에 검거되엿다는 조사파주 임 등곡(藤谷)씨는 그뒤검속당 한일이업다는것이 판명되엿다

## 스포-츠

### 重量擧競技

第十四回朝鮮神宮奉贊體育大會 重量擧(力道)競技大會는 十月十 日十一日兩日間 午前十時三十 分부터 京城運動 場에서 行하기로되엿다 [illegible] 技術部으로 參加金三十錢을 添 付하야 申請하기를바라며 計體 量은 十月十日午前九時三十分부 터 十時三十分사이에 京城運動 [illegible] 五一瓩級으로부터 重量 級까지 八階級에 나누어 行하 기로되엿다 參加希望者는 九月 二十五日까지 京城府花園町四一 中央體育研究所內 朝鮮重量擧 [illegible]

## 色鉛筆

사랑은 국경도업 고 계급도업다고 마 음파마음이 서로통 하면 한하다는것이 소위 새말로 연애 라는 사랑타령인데 ▲연애는 연애요、결혼은 결혼 이라고하야 연애는 연애대로할 것이요 반드시 결혼을하지안코 면 안될것이 무엇이냐고하는것 은 다시말하자면 남녀간에 행 실을 외도판으로 돌리자는것▲ 결국은 남녀가 사랑한다면 결 혼이 잇슬것이요、결혼이 잇슬 것이니 부부의 생활이 성립된 다면 유희도 아니요 놀롤도아 니 엄숙이 잇슬것이다 남편은 처를 귀해하고 처는 남편을공 대하고 가정을 꾸리는 법속이 잇거던▲이모양으로 사람사회의 살림은 반듯이 유법전서를 펴 노코 따지던가 론어나 맹자를 펴노코따지기전에 그엄숙함이잇 슬것이 전제로되여잇슴을 알진 댄▲애초에 사랑도 끌리서 잘 각오를 세우고할것을、사랑할 못 택해가지고 먹을것도 잇다 는집아들이 재치하녀와 제멋대로 버터 도망와서 내종에는 자살 을 하다니……▲이것도 사회의 불건전한 대표적일례

# 全朝鮮列車時刻大改正

# 北京까지直通列車

# 幹線에"急行"增發

## 日滿支連絡旅客輸送陣强化

十月一日부터實施

철도국에서는 만주철도총국및 북지(北支)철도당국과 서로 련 락하야 조선 만주 북지사이의 렬차련락운전시간과 조선안 각 선의 운전시간을 대대적으로 개 정하기로 계획하고잇섯는바 드 되여 그것이결정되여 십륙일에 정식으로 발표하엿다 그중요한 점을 들면 다음과 갓고 실시 는 십월일일부터이다

▲부산 북경사이에 직통렬차 를 신설하엿다 만주와북지 방 면으로가는 려객이 무척 만하 젓스므로 지난 사월이래 급행 『노조미』에 병행하야 림시급 행 제일천칠백팔렬차를 부산봉 천사이에 운전하고 잇섯는데 북 지방면으로 가는 려객의편리를 도모하기위하야 그렬차를 다시 정비하여 일이 삼등렬차에 전 망차(展望車)를 련결하야 급행렬 차로서 부산 북경사이에 직통 운전을하기로되엿다 그리고 부 산북경사이의 운전시간은 삼십 팔시사십오분이다

▲『노조미』를신경(新京)까지 연장하엿다 이렬차는 부산봉천 사이에 래왕하는급행렬차이엿는 데 최근에신경방면으로가는 려 객이 상당히만하젓스므로 그편 리를 도모하기위하야 신경까지 연장하엿다

▲부산 봉천사이의 제오제륙 렬차를 준급행(準急行)으로하엿 다 종래에경성 봉천사이에 왕 래하는 려객이리용하는 급행렬 차는『히까리』의 시간이 새벽 이여서 나뿌기 때문에대부분은 오후에 떠나는『노조미』에 집 중하게되야 결국 나제가는 급 행렬차가한개뿐만으로서는 불편 이잇섯기때문에 이불편을 적게 하기위하야 이번에 제오 제륙 렬차를경성 봉천사이의 준급행 렬차로하야 운전시간을 세시간 가량 단축하는동시에 봉천행은 경성에서 밤아홉시십오분에떠나 고 봉천으로부터 경성에 도착 하는것은 아침여덜시반으로되여 서 이용하기에 편리하게되엿다

▲경원(京元)함경선(咸鏡線)에 급행렬차를 증발하기로 되엿다 북조선지방과 동만주방면의 발 전에따라 경원 함경선의 교통 량은 날로증가하야 급행렬차는 물론 각직통렬차는 모두 만원 되는 상태이므로 이것을 완화 하기 위하야 경성 청진(淸津)사 이에 이삼등 급행렬차일왕복을 증발하기로되엿다 이렬차는 성 진(城津)길주(吉州)혜산선(惠山 線)방면에 왕래하는 려객에게 는 특별히 편리하게된것이다

## 貨物列車增發

### 混合列車도復舊運轉

시월일일부터는화물(貨物)렬차 도 다음과가티 증발하기로 되 엿다 그증발로 말미아마 하로 에 주행(走行)하는『키로』는약 오천사백키로이다

▲대전(大田)경성사이에 이왕 복 ▲경성 평양사이에 이왕복 ▲경성 청진사이에일왕복 ▲복 게(福溪)청진사이에 일왕복▲대 전 리리(裡里)사이에 일왕복▲ 평양 희천(熙川)사이에 이왕복 으로 각기증발하기로 되엿다

▲그리고 중간차를 정리하기 로되엿다 종래에 중간렬차는상 당히 오래동안 각구간에 하로 에 이왕복의 운행을 하여왓스 나 이번에 하로 일왕복으로개 정하고 렬차의 운행구간을 짧 게하엿다 즉 종래에 부산 대 전사이에 운전하든것을 부산대 구사이로 경성 평양사이는 경 성 신막(新幕)사이로 모두 구 간을 짧게하엿다 이와가티 개 정한 리유는 여태까지 구간이 너무 길기때문에 자연히 운행 에 장시간이 걸리게되여서 두 끄테 잇는 역은 아침일죽이나 밤느께되여 발착하게 되므로 모 처럼 이왕복이 실제에는 일왕 복바께 이용되지 안는때가 만 흐므로 이번에는 운행구간을 짧 게하야 주간(晝間)만의 운행으 로하야 이것을 이용하기에 편 리하게 하엿다 또 종래의 중 간렬차와가티 속도가 느린 렬 차가 각구간에 이왕복이 잇는 즉 다른 렬차에 영향이 만하 서 렬차의 증발에 곤난하므로 일왕복으로 고처서 선로용량 (線路容量)의 증가를 도모 하 고 리렬차의 운행을용이하게 하야 일반화물수송의 원활을도 모하기로 되엿다 그래서 원거 리에 수송하는 소구하물(小口 貨物)은 될수잇는 대로『적합 차(積合車)』를 리용하고 중간차 는 근거리수송에 리용하도록하 야 화물처재의 흐름을내고 화 물수달을 도모하기로되엿다

▲객차화차혼합수송을 다시예 전대로 실시하기로되엿다 종래 에 경성대전사이와 경성신막사 이와 경성복게사이는 객차와화 차를 분리하야 운행하기를 원 측으로하고 그밧게다른선도는될 수잇는대로 객차와화차를 분리 하기에힘써왓스나 이번에각구간 에모두원측으로서 객차와화차의 혼합수송을 하기로 다시고첫다 려객수송하는 편으로보면 환영 할수업는 일이겟스나선로의 용 량에 더변통할도리가업는 오늘 의형편에 잇서서는 렬차회수를 증가하지안코 수송력의 증대를 도모하지 안흘수 업게되엿스므 로 복선공사(複線工事)가 완성 될때까지의 대책으로 우선 이 와가티 개정한것이라한다

## 新情勢에 對備

### 工藤鐵道局長談

지난번의 렬차시간개정은 소 화십삼년일월이엿는데 개정한 뒤 겨우이년도 채못되여서 이 번에 다시 전선(全線)렬차시간 을 개정하게되엿다 조선안의각 종산업이 발흥하고 더욱이북조 선방면은 획기적으로 약진하고 잇스며 일방으로 만주국의진보 발전과 북지방면의 신정세(新 情勢)를 반영하야 조선철도국선 의 려객화물의수송량은 점점증 가하고잇는 현상이므로렬차의변 경배치개체(配置改替)증발(增發) 등으로 적당히개정을 하게된것 이다

### 湖南線

南行

| 列車番號 | 大田 | 裡里 | 松汀里 | 木浦 |
| --- | --- | --- | --- | --- |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北行

| 列車番號 | 木浦 | 松汀里 | 裡里 | 大田 |
| --- | --- | --- | --- | --- |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全羅線

南行

| 列車番號 | 裡里 | 全州 | 順天 | 麗水港 |
| --- | --- | --- | --- | --- |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illegible] (麗水行)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北行

| 列車番號 | 麗水港 | 順天 | 全州 | 裡里 |
| --- | --- | --- | --- | --- |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京釜、京義本線 北行)

| 種別 | 列車番號 | 發驛 | 行先 | 釜山 | 大邱 | 大田 | 天安 | 水原 | 京城 | 開城 | 平壤 | 安東 | 奉天 | 新京 | 北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特急 | 一七 | 釜山 | 京城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 | | | |
| 急 | 七 | 〃 | 新京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 急 | 九 | 〃 | 北京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illegible] |
| 客 | 一〇五 | 〃 | 京城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 | | | |
| 〃 | 四七 | 〃 | 奉天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
| 急 | 一 | 〃 | 新京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 客 | 一〇三 | 〃 | 京城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 | | | |
| 〃 | 三 | 〃 | 奉天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
| 準急 | 五 | 京城 | 奉天 | | | | |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

### (京釜、京義本線南行)

| 種別 | 列車番號 | 發驛 | 行先 | 北京 | 新京 | 奉天 | 安東 | 平壤 | 開城 | 京城 | 水原 | 天安 | 大田 | 大邱 | 釜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客 | [illegible] | 奉天 | 釜山 | |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 | [illegible] | 〃 | 〃 | |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 | [illegible] | 新京 | 〃 |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急 | 二 | 〃 | 〃 |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客 | 六 | 奉天 | 京城 | |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 | | |
| 急 | 一〇 | 北京 | 釜山 | [illegible] |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 | 八 | 新京 | 〃 |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特急 | 一八 | 京城 | 〃 | | | | | |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客 | 一〇四 | 京城 | 〃 | | | | | |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客 | 一〇六 | 京城 | 〃 | | | | | |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京元 咸鏡本線) (北行)

| 種別 | 列車番號 | 發驛 | 行先 | 京城 | 龍山 | 元山 | 咸興 | 城津 | 輸城 | 淸津 | 會寧 | 南陽 | 羅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客 | [illegible] | 京城 | 城津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 | | |
| 急 | [illegible] | 京城 | 羅津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急 | [illegible] | 京城 | 淸津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 |
| 客 | [illegible] | 京城 | 淸津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 |
| 客 | [illegible] | 京城 | 咸興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 | | | |

### (南行)

| 種別 | 列車番號 | 發驛 | 行先 | 羅津 | 南陽 | 會寧 | 淸津 | 輸城 | 城津 | 咸興 | 元山 | 龍山 | 京城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客 | 三一〇 | 咸興 | 京城 | | | | | |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客 | [illegible] | 淸津 | 京城 | | |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急 | [illegible] | 淸津 | 京城 | | |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急 | [illegible] | 羅津 | 京城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京城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白白敎殺人魔

## 殘黨頭領一名送局

살인결사 백백교의 중요간부 의 한사람으로 남녀교도를 스 물두명이나 죽인후 이래 경거 망을 교묘히버서나서 종적을감 추고 잇다가 얼마전에 동대문 서에체포된 평북 강계읍동부동(江 界邑東部洞) 계준환(桂俊煥)(三四) 이가 금일송국되엿다

송국된 살인마 계(桂)는 현 재남어잇는 유일의 잔당임으로 이번송국으로 그러듯 세상을 놀내게한 소위 백백교사건도 일 단락을 고하게된세음인데 이제 취조에따러 백일하에 폭로된그 의 죄상을보면 소화삼년부터사 년에 이르는 일년동안에 자기 단독으로 혹은도 다른간부와공 동으로죽인 교도의수는 모두스 물두명이나 되는데 그중에는평 소부터서로가 친교를 매저오든 동교간부 신인봉(申人鳳)의처김 씨의이름도섞겨잇슬뿐외라 소화 삼년 삼월모일에는 안변군 (安 邊郡)청학산(靑鶴山) 살인굴(窟) 에 비밀누설의 혐의가잇는 이 십삼사세된 젊은 남교도한사람 을 끄을고가서는 벌거벗게한후 『네마음속에 악귀가드러잇스니쫏 처내여주마』고 죽이고는 방줄 로 발고락으로부터 머리까지빈 틈업시 감어서 죽인후 그대로 땅을파고 파무더 버리는등참아 입에담어 말할수업는 가지가지 의 악착한수단으로 교도를죽 인사실을 자백하엿다한다

## 天氣豫報

今夜와明日은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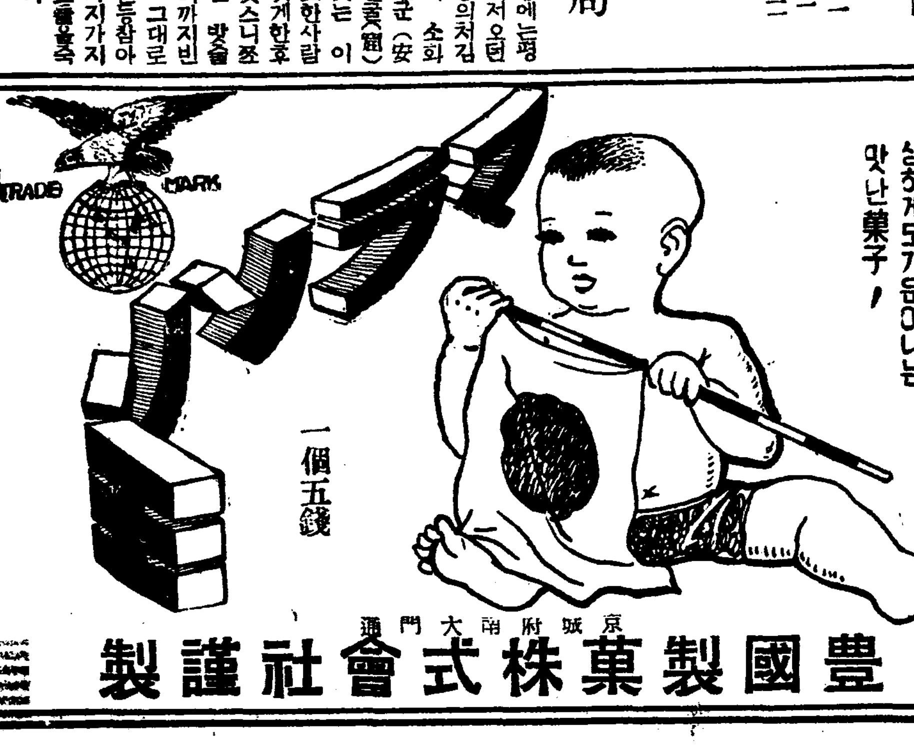
昨日最高 二四、二

同 最低 一一、一

十六日朝最低 一一、二

## 라디오

第二放送▲午後六時 하모-니카 기타二重奏▲六時二五分 어린이 趣味講演▲七時三〇分 新聞▲六時三〇分 歌曲▲八時 [illegible] ▲八時三〇分 古談▲九時 時事解說 李健赫▲一〇時一〇分 初步國語講座

TRADE MARK

한個한個먹을수록이 상하게도기운이나는 맛난菓子!

一個五錢

京城府南大門通

豊國製菓株式會社謹製

工業案內

洗濯비누一本에三錢式製造法과其他 日用品을누구나能히製造할수잇는速 製法을案內하오니 三錢切手만送付하 면內容說明書를送呈함 京城府長沙町二一九 泰昌工業所

큰고름을 腫物에 手術로도 百藥으로도 낫지안은것을 三仙膏를쓰서보십쇼

三仙膏

三仙膏效力의偉證

延專教授 鄭寅學先生 乳腫

丁來吉先生夫人

朴英愛女史

全義寶先生 項腫

徐相勛先生

李根培先生

以下略(無順)

京城·本舖·鍾路

共生藥業株式會社

電話光化門二四五七番 振替京城二二〇〇番

定價 [illegible]

農村振興의羅針盤殿堂 新時代의寵兒

商標 專賣特許 特許新案 天東式純無水精麥機 登錄

보라公試驗價價를

斯界 全國農具共進會名譽金牌受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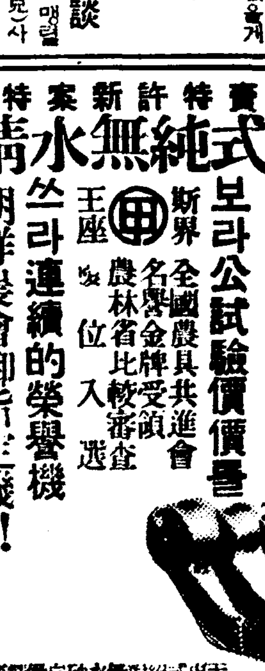
王座 農林省比較審査 一位入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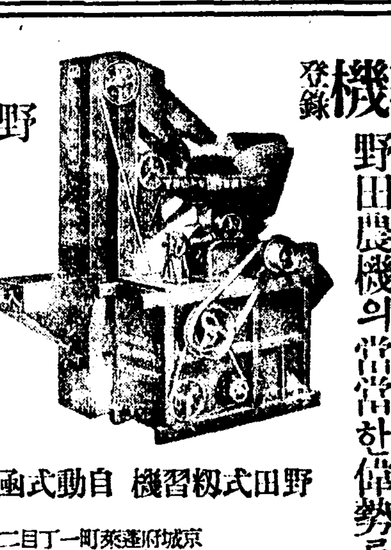
쓰라連續的榮譽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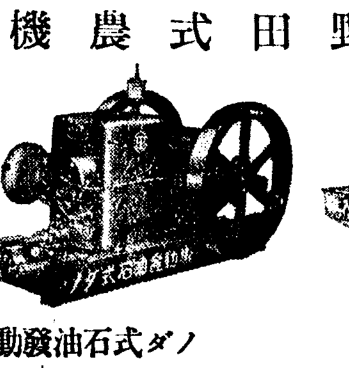
朝鮮農會御指定機!!

非常時局의指導者

野田農機의當當한偉勢를







天東式純無水精麥機本機之圖

特約店募集 型錄進呈

野田式農機

ノダ式石油發動機

野田式籾摺機 自動式函型

野田式의下命은本中央代理店으로

京城府蓬萊町一丁目二七(京城驛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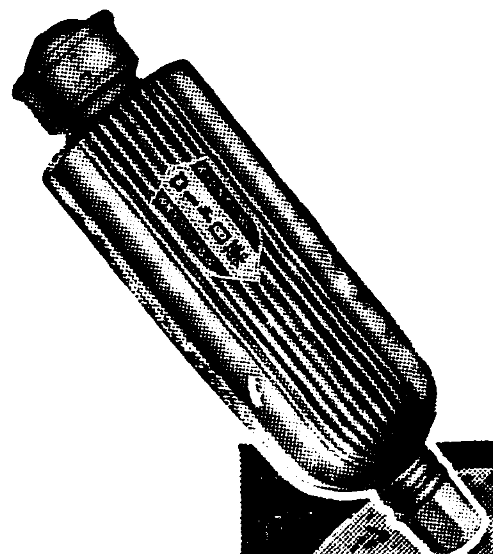
發賣元 東亞商事農具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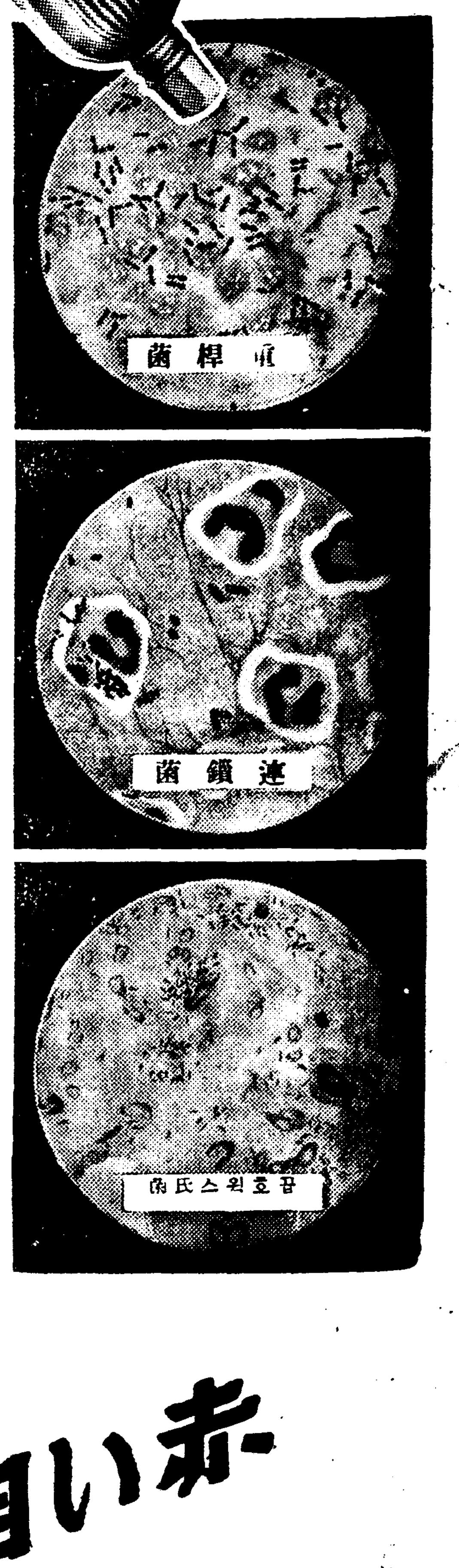
電話本局⑫五四四四番 振替京城二四〇三九番 電略(ト)ハヌ(アト)

國民精神總動員
○神宮과皇居에遙拜를합시다
○힘써慰問袋와慰問狀을보냅시다
○國産品을愛用합시다
○虛費말고貯金합시다

쓰리지안코 아푸지안는

# 로ー도안약





●모락기스아셴펠드氏重桿菌은 慢性結膜炎과共히 眼瞼炎을이르키는特性이잇다 略稱重桿菌

重桿菌

●連鎖菌은 가장危險한菌種의하나 結膜에 흔히 凶惡한僞膜을만들고角膜을破潰하는일도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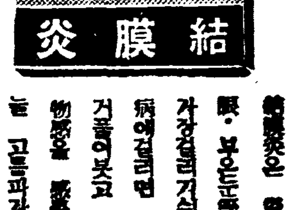
連鎖菌

●꼼호워스氏菌은기늘고긴桿菌으로急性傳染性結膜炎을이르키는것醫學上緊要한病原菌입니다

꼼호워스氏菌

## 赤い目や目に

## 危いッそれは結膜炎の症狀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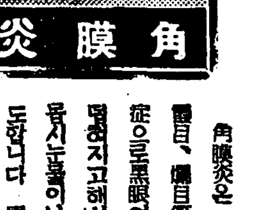


### 結膜炎

結膜炎은 俗稱 흘닌눈 脂眼 赤眼・부은눈等이라고해서眼病中에도 가장걸리기쉬운病의하나입니다 이 病에걸리면 結膜에 充血이되야눈 거풀이붓고 눈곱이나고 눈에 異物感을 感覺하게됩니다 重해지면 눈 고름파자는눈곱이나고視力도減退해집니다。이것을 治療함에는 每朝洗面時에淸水로눈을잘 씻고눈곱을닥거내여서 ロート目藥을一日二三回點眼합니다

ロート目藥은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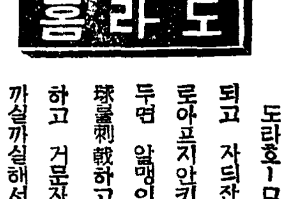
1、殺菌作用으로病原菌을죽이고
2、消炎作用으로炎症을업새고
3、鎭痛作用으로疼痛을업고새
4、收斂作用으로側面、潰瘍面을 收縮해서分泌物을抑制하는等各各그性能이綜合的으로 活動하야 優秀한效果를 나타냅니다。



### 角膜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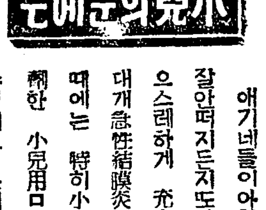
角膜炎은 俗稱삼눈、쑥시는눈、雷目、爛目等이라고하는 黑眼의炎症으로黑眼이 濁해지고 하얀것이 덮혀지고해서 눈이 침침해보이고 몹시눈물이나며 눈갓이 진무르기도합니다 療法은 大體結膜炎과갓습니다。

ロート目藥의優秀한消炎作用은 角膜의炎症에 對해서가장有效합니다。



### 도라홈

도라호ー므은처음結膜에 充血이되고 자디잔알맹이가생기는데 別로아프지안키때문에그대로 내버려두면 알맹이는 점점만허저저 眼球를刺戟하고 눈에異物感을 感覺하고 거문자위가흐릿해지고눈섭이 까실까실해서눈모양을、기실케함은 말할것도업고 重症으로移行해서 대단히어렵게되는일이잇습니다。이眼疾은 輕한때治療하는것이조코、重해지면 오래끌게되므로自然이治療를等閑히하는데 完治될때까지 決코治療를게을리해서는안됩니다。治療는 每朝洗面後一日數回ロート目藥의點眼을勵行하고 이것을 꾸준이繼續할것입니다。ロート目藥의 優秀한作用은 病勢를 잘抑壓하고 頓挫시켜서 그治癒를 速하게합니다。



### 小兒의눈에는

애기네들이아침에눈곱으로 눈이 잘안떠지든지 또갑자기 흰자위가붉으스레하게 充血햇슬경우 그것은 대개急性結膜炎의症狀입니다 그런때에는 特히小兒專用으로 處方調劑한 小兒用ロート目藥을 使用해주십시요 쓰리지안코 압흐지아어서 아주잘듣습니다。

### 【適應症】

結膜炎・角膜炎・도라호ー므
疲勞眼・學校眼炎・眼瞼緣炎
角膜炎・結膜充血・麥粒腫等

俗稱……결리눈・흘닌눈・淚眼・爛目・血目・雷目・雪目・흐린눈・팔는안질・부은눈・다래지

藥價 ◇小瓶 二十錢 ◇大瓶 三十錢 ◇德用 五十錢 ◇小兒用 二十錢
▼全國到處藥店에잇슴

### ◎ロート目藥의點眼容器

第一로 携帶에便利합니다
第二로 使用法이 簡單하고 게다게 캡이잇기때문에衛生的입니다
第三으로新案特許의 自動式임으로 一滴의點眼도엇습니다

大阪 山田安民藥房

# 톱밥으로맨든빵에 동물원코키리고기

## 대전때의독일은이러컬로사랏다

세계대전때에 독일이 얼마나 식량문제로 해서 고심을햇는지 이제 그것을 아는것은 우리에게 여간참고가 되지안흘것입니다。

해를 거듭함에따라 독일은 식량난에빠저 모든 대용식(代用食)을 연구한끗동드디어 동물원의 코키리로부터 새에이르기까지 다잡아먹도록 되엿섯든 것입니다 전쟁전에는 소이천마리 도야지 이천오백마리가 잇섯습니다만 소는 우유와 유제품(乳製品)을 맨들기위해서와 밧갈고 일부리기위해서 팔수잇는대로 잡지안토록 햇습니다만 도야지는제사년째에에가서 사분의일로 주러들고 마럿습니다。말고기는 독일에서 평시에는 먹지안엇든것이지만 원낙 고기에 주리고보니 할수업시 이고기를 맛나게 먹엇습니다 말고기、토끼고기 동물원의 코키리까지 잡아서먹고 말엇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도라보지도안튼 동물의피와 뼈따구가튼것을 적극적으로 리용해서 피는 여러가지의순대요리를 맨들고 빵에너어서 부족한 단백질을 보급하고해서 일년에 일만돈이나되는 단백질을 어덧습니다。

또 증생의 뼈다구는 딱딱해서 먹을수가 업스니까 이것을 염산(鹽酸)으로 어떠케연하게 맨드러서 여러가지 요리를·맨드러먹엇슬으로 즘생의뼈로부터 다량의 영양상 필요한 지방을 어들수잇섯든 것입니다 또 고기의대용으로서즘생의고기 또는 물고기에다 야채와곡식을섞거서맨든혼합육(混合肉)이라는것을 맨드러서 쓰기도하엿고 그리고 또 전쟁육(戰爭肉)이라고해서 자반생선 솟치고기 감자 양념이런것을 조합해서 역시고기대용품을맨드러내기도햇습니다 그러나전쟁이끗날무렵에서는 즘생의고기물고기도일층더 부족하게되어 식물성의 고기대용품을 연구해내게되어 이것을 식물성 영양육(植物性榮養肉)이라고불럿습니다。

이것은 여러가지의 콩종류로 맨드러낸것이며 어것도 나중에가서는 옥수수、감자、보리、소금 이런것을 섞거서맨든 사료 전용식량(戰時用食糧)이라는것이나 타나게되엿습니다。

이것은 『국일의힌』이라고 어룰수잇지어 식량곤난한 그당시에 고기대용품으로 크게 환영바덧든것입니다。

그다음으로 거란、우유、지방의 대용품도 여러가지 나왓고 거란 대용품으로는 난분(卵粉)또는 탈지유(脫脂乳)로모、꼭식의가루를 리용햇고、우유대용품에는 보존할수잇는전조우유、멍어리우유가튼것이 나타낫섯습니다。인공우유로서는 콩、호콩 그밧거나무열매로 맨드러내엇스며 그리고지방(脂肪)은식량요

리용으로 맨드러낸것이지만 ……(?) 빵의원료에 꼭식의가루만 아니라 짚、나무(?)……

빵의원료에 꼭식의가루뿐만아니라 짚、나무등까지 이런것을 가루로 맨드러합께서 거서 맨드럿스며 그나마빵의부피를 크게하기위해서석고、석회 소다가튼것까지섯것스며 빵먹을때 빠터—대신으로는 불켜는 양초와와 세린까지 사용햇다는 것입니다。

# 애기네들농농이

## 영양분잇는걸본위로하고 한두푼들고사먹는건금물

가을이되면 어른들도 구미가 당겨서 작고먹거되는데 자라가는 아히들은 말할것도업시 식욕이 느러갑니다

지금까지는 하로에 빵한개면 군것질로먹고 말든것이 한개를 먹고도 더먹으려고합니다 이때 입맛이 조와질때 양분잇는것으로 적당히 대단히 조흔데 아직우리네가정에선 어머니되시는분들이 애기네들의 간식가튼것을 중요하게 생각지를안는형편입니다 그야경제적으로 넉넉한여유가 엄는말이라이시나 그보다도 문제는 아희들의 간식을 중요하게생각해서 적당하게주도록해야할것입니다

점에서 어머니가 간식할것을 만드러주지못하면 아희들은 머니를 졸라서 한푼두푼 타가지고는 이내 파자가게로 달려가게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조치못한버릇입데 도이습관이 한번부터노코 면 좀처럼고처지기도 어렵고 아이들버릇만 구처버리고맙니다 그러면 어떠케해야 아이들이 제손으로 돈을타려먹는버릇을 고치게할까하는것이 문제입니다

첫째로 상점에서 파는 한푼에 하나자리 과자가튼것은 영양분이라고는 업고 위생에도 해롭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뜰어먹는것은 일체금하는 법을 어머니가 집에서 손수 만드러주든지 사오든지 해서 아이들에게 조흔영양분잇는것을 먹이도록해야 하겟습니다。 파자나피 잡을 사다두고 조금씩 주는것이 모습입니다。

제손으로 돈을가지고나가서 아무리 사먹어도 그것은 몸에리로울것이업습니다。

# 챙겨두기전에

# 먼저 잘빠십시요

## 내년여름에가서는 또새뜻한옷이돼요

여름새옷을벗어서 간수해두어야할때 대년여름까지 꿈다라케두엇다가 그때새것처럼 끄내입자면 빨래를깨끗이 빨어서해두서야한니다

### △물빨래하기▽

때가 호꼽무든것을 그대로비누물에 당거두면 땀과때속에잇는 산과 염분때문에 비누의성능이 감쇄되니까 몬저 애머리빨래를 정성것하십시요 냉수에다 그대로 빠는것도 조쿠요 땀파때가 만히무든 빨래면 재물에 당거서 빠시면되는데 여러시간 당거두시면 더한층 효과가잇습니다 이러케해서 거테잇는 더러움을 빼라버리고서 꼭짭니다 그러나 비단옷은 느러날염려가 잇스니까 꼭짜지는마십시요

### △삶는빨래▽

『냅킨·테이불클러—스』손수건깔개 미명 베천으로된 빨래는 먼저와가티 애머리로 한번깨끄시 빨뒤에 삶는빨래를 하도록 하세요

일반으로 얇은 감나가는천이 의의 보통여름새는 삶는것이제일조습니다 적은 빨래면 대야에 만흔빨래면 솟에너코삶습니다 그리고 그빨래의더럽든정도에따라 비누의분량이 달라질것입니다만 보통으로 물다섯되에 가루비누차사시로 둘되팔흘게 뻑떠서하나 비례로너코는 끄립니다 부글부글끌케되거든 꼿숭기가 날러가지안토록 뚜껑을덥고 불을 졸혓다가 약삽십분가량 지난뒤에 건저내어 빨면때가쉽게 빠집니다 지르면 빠집니다。

만일 삶은빨래하기전나는 천이면 더운물에 비누를부러 거기에 세탁할것을 당거뚜껑을덮허 두엇다가 삼십분동지난뒤에 거저서 빠러도 됩니다。

### △헹구는법▽

다빤뒤에는 맑은물에 서너뎃번 잘헹굽니다 물이탁하면 비누가 배인채 그대로잇는것이니까 물이맑개질때까지 잘구헹구어야합니다。비누기운이 남아잇스면 비치벋상합니다。

### △빗내는데▽

회색띄리 냄새가나고 또천이수하야케보이도록해야합니다。그러는데는 약방에게 『금베루』라는 물감을 조금사서 병에너코 물을채웁니다。그리고는 병마구리에 마지막빨래헹구는물에 한두방울떠러트리고 회저은데다가 빨래를 당거헹구면됩니다。

조흔『마루세루』비누를 물에타서 부드러운솔로 살금살금 문질러빨리야합니다 또 진짜비단빨래는 미지근한 물을 쓰도록할것이고 마지막헹구는 물에는조산(醋酸)을 한두방울떠러트리가지고 흡에대해(?)을 떠러트려가지고 여기에 빨래를 술러헹구어내어 살며시 물끼를 빼고서그늘에너러말립니다。

### △풀메기기▽

때가 당거헹구면됩니다。 남비에 물을끄리고 따른밀분풀(生麩)을목여 젓가락으로 저어가면서 남비물에 천천히탑니다 맑아케되거든 남비를물에서 내려 그물을헝겁으로걸러서습니다 그러데 베천으로된도록 풀을안메기는 편이조흐데 주름을잡아야 할것이면 약간먹입시요

### △그외의주의▽

열분이조견가튼것은 이상과가티 빨면 느러납니다 그러니까

# 밤의속껍질을 용케벗끼는법

밤이만히날때가 되엿습니다。그러데 떡에너튼지 기타다른음식에 쓸려면 일일히 속보미를 창칼노처서쓰는데 그러케하면벗기기도 구찬코 또잘벗겨지지도 안흡니다 이러케해보십시요

겨껍질만 벗겨서 쇠그물을노만든 웅폭한데너코 팔팔끌는물에대고 슬슬북그면 우에보미가 약간식 타는것처럼되거든 곳끄내서 재바르게 보미를벗기면 깨지지도 안코 잘벗겨집니다。그런데 넘우익혀노아서 속에살까지 딱딱해서선안됩니다。

# 왜그리어색합니까?

## 고럽스상궁 / 기운업서보이고!!

# 바르게걷는분이 별로잇지안허요

## 다시배워야할거름바

사람이 거름을 걷는다는것은 자연적인것이지만 이거름을 잘걷고 못것는것은 후천적으로써 생활환경습관으로부터 잘거를수도잇고 잘못거를수도 잇습니다 거름거리를 썩멋지게 또 바르게걷는것은 현대인의매력가온데 하나인데 이것이 의복 시발등으로 팔미암아

서양사람들보다 동양사람이 까마케 떠러진것은 우리가 목도하는바입니다。

잘못것는 거름은 위선안쪽다리로 안으로 당기여것는것 밧쫑다리로 바그로빼드리지게 팔자거름것는것등

(三點)을 연결해서 일직선을 그어야하는데 알기쉽게 하자면 여게그림에보히는바와가티 그러한 각도와 방향으로 것는것이 리상적입니다。

이러케 발꿈치과 아프로 내인데 이러케 거르면 첫재모양이 숭업고 또거름의능률도 나지안습니다。

그러므로 거름을 잘거르려면 되도록 발꿈치과 알호로 나가는방향이 일치해야합니다。이러케일치하게 하려면 발뒤굼치의중앙과 발바닥의 중앙과 엄지발가락과 둘재발가락중간의 삼섬

것는방향이 일치해야 잘걷는거름인데 대체로는 이것이 일치하지 못함뿐아니라 또한가지 어려운것은 일반으로 무릅을 적당히 틀어서 것지못하고 다리를 끄은는것처럼 것는것입니다。

필요이상으로 버쩍들것은 아니로되 적당하게들어야 거름거리가 보기조습니다。

그다엔 무릅판절이 부드럽지못하고 빽빽한것입니다 이것이 빽빽하기때문에 거름폭이 좁아지고 이거름폭이 좁아진다는것은 발이따에부기 바로직전에 무릅이충분히 펴지지못햇다는증거입니다。

거름은 좌우편다리가 서로 지지각(支持脚)과 진동각(振動脚)이되는데 지지각은 긴장해서 전신을 밧치고잇고 진동각은 그와반대로 아주 긴장을풀고 자연히 아프로 부드럽게 나가게되엿습니다。

그러데 거름거리가 부드럽지못하고 빽빽해보히는것은 이진동각이 미처 재자리로 가지못해서 약편쪽다리가 함께 긴장해지는 까닭입니다。

거름거리에 훈련이 업는사람은 대체로 이러케것게되는데 이러케 거르면 어깨가끈하고 잘거러지지안는것은 물론입니다。

또는 거름거리에잇서 가장섭섭되는것은 상체(上體)자세가 바르지못한것인데 허리가 뒤로굽고 웃몸통이가아프로 나오고 턱이또 아프로 나오고 머리가 역시아프로 숙여지는것입니다。바르고 보기조흔거름은 상체는 바르게 허리우에노코가슴은 약간펴고 머리는들고 팔은제절노 어깨에서부터 부드럽게 아프로 흔들니게하는것입니다。

거름거리의 요령은—『바르게또는 부드럽게』

# 요충(蟯虫)도 전염됩니다

## 아들에게 흔한기생충 손과옷을정히해주서요

여러분의 애기들가운데흔흔 올롤그며 밤에잠을잘 때에 제일좃건드리게 구는것입니다。

이것은 직접 뱃속에 발로묻지르는듯한 홍내를 내지는 안습니까 아마 열아이가운데 한두아이는 그럴겁니다。

그것은 요충(蟯虫)이라고 하는 하야코 가느다란 기생충이 뱃속에 드러잇서서 그것이 홍문으로 기여나오는까닭에 홍문이 가려워지는것입니다

이기생충이 잇스면 늘짜증을 이르키며 시경쇠약비혈직장가다루의 원인이되고게임의원한것은 밧잡지다가그 낭 홍문주위를 글거서 손톱자욱이나고 그자욱속으로 균이드러가서 큰헌데가 되는수가잇습니다 더욱나불조흔버릇이 들기쉬운까닭에 이것을속히 곳처주지안흐면안됩니다。

창자속에 기생하는 요충은 밤에잘때 이불을더프면 몸이더워지는까닭에 홍문으로기어나와 홍문근처나 낭신잇는데 알을씨러노코 그알은 세시간만에 부화하야꼿요충으로 변해버립니다。만약 어유중이나 알이 이불이나 옷이나 수건가를데무드면 다른 아이들에게 전염하기쉬우니 주의하지안흐면안됩니다。한번 살펴보아서 홍문이 벌거케 헐도록·글것

거던 될수잇는대로 깨끗한물에 시처 주도록 하십시요 이기생충이 잇스면 어린아이가 보채게되니 모르는어머니는 그냥 어린애버릇이 고약하다고만생각하고잇스나 어린아이가 보채는때는 벌써 기생충이잇고나 하는것을 짐작하고 조사해 보도록 해야 합니다。요사히와가티 더울때는 자연불결하기쉽고 옷울자조가라입피므로 전염도잘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곳 비누물로 시처주며 그당처에수은연고(水銀軟膏)를발러주시요 또한 잠뱅이나 내의 이불홋은 자조가라주며 수건은 절대로 다른아이들과 갓치 쓰도록하지마십시요。

이러케 해도 잘낫지안커든 가정에서 치료하기 곤난하도록 대단한것일것이오니 곳 의사에게 다리고가는것이 조흡니다。그리고 세미가 굴한편가게로 더러오면 못견디게굽니다。

# 셀로판지는 버리지맙시다

식료품 파알 잡화가튼것을싸는『셀로판』지(유리종이)는빛갈업는것 빨갱이、파랭이등 여러가지의 비치잇서 꿈게보입니다。이종이는 펴질진것이니까 노코흔판다던지 만히모앗다가자그마한비구니를 짜도조습니다。유리가 깨젓을때는 빗갈업는『셀로판』지를 좁게 오려서 풀로붓치면 조습니다。

# 밤의 영양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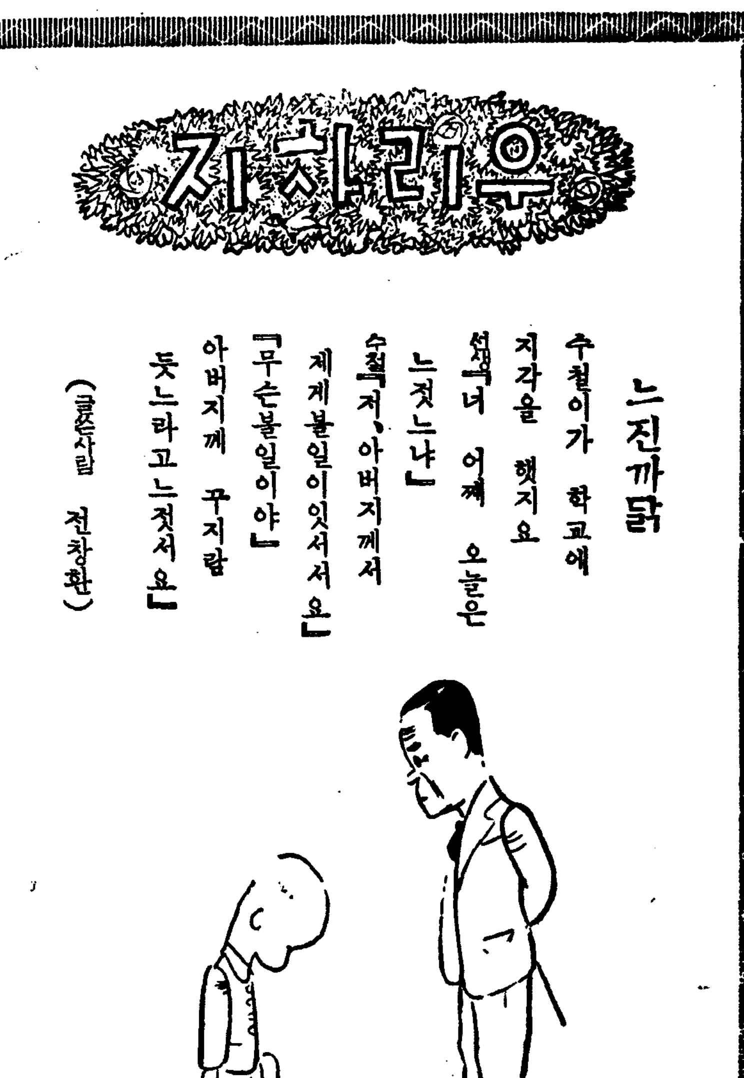
철차저 햇밤이나오게되엿습니다。밤에는 전분질과 당분(포도당、자당)이 만히드러잇서 이것이 밤의맛을도꾸는것입니다。단백질은 호도다 도토리만못하나 그래도 상당히만흔편이며 그질이조습니다。

『비타민·삐』가 드러잇슴으로 밤밥을 지어먹으면『비타민·삐』의보급상 대단히조흘것입니다。

소화는 채소보다도 잘됩니다。그러나 날것은 소화가 잘안되니 주의할필요가 잇습니다。

박가레나가다 도라오던지밥먹을때는 반드시 손을시처 주어서 더러운 손으로 흙문을 긁지못하게 하는것이조습니다。약으로는 수은연고Q、二카카오기름 一、〇의 비례로석거서 그것을흙문에 너허주며『히루마르油』를오부라—드에 싸거나 고깝에 너어서 아침일곡향에 먹이고 저녁때쯤、설사약을먹여서 자조설사를 시키면낫습니다。

# 지차리우



**느진까닭**

수철이가 학교에
지각을 햇지요
선생님께서 어째 오늘은
느젓느냐」
수철이、「저、아버지께서
제게불일이잇서서요」
「무슨불일이야」
아버지께 꾸지람
듯느라고느젓서요」

(글쓴사람 전창환)

長篇小說

# 愚氓【143】

朴 泰 遠 作
洪 祐 伯 畵

세가지일(15)

(마마가 오셧다니、그 마마란 대체 누구란말인고?……)

알수는 업섯스나、그를 마지 구대사가 저처럼 황황한것을 보면、아마、눈치가、뻬빼교인듯시퍼、홍서방도 자리에서 엉거주춤이 일어서려니까、안방에서 목소리가、

「어머니 누나가 오우。큰누나가 왓서。」

그러는 소리가 들린다。

(큰누나라니? 그럼、금순이말인가? 금순이가 마마다?……)

홍서방은 어리둥절하여 미다지 넘어로、지금 마악、「어머니——」하며 안마루로 올라서는 딸의 뒷모양을 바라보앗다。

대체 시골구석에서만 지내온 자기 가튼 사나이로는 이름도 모를 감찌 비단으로 월등 몸을 휘감은것이며 요전번 근동 읍내 따라서 서울로 올려보낼 때까지도 치렁치렁하게 따아내렷던 머리를 아주 맵씨 잇게 쪽진것이며、또 그우에 금비녀에 마주어 귀이개 뒤꼬지 고리장……말끔 금투치가 눈이 부실지경이라 대원님의 은총을 맛고 잇는터이니 응당 그럴것이로되 역시 눈아페 바라보니 홍서방은 잠못 감개가 무량하엿다

안방에서 잠깐동안 모녀와 남매사이에 이야기가 만흔 모양이더니 금순이가 왓슬때 함께 방으로 따라들어갓던 주인마누라가 다시 나와、아랫방미다지 압까지 와서、

『마마께서 아버님 뵙겟다십니다。위로 올려오십쇼。』

한다。홍서방은 그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갓다。

『어서 저 아루쪽으루 가십쇼』

주인 여편네가 권하는대로 아랫목으로 나려가 안기는 안젓스나、딸이 절을 하려는 눈치에 홍서방은 좀 당황하엿다

『온、절은 무슨……』

손을 내 젓는것을 보고 주인 마누라가 빙그레 우스며 말하엿다。

『시집을 가셧서도 따님은 따님이시죠。』

물론 시집을 가도 딸은 딸이다。허지만 그건 여염집 경우세 말이지、금순이는 지금 지극히 귀하신 대원님을 모시고 잇는 몸이 아니냐? 더구나모든 고로들에게『마마』라고 주대를 밧고 잇는터이니、딸이면 서도 이를테면『상전어른』이 아니겟느냐고 짐작하고 …

(딸이 안저서 절을 밧는다니 뒤가 될말이냐?……)

그러나 금순이는 기어코 절을 하고야 말엇다。홍서방은다 시 당황하여 엉덩결에 머리를 굽벅하여 답례를 하고야 말엇다。그모양이 우스워 주인마누라는 입에다 손을대엿스나 몰론 홍서방은 그런것을 깨닷지 못한다。

그러나 그러한 홍서방에게비가 보라구 그러섯다는구료 인제 대원님께서 밤에나 나오실 모양이구……』

『대원님께서 이애더러 먼저나가 보라구 그러섯다는구료 인제 대원님께서는 밤에나 나오실 모양이구……』

밤에나 나오실 모양이라니、온 무엄한 계집이란 아무것도 모르고—、대원님께서 오늘 즉시 우리를 만나주시는게 그게 어떠케 우리를 지극히 생각하서서 그러시는거레 이건 무식해 놔서……、더구나『마마』를보고『이애』가 다 무어야? 온、참……무식중에아낙의 얼골을흘겨 보앗스니까 박게서근동위 소리가 나고、내다보니、가 가득 담어들고들어 온다。

주인 여편네가 그동에 나가 기를 기다리여

『여보!』하고 아낙을 아프로 다가 안즈래서 홍서방은 그귀에다 입을 밧작대고、

『그 말좀 함부루 말어。집이 잇슬때엔 다르다니까。밤낫 여 딸이거니——그러면 쓰나? 마마야 마마。』

정색을하고서 그러케 이러주고 다음에 금순이가

『그래 아버지 이발소는 뉘게다 넘겨주섯나요?』

하고 묻는 말에

『예—』

딸이 어리둥절하여

『아이 아버지두……。저—기 계시건 결상 채경 모두고대루 넘겨주섯나요?』

『예—』

또 딸이러니와 아낙 장씨도 겨테서 보기에 하도 우수워、

『아이、여보、딸 보구 네—네 —하는 사람이 어데 잇소 ?』

핀잔을 주니까 홍서방은 도리혀 심사가 조치 못해서、

『그、배지 못헌 소리 허지두 마우。』

그러케 귓속까지 해도 못알 러드는 아낙을 하마디 꽥 꾸 지젓다。


# 學生美術展覽会

會期 十月 八日부터 十七日까지　場所 本社大講堂

**出品種別**

◇中等部 —師範部·中學部—
東洋畵科
西洋畵科 —鉛筆畫包含—
工藝科 A、彫刻工藝品 B、刺繡·編物

◇初等部
自由畵科
手工科

**褒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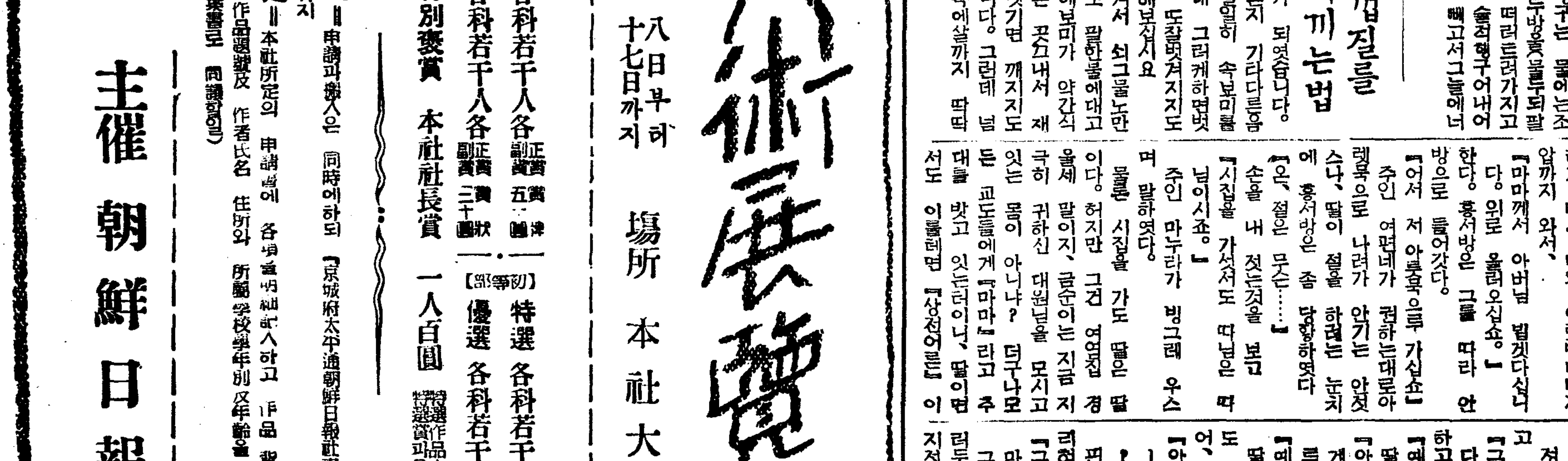
【中等部】特選 各科若干人各 正賞 副賞(賞牌)　優選 各科若干人各 正賞 副賞(賞牌)
【初等部】特選 各科若干人各 正賞 副賞(賞牌)　優選 各科若干人各 正賞 副賞(賞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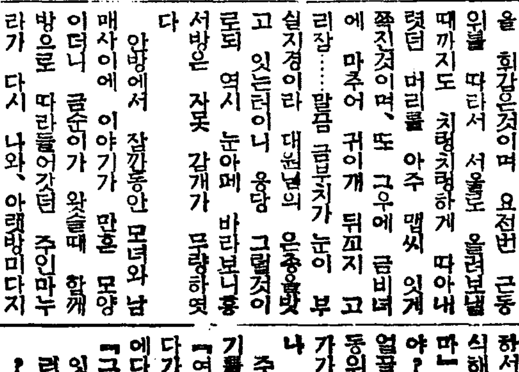
◇特別褒賞 本社社長賞 一人百圓 (特選作品中에서一點을選하야 特選賞과 並하야授與함)

◇申請及搬入 = 申請과搬入은 同時에하되【京城府太平通朝鮮日報社事業部】로 期日은 九月二十七日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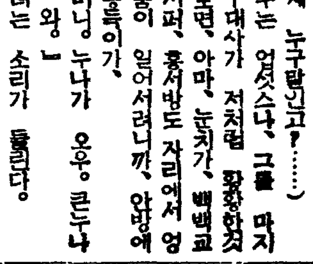
◇出品規定 = 本社所定의 申請書에 各項을明細記入하고 作品 背面에도 申請書에 入한바와가티 作品題號及 作者氏名 住所와 所屬學校學年別及年齡을 明記하야 搬入할것 詳細規定은 葉書로 問議할것

主催 朝鮮日報社




太星莊藥房
早漏防止




强性强精藥
(發育不全) 早漏에百發百中!

本社咸南支社 咸興府大和町三丁目 電話長一一四三番
咸興支局
五老分局
連浦分局
江西分局
東部分局

# 智異山探險記

## 智異山行第五日……(三)

# 細石坪과通天門

⑩ 李殷相

細石坪上의 異石들은 뒤로도 단으로 오르니 언제부터 는 細石坪 山嶺原이다. 바른편으로 바라다보이는 原頭가 어르는바 細石坪인데 길은 왼쪽으로 도라 올라야한다. 사람이 가니 걸이지 길은어는樹林中으로 헤치고간다 어디서 흘러와고엿는지 질벅거리는 泉水를 그대로 밟으며 무릅을 못는 雜草속으로 지나간다.

지금 여기 이高原에는 새소리도업고 즘생도업고 다만 구름과 햇빛과 키작은 마른 나무들과 옥어진풀과 그리고 말업시 行進하는 우리들뿐이오 다름이 어이 도잇다하면 永遠하고 偉大한 寂寞이 高原우에 무거이고 깔렷슬따름이다.

沈默한 哲學이 여기 이高原에 감추엇거만 이를 解悟하는者도업고 解悟하려는者도 업시 永遠한 不可解의 哲學 그대로 이高原에 바람이불고 雜草가 흔들리고 나무둥걸이 썩은것이다.

나무란 나무는 썩고 마르지아니한것이업서 모두가 異角모양으로 넘어진냥 白骨을 내어밀고잇다.

이一帶를 細石平田이라부르는데 「平」은勿論 「坪」의訛誤일것이오 「田」은 「坪」을다시 한번더 誤한것이다. 그러므로 細石坪이라 쓴것이 올흔것이려니와 「細石」이란것은 지금 俗이 「잔돌밧」이라하니 細石은分明히 細石이겟지마는 實際에잇서서 「잔돌」이라고는한명이도 업스니 그原義가자못 疑心스러웁다.

오히려 잔돌代身山淸、咸陽의 ?境이로나가며 키큰 바위들이 서잇슴을 보아 「선돌」의 「선」音이 「細」로誤轉하고 그것이 다시 「잔돌」로 再轉된것이 아닐까 한다. 無等山의 「瑞石」이라는 「瑞」와 同一한解字로보아 一種立石文化의 遺蹟으로도 解釋하여보앗스나 그亦是 危殆한解釋法이기로 그名稱에 對하여서는 疑惑만을 품고지날따름이다

여기가벌써 一六八二。엇마남지아니한 最高峰 「天王」이 저기보인다 頂峰을 바라보며 몃번이고 절을드린다.

細石坪은 제自身이 寂寞한 原이라 제自身의願도 남에게 뒤지는것아니지마는 여기서天王을 正面으로 똑바로 가까이 볼수잇거기에 細石坪의價値가 잇다하겟다

그러나 몸을다시 도리켜千山萬水를 나려다볼때 옳지細石坪의 眞實한값은 다른데잇지안코 天王上峰에 올러나려이 奇觀 壯觀 異觀 偉觀의 智異山을 만들기위하야 그最後의 敬禮를 여기에 한번 表示하얏다가 一番緊命으로 크고위고 벌고기는 온갓偉觀奇觀을 베처내린 그妙氣的인곳에 이곳의 偉大한價値가잇슴을 깨닷겟다.

「天王」의 一切命令을 이細石坪이마라傳하고 「天王」께사뢰는 一切陳情도 이細石坪이 代辦하는곳이라하겟다.

여기서 다시 天王峰을 向하야 左便로 꺽겨내린다. 빠動지안나리는길은 마지막으로 처어오르리는 準備인것이다. 細道의어려움이 얼마나한지 그는우리가 모르거니와 枯木사이로 雜草사이로 허러진石逕으로 山中의 가장難險한길을 만난것이다.

엉겅퀴에 한언덕 다섯걸음에한구비다 한번이 머리위로 오르는가하면 고대 뒤선이발미트로 내가올리는듯하는 微動的인 길이다.

細石坪에서 바라볼때 뛰어오를지하던 天王峰이 도로가까워질수록 보이도안코 멀어만간다.

針葉樹의 叢林속을 자나 길든便에 큰바위가 제대로한峰을 이룬곳으로돌다가 少歇에 다시나려, 마지막을 못이기는 ……뜻이 오른다 中間에 天然의石門이잇서 通天門이라, 蠶頭하엿다.

여기서 絶頂까지 大自然에게 낫지안햇다. 우리의 기쁨은 이제 飽和狀態에 이르렀다. 通天門, 누가 命名하엿는지는 모르나 適當한 이름이라하겟다.

이길로 들어가면 하늘로간다함이다. 天堂으로 간다함이다. 天王의품속으로 간다함이다. 最高의聖壇을두려는 ……으로 간다함이다.

天堂으로 가는길은
좁고險하다 이르더라
天王 樂園이
고대여기 잇다하네
通天門 어려운길도
달게여겨 지나노랑.

天王의 기픈사랑
함부로 어들리구
에덴의 큰幸福을
쉽게야 누릴리구
險阻이 百이오千이라도
넘고넘어 가오리랑.

(寫眞은 天王峰途中)

# 學藝

# 現代朝鮮小說의理念

## ㅡ「로만」改造에對한一作家의覺書ㅡ (五)

金南天

崔載瑞氏가 내의作品傾向의 한面에對하야 시니시즘 乃至는 自嘲를 가지고 말하얏고 林和氏가 李箱의文學과를 함께合치서 나를

「內」省心理의 文學이라 指摘한데對하야 人物創造라는 以上論述의觀點에서 어를 再三吟味해본다면 兩氏의 이가름 指摘의裡面에는 知識人 小市民의 人物創造에잇서서 내가 事實上으로 失敗햇다는것을 말하고잇는것이라고 생각할수가 잇다 事實나는 良心的人間이랄나 肉體的으로나 가장 近接한 知識人 思想靑年이라는 部類가운데서 無叢書나 無審査書부처서 차저내이는것을 輕蔑 乃至 忌避하얏고 이것은 그대로 暖昧한 自己告發의 實踐이라는 一系列의作品을 나로하야금 가지게 하얏는데 이러케하야서 自己分裂이 超克된 하나의 渾然한性格을 잡을려는 努力이 드디어 시니칼한 內省心理에 始終하고 말엇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이리하야 知識人과 小市民의 가운데서 이를 잡어보기에 失敗한 나에게는 다른 또한系列의 作品을 보게되엿다. 少年을 取扱한作品 (「少年行」「남매」「누나의事件」「무자리」等이 이것이다. 現代社會에서 아직도

「統」一性을 喪失하지안코, 自己分裂을 經過하지 안흔人物이 잇다면, 그것은 어린아이나 少年이라고 생각해본것이다. 내가 取扱하는 少年이 早熟하다는것은 李源朝氏가 指摘해준바이다. 그러나 실상 내게必要한것은 少年이나,童話의世界가 아니엇고, 오직 分裂을 經過치 안흔 生氣潑剌한 타입만이 所用되엿다는 創作心理를 收賣하면 이러한點이 또한明白히 질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以上의내의作品이 무엇을 結果하얏는가는 諸氏의 어미明知하는바이다ㅡ

支離한感이 업지안엇스나, 性格的典型의創造라는 部面을通하야 우리作家들이 經驗하고잇는 現狀은 대충 以上과갓다. 勿論人物創造만을 들어서 小說의全體를 云謂할수는업다. 그러나 以上의 分析을 갖고도 우리小說文學이 어떠한 方面으로 새로운世界를 發見하면서

「漸」次「로만」의 改造를 피하여야 할것인지는 寒心하게나마 생각할수 잇슬가한다.

偶先 以上의結論으로써 우리가 가질수잇는것은 小說作의喪失이다。小說作이란 果然 무엇을말함이나 이것을 說明할려면 長島을 要할것이 업스나 그것은「로만」發生의 史的考察로보아서 科學的 合理的精神에依한 個와社會의矛盾의 文學的表象이라고 말할수가 잇다고하자。이러케본다면 人物과 情況의創造에잇서서 作家의觀念이나 圖式이 現實을 歪曲되게 裁斷하는것을 偶先 極力으로 排擊하여야 할것이다. 思想이나 作家의 安逸한主觀을 作中人物우에 덧부처서 그의行動이나 思惟를拘束하는것이 아니라 思想ㅡ現實에의 知的關心과分析을 文學的表現에까지 이르게 하기위하야 生氣潑剌한 作中人物의行動에서 明確한 形象性을 確保하는것이 必要하야질것이다。

그러나 이러케만 말한다면論述의 抽象性은 避할길이 업다 왜냐하면

「原」則보다 지금의 우리에게 必要한것은 具體的인 提案이기때문이다。이제 내가 以上의論述을 거처서 「로만」改造의 端初的인出發까지를 合치서 생각할수잇는 方向으로 무엇보다 風俗槪念의 再認識과 家族史와 年代記에의 길을 提示하는것은 가장 適切한 場所일가생각한다. 다시말하면 風俗이라는 槪念을 文學的觀念으로써 定着시키고 그것을 들고 家族史로들어가되 그가운데 年代記를 顯現식혀 보자는 것이것.

그러면 風俗이란 우선 무엇이냐. 일즉이 나는「一身上의眞理와모랄」이란 拙稿에서 다음과가티 말해둔적이잇다.

ㅡ「風俗이란 社會的習慣과密接한 關係를 갖고있다. 그러고 社會的習慣習俗은 社會의生産機構에 基한 人間生活의 各種樣式에依하야 終局的으로 決定을 본다. 이리하야 이것은

「二」方으로〃制度〃를말하는同時에 他方으론〃制度의習得感〃을 意味한다 風俗은 生産關係의 樣式에까지 顯現되는 一種의制度 (例컨대家庭制度)를 말하는 同時에 다시 그制度內에서 培養된 人間의意識인 制度習得感(例컨대 家族的感情、家族的倫理意識) 까지를指稱한다。」ㅡ

그러므로 習俗은 社會의基本的機構의하나의 所産이오 하나의結論이다 社會機構의 本質이 風俗에이르러서 端的인 表面現像을 엇는것이기때문이다. (續)

# 朝鮮閨秀文學考

## ◇…黃眞伊의現代的研究…◇

⑫ 申龜鉉

동짓달 기나긴밤을 한허리를 들에내여
春風이불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룬님 오신날밤이여드란 구비구비펴리라.

참으로 人情味가 만혼 노래다. 人情의 自然의 發露가 아니고는 이것과가티 內容으로나 形式으로나 高雅한것은 創作하기 어렵다. 最近 漢詩壇의 惡習이었든 柔曲申緯는 이歌詞를 漢譯하얏다

截取冬之夜半强
春風被裏屈幡藏
燈明酒暖郞來夕
曲曲舖成折折長

다음 이노래를 絶妙好辭라 評한것은 참으로 適切하다고 볼수잇다.

男女間에 戀情을 노래한것이 한둘이 아니겟마는 이노래와가티 洒逸하고 高雅한 手法으로 그情操를 曲致하게 한것은 볼수업섯다. 娶하거대 情이라는것은 흐르기도쉬웁고기도 쉬운것이다. 지나치게 흐르면 淫하고 구러바리면 野하고 碎한것이다 우리가 이詩를通하야 볼때의 湖水와가튼心境을 가질수잇는것은 다름이아니라 아름다운 情이 如實히表現되엇기 때문이다.

우리 人生에 잇서서는 冷靜한 理智와豐富한 人情이 만흔 사람일수록 사람들에게 바람을 ……

까지잇읍저ㅡ 가지고 대하것만은 사람뿐은 그를 울려준다.

내언제 信이업서 님을 언제 속엿관대
月沈三更에 온뜻이젼혀업네
秋風에 지는닙소리 낸들어이하리

이와가티 그는 離擇男兒에게 바람을 바더다. 그러나 普通女性에게 볼수잇는일도 姑捨하고 綠錄하는일도 업섯다. 도리키어 人生을 蔑視하고 自己自身을 反省하야보앗다. 참으로世上에는 自己가 생각하고잇는바와가튼 사람은 업섯다. 모두들 利慾과 名譽에 陶醉하야 갈팡질팡 官途에 헤매고잇섯다. 秦安이 그들의 生活의 모토이엇다.

이와가티 混濁한中에서 人傑을 기다린다는것은 眞伊로서는 不可能한일이다.

山은 옛山이로되 물은 옛물안이로다
晝夜에 흘으니 옛물이 잇슬소냐
人傑도 물과갓도다 가고안이오노라

이詩는 우에서 말한바와가튼意味에 잇서서 當時 時代思潮를 率直히 表現한 무게잇는 作品이다. 結局 그는 單純한 抒情詩人뿐아니라 人生詩人으로도 볼수잇다. 西浦金萬重이『西浦漫筆』卷之下 黃眞條에서 松都에 人傑이 적다는것을 推測하야 大興衆城之後, 山窟獨龍去 水灌激洪澹 不能直顚, 地靈之與人傑相關如此, 眞眞知言也哉. 라한것은 滋味잇는 說話이다

靑山은 내뜻이오 綠水는 임의정이
綠水흘러간들 靑山이야 變할손가
綠水도 靑山을 못니저 우러예어가는고나.

이時에서 모도 바다가티 그는 至虛한 生活 意義업난 醜態、虛僞인形式, 그中에서 亂舞를하는 俊傑와 歡樂이 充滿한 不純不當한 人間生活에서 自國하야갈 眞理를 體得하얏다. 그眞理는 卽 및을」이엇다.

## (秋)(日)(詞)(藻)……(一)

# 거울

崔貞熙

벼개에서 머리를드니 房안이 왼통 쏘특거리고 머리가쇠뭉치에 마진듯 띵하다. 눈은들속ㅡ저 기픈데서 잡아당기는것갓고 안개낀것처럼 아피 뿌여타.

텡기는눈을 멧번 껌벅거려보다가 나는 허청거름으로 거울아페 가섯다.

서리마즌 호박꽃가티 시들고 노ㅡ라얼골 이내 맥이 탁풀렷다. 언제나 그러치만 나는 못되진 내얼골을 發見하는때는 으레 손끗까지 매시시해지는 것이다. 이래서 나는 그날의 豫한約束이나 풀린을 어그러트리는일까지 조죵잇다.

이러고보면 거울을 보지말어야 할것이로되 거울을 봐야사는 서글픈 버릇을 이제나는어쩌는수업다.

그러지안어도 어릴적부터 거울보기를 조아해서

『조년은 똑초다리가튼 눈으로 밤낫 거울만 디레다보니』하고 외할머니가 혀까지 쯧쯧차며꾸짓든일이 아직기억되지만 할머니가 초리가튼눈이라 한것은그때아마내눈이 몹시 또록 또록햇던것을 말슴하신것이아니엿던가 解釋된다.

하나 지금 내눈은 도모지조라리갓지 못하고 거울속의 파리한얼골을 發見하고 슬픈表情을 지을밧게 모르는눈이다.

머리를 언고 끝모를 싸고벼개를 업고 제법 어른이되어가는것가튼에 숨거워서 거울아페가 새시처럼 양전해도보고 어머니처럼 慈愛롭게도보고 방실방실 까닭업시 우서도보던일이면ㅣ엣날도 아니건만 언느듯에나는 거울속에 시들엇다.

『太古적부터 거울이 업섯드면!』

이러케생각하고 나는한번 눈을 껌벅거려보앗다. 머리는 여전히 무겁고 눈은 점점더 꿀어디레가는듯햇다. 대체 내몸속엔 무엇이 들어안젓는고。밤을 무사히 지내지못한 아침이면 어내 이모양새로 끝치가 들쑤시고 눈을 섞자씨이나 끌어드려가니ㅡ내를 平靜한 한밤이 실허서 그러랴.

初저녁엔 東窓門에 비치던달이 한밤중을 무러든ㅡ그때 두時를 첫스니까 정말 잠을자야할 한밤중이여서 나는 자야겟다고 이러케 마음먹으면서도ㅡ이번엔 알門이 東窓門보다 점점더 밝어지고 거기도 바람이 우수수 불치, 귀뜨람이가 울지, 가끔이나 벼든내神經을이매 재가끔 대가리를 들고 이러나는데는 견대나는 재주가업섯다.

쓸데업는생각ㅡ심지어 어느때 車掌에게 하대밧던 그런고가엽은 영감님ㅡ 그영감님은 절어서부터 고생한 자죽이 쭈그러진 박가튼 얼골과 부방맹이진 옐손까락이 이애기하드구만 웨아직 그리캐 가난하기만 할까 이런생각과

거리에서 맛단 처녀풀색가 시집온지석경과

사랑이란 말을누가먼저 할슬 알엇슬까하는 궁금증과

'통채로 빨어넘 쨍내등이 바람에 날리는 요란한 소리에잡을못자고 우는女囚들이 사는 監獄까지 생각해보앗다ㅡ그래기로서니 이다지 큰罪를 줄거야 뭐람.

『달이밝지요?』

『여긴 달이세개가 뜨는걸요!』

『그러밤에 선생님은 뭘생각하세요』

『그보다 더조흔것이 잇거니하고자버리지요』

나도 그先生님과가티 더조흔것이잇거니하고 자버리자고 얼마를 애썻던가ㅡ내게 잠을주소서

ㅡ愛人에게 傳說을 들여준든이도『오스시』 집영감생이도 부엉이까지도 잠이들엇을 밤이아님니까

나는 문창에 달빗과 귀뜨람이 소리를 통 모르는체 이러케 간절히 빌엇는데도 잠의神이 내게잠을 안주는일을 탓하면서 또한번 거울속의 내얼골을 디레다보앗다

아모리뵈야 파리한얼골과 쇠잔한瞳孔이다 초리갓다던 눈은 어느틈에 이러케 變햇는고 야진」

「엄마! 山에 안가?」

「응 그래 山에? 참 山에가야지」

나는 그제야 山에 가는것을 이저버린것을 알고 아이아메 당황햇다.

醫師가 내健康에 登山이 조타고 勸한後로 그동안종종 登山을 實行해보기도 잇섯스나는 오래 繼續하지는 못하엿다 가을은 마음이 散亂해서, 겨울은추워서, 봄은 노곤해서, 여름은더워서 것이다. 그러다가 맷칠前부터 健康이 더조치못한 까닭에 다시 이번만은 實行하자는 마음에서 어느날 아츰 나는아이와 이런約束을 햇다

『엄마인제부터 아츰마다 山에 갈테야 너두 가지?』

『왜 갓다와서 가지 네가 가잘테야 넘어가 가지 응』

『유치원엔 안가구?』

『엄마 山에안가면 더아퍼 엄마가안가거든 의조야 너 업마웨 山에안가냐고 그래 응?』

『그래』

『엄마의조발이면다ㅡ드롤테야』

어린뒤에 맹세은ㅡ어제아츰까지는 아이와의 約束을 흠흉히 履行해는것이다 그러나 오늘아츰거울과마조섯는사이에그約束을이저버리고 말엇다.

『엄마 웨 울퀴구그래?』

아이는 거울과 마조섯든 내얼골을 한참디레다보드니 이러케 못는것이다

『울긴! 엄만, 지금 아퍼서 그래』

『그럼 山에 가야진』

『아퍼서 그러대두』

『아프니까 가야잔어?』

나는 때 대구할말이 업서서 門을 열고 허청거리는 거름으로 마당에 나왓다.

나날이 살이 울엇다ㅡ前엔 뀌며보일듯 …… 드니.

# 情熱과知性

## ∞知性問題의새側面∞

⑤ 金午星

둘재, 그러데 論理的인것은 一般的인것, 普遍的인것을 意味한다. 論理的 批判은 特殊的인것 個別的인것을, 一般性、普遍性에 依하야 批判하는것을 意味하는다 그러나 여기서 注意할것은論理的 批判에 特殊性、個別性을 全然 無視함은 아니라는것이다. 論理的 批判은 特殊性、別性을 承認하되, 그것을 一般性 普遍性에 依하야 評價하며 檢討함을 일음이다. 참으로의 特殊的인것, 個性的인것은 그것이 特殊性個性을 갓고잇는 同時에 또한 一般性 普遍性을 가진것이어아니면 안된다. 一般性 普遍性을 가지지못한 特殊的인것 個性的인것은 眞正한意味의 感覺이나 直觀 情熱에 屬한것이다. 그러므로 感覺的 直觀的 情熱的인것을 一般的 普遍性에까지 끄러올리는것이 知性의 일인것이다 우리가 經驗과 常識을 超越하야 知識을 擴大 深化해가는것은 全혀 知性의 힘이다. 知性은 單히 特殊的 個別的인것을 一般性 普遍性에 依하야 檢討하며 評價할뿐아니라 經驗의 바깥서 한상 새로운 世界를 開拓하고 잇는것이다. 그러므로 直觀이나 情熱은 知性이 업시 自己를 深化 實現할수업는것이다.

最近 國民的인것이 强하 主張되고잇다. 이것은 勿論非合理主義 또는 地方的情熱을 基礎로한것이다 그러나 國民的인것이 정말完全히 主張되려면 非合理性과 地方的 情熱을 超來하지 안으면안된다 우리는 文化의特殊性 個性을 認定하지 안으면 안된다 따라서 知性도 어느意味의 個性을 가진다 文化가特殊性을 가지과 가티 知性도特性을 아니가질수업다 獨逸人의 知性과 英國人의 知性은 서로 各異한 特性을 갓고잇다 그러나 文化 또는 知性이 가지는 特殊性 個性은 그것이 한개의 色調에 지내지 안는다 이러한 特殊性 個性때문에 文化또는知性의 一般性 普遍性이 無視되지안는다 知性은 個性을 갓는 同時에 一般性을 가지고 잇다 그러므로 國民主義的인것이 참으로의 存在價値를 獲得하려면 그것은 非合理主義와 地方的情熱을 버리고 知性과 結合하지 안흐면 안된다 그리하야 國民的인 同時에 世界的인것이 되지안흐면안된다. 우리는 國民의 一員이다。同時에 또한 世界의 一員이다。그러므로 우리들의 論理는 國民的인同時에 世界的인것이 아니면안된다。知性은 언제나 特殊的 個性的인것을 一般的 普遍的인것에까지 끄러올리는 能力이다. 知性은 一般性, 普遍性과 合致될수업는 特殊的 個別的인것은 언제나 克服하려는 用意를 갓고 잇는것이다.

셋재 知性은 良識的인것이아니면 안된다. 單히 一般性에依한 論理的 判斷力이 아니라, 그論理的 判斷이 良識에 依하야 審判되는것을 우리는 知性이라고 할수있다. 良識은 識別力, 批判力을 일음이나, 單히知的인것이 아니고 直觀的인것을 基礎로한 識別力, 批判力인것이다. 知的判斷이 直觀的인것과結合되는대서 良識이 일너진다.

사람들은 知性問題를 論할때에는 흔히 知性과 直觀을 分離시킨다. 그러나 우리는 그直觀가운대知的論理가 包含되여 잇스며知性가운대 直觀的인것이 움직이고 잇슴을 看過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말하는 直觀은 哲學上의 直觀主義的인 直觀이아니라 일은바 世界直觀 즉 世界觀을 일음이라 그 어느時代를 代表하는 世界觀은 그것이 哲學者들의 知的 細工에서 되여지는것이 아니고 먼저 그時代의 主人公들의 生活態度와 歎智인 直觀에서 생겨지는것이다 世界觀은 말하자면 直觀과 知性의 結合에서 생겨지는것이라 할수잇다 이러한 世界直觀 즉 世界觀을 떠나 知性的 判斷은 無意味한것이다 世界觀的인 知性 이것이 良識인것이다 知性은 單히 一般性에 依한 論理的 批判이 아니라 또한 良識에 依한 批判力이 아니면 안되는것이다 『知性의 時代的 性格』은 이러한 良識에 依하야 일너지는것이다 知性이 世界觀的인 知性, 卽良識이기때문에 知性은 항상 그 時代에 團結하고 잇스며 그러므로 서 時代的인 性格을 갓고잇는것이다。

# 新刊紹介

◆綠旗 九月號 發行所 京城府蓬萊町三丁目四七의一 大同出版社 振替京城一〇二一九番 定價二十錢

◆女流文人 十月號 發行所 京城府永登浦町五四六ノ六 半島文學社 振替京城二七四五一番 定價二十錢

◆女性 十月號 主要目次 敎育의 根本問題 李勳求 石外諸氏 物價統制와 生活對策 李康善 故鄕에두고온어머니 朴本 李泰男 故鄕에두고온이야기 金晉燮外文壇諸氏 내동무公開狀 宋今英 李孝石 白信愛 鄭飛英 論 小說 大湯地아주머니 金東仁 世紀의 花紋 金南天 等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定價二十錢 振替口座京城五八七八

◆東亞經濟新聞 第二一九號 發行所 京城府旭町八十七番 東亞經濟新聞社 振替京城七四四一番 定價十錢

## 新人短篇

# 夜寒記 (十一)

許俊 作
崔根培 畵

은실이어머니는 날이라는이가 아니하면 아니울리할 사람이올을알고 또 그리하는것이 부자연스러울것도 업슬듯해서 구지 권할 생각을 그만두고 자기도 방에서 방석과 반짓고리를 들고나와 방석은 마루끄테 걸처안젓는 날에게 권하고 자기는 반짓고리에서 손안에드는 주머니깜하나를 들고안젓다

『얼마만이세요 그동안도 안녕하세요』

하니 은근하게 인사하고 처보아 만히도 초췌한 날의얼굴을 잠간잠간 몰래보는 순덕이엿다 그리고는 그 작구 상기해오는얼골은 들지아니하며 흔잣말처럼

『그새 만히 변하섯서요』

하엿다 아마 밝은대로 말하면 • 신색시 몹시 그릇되여보인다고나할 뒷말은 다하지아니하는것이다

『네 어떠케 변하지아니할수가잇습니까』

당연한대답으로 날은 이러케 응하엿는데 하고나서 생각하니 이 한마디말이 혹시나 이변든녀인에게 감상적(感傷的)인 인상올주어 지나간 자기의 반가운생각이가는대로 가다가 상심하는 곳에 끄치고말것이 아니되여

『참 오래간만이올습니다 오늘이 은실이 생일날이라지요 민선생은 어디 가셧습니까』

하고 어째든 생각나는대로 만히 씨브리여 압서한말에 먹을뿡어 노치아할수업섯다

『애아버지 말슴이지요 이어디 근처에 가게시겟지오 지금 은실이를 그래서 보냇습니다』

부인은 빨리 말머리가돌아가는 중단(中斷)되는생각으로 이러케 대답을하고 또 날이 잠자코잇는것을 보앗다

『그녀이 아버지가 집에 게시다고 거짓말슴을 디렷답지오 선생님이 아니오시겟다고하셔서서』

『네에』

하고 날도 우스며

『오늘 저는 삼천에가던길입니다 거기 제친구로 한분잇는 이가잇서서 가서보구 올려고 나서던길인데 오다가 은실이를 맛낫습지오』

『네 글세 그리셧다구요』

『그래 너무 오래 만나지도못햇던 은실이오 또 오정에 무슨일이 잇서서 가는길이엇가태서 처음에는 맛나지안흘려고피해섯지오』

하고나서 날은 한참이나 말이 메히는것을 늣끼엿는데 이러케만 그때 자기 마음을 설명하자니까 그는 속엣것이 펄리는것을 께닷지 안흘수업섯다 그리고 그러케만하고 마는것은 자기는 아모렇게 생각해주어도 조혼사람이나 그어머니되는이에게는 아무말한 못할것가태서

「너무 웃을 막이고나와서 루주하고 불나치 업는것도 가태서요』

하고 그는 마음아니한말이기도하고 정말이기도한 실토의한부분을 하고말엇다

『원 별말슴을 다하세요 그런말슴을 웨하십니까 선생님이 어제오늘 아신분이세요』

하며 부인은 생각하니 작구 눈물겨워지는걸을 어찌할수업는것가텃다 그것을 날도 짐작하엿다

『그래 피해서 길옆꺼거 작구 돌옥잇는데로 흘어가다가 은실이가 지나처가나,안가나 돌아서보니까 제가 꺽거흘어오든길옥에서서 그냥 가지안코 이쪽만 건너다보고잇는겁니다

「그래 아모리 피한대야 저처음생각한것과는 달르게되여가는것을보고 가기를멈추고 돌오 돌아왓습니다 어듸 밟혀이잡혀서 가겟드라구요』

하며 날은거기 아니나오는후슴을 집어너흐면서

『그래 은실이 생일날인줄도알고 제처를 데리려가는길이올도 아렷습니다』

하엿다

『네 그러세요 그러지안허도갓까그것이 선생님모시고 들어오면서 벌서 그말슴을 제한테 다 속삭거리고 나갓답니다

그러커구 돌아오시더니 아마 아즈머니는 못오시리라고 하시더란말과 왜못오시느냐 꼭 어머니가 모시고 오라고햇다고하니 또한참 생각하시다가 집어부여서 못올게리고하시더란말슴도요 그러나 그녀생각에는 그것이아저씨의거짓핑켄것도갓고 아닌것도가태서 아니면아저씨나 모시고오랭으로 가치갓다가 가시자고하니까 그럼 아버지도보히켜 가지가려니와 거기서 기대릴터이니 혼자 단녀나오라고하시더란말슴이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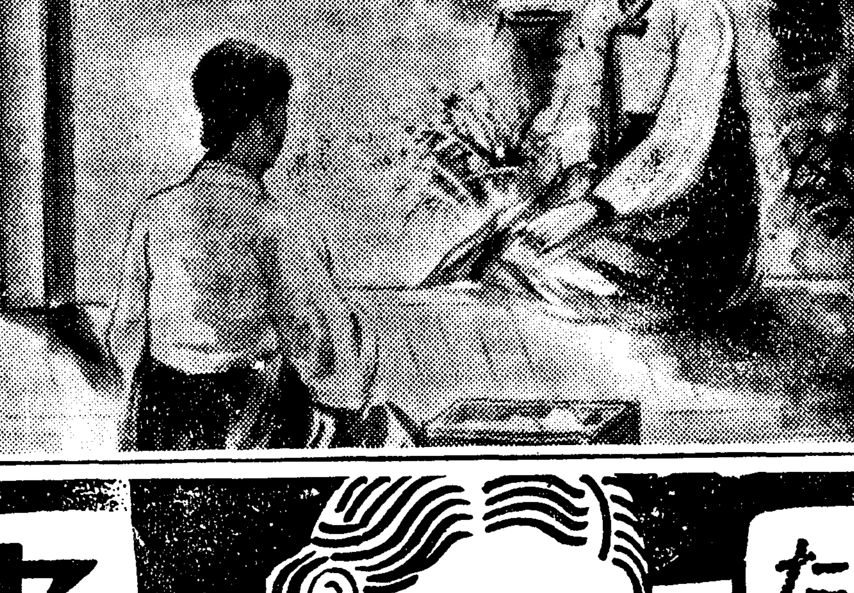
그래 그녀이 외 선생이 그러케 피하여 들어가시느냐고 뭇지는아니한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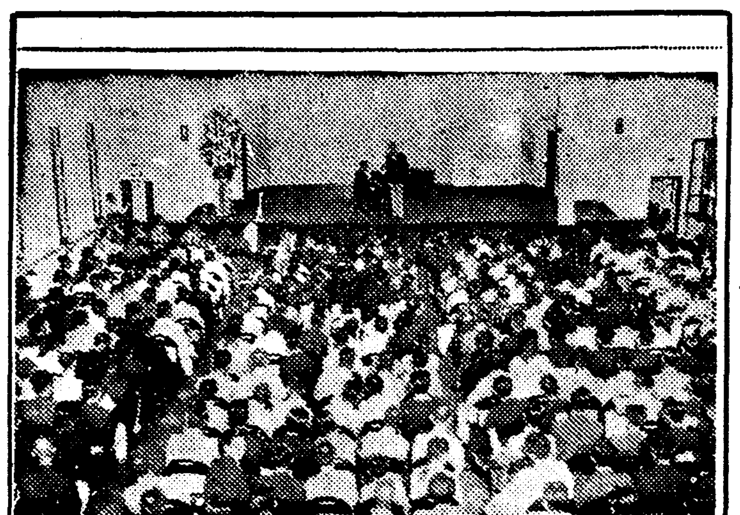
『외 안물어요 뭇지만 무엇이라고해야 올흘런지몰라서 아모말도 못하고마럿습니다』

날은 이러구는 잠잠하였다 그리고 그러다가는 얼마든지 잠잠하게되고말것만가태서 부인은

『어쨋든 오늘 선생님 잘와주섯서요 그것이 허자는대로잘해주셧서요』

하엿다 그리고는 자기도이즌듯이 간호한숨을 옷깃에 내쉬는것이데 그처럼 나종으로맥치는 그한마디말에는 은연한 탄식이 숨어잇는것을 날은 직각하엿다



第三回 全朝鮮男女音樂콩쿨

樂壇登龍門

會期切迫!

決選公開 九月廿九日午後七時 於 府民館大講堂

『豫選』 九月二十六日ㅡ九月二十七日 (非公開)

『褒賞』 一等一人 二百圓、二等若干人 各五十圓、特別社長賞 壹百圓

審査委員 金永煥、洪蘭坡、玄濟明、桂貞植、金元福、鄭勳謨、朴泰俊、李寅善、金載勳

【聲 樂】 (1)Der Wanderer (放浪者)=슈벨트 (2)Ave Maria(아베·마리아)=슈벨트

【피아노】 Impromptu (卽興曲) No. 4 (作曲九〇)=슈벨트

【바이올린】 Concerto (協奏曲) No. 6 (B Flat) 1樂章=로ー데

主催 朝鮮日報社



무좀과 버짐에

強한殺菌力!

アスタ는皮下의深部까지숨여드러黴菌을殺滅하고가려움과分泌을업새고患部를말려서

쓰리잔코ㅡ아푸잔코

爽快하게治癒를速하게함

特히本劑는世界的으로定評이잇는主劑에浸達、殺菌力을強化한良劑로서, 무좀, 버짐을비롯하야, 땀띄, 옴낭습진等에, 特히잘드릅니다

皮膚病에

アスター

아스다

△主効 버짐 대버독 쇠절 濕疹 음남 백좀 무레 진무른 옴낭습진

價 0.35 0.50 1.00

大阪 東京 丹平商會

各地藥店에이소

# 肥料商半減이나 業者經營有利

## 農會、金組의取扱量決定되어 二十五萬瓲確保實現

今肥料年度의 農會 金組硫安配給數量은
農會 十五萬瓲
內譯
配合原料 十四萬一千瓲
單肥 四千瓲
金組 四萬瓲
으로 決定하엿스므로 今年의肥料商取扱量은 消費總量을 四十五萬瓲으로하면 二十六萬瓲、四十三萬瓲으로 하여도二十四萬瓲이므로 前年에 比하야 一三萬瓲의 增加로되어 業者의 希望이든 二十五萬瓲確保는 實現되엿는데
一、今年은 配給買時別加算四錢이 認定된것
一、全朝鮮肥料商、八千店을 四千店으로 整備하엿스므로 一店當의 取扱量이 만허진것
等으로 肥料商은 前年에 比하야 有利하게 되엿다한다

◆出荷
內地向出荷 一、〇四〇、〇〇〇
同自家消費 一五〇、〇〇〇
朝鮮移出 三〇、〇〇〇
臺灣移出 三三、〇〇〇
計 一、三七〇、〇〇〇
差引持越 六〇、〇〇〇

即 次年度에의 持越은 八萬三千瓲으로 出荷豫定은 前年度實績의 七分三厘增에 根據를둔것이다 또本年八月以降十一月까지의 配給計畫은如左하다

◆供給
八月一日持越高 八三、〇〇〇
內地品製造 四四〇、〇〇〇
同副產品 一六、〇〇〇
滿化品輸入 四八、〇〇〇
計 五八七、〇〇〇

◆出荷
內地向出荷 三九四、〇〇〇
同自家消費 六〇、〇〇〇
朝鮮移出 八〇、〇〇〇
臺灣移出 三三、〇〇〇
計 五六七、〇〇〇
差引一月에의持越 二〇、〇〇〇

## 內地前年度 肥料輸入高

【東京】內地의前年度(自昨年八月至本年七月)의 肥料輸入高는合計 一百十萬六百六十三瓲、一億五千七百九十八萬圓이엇는데 內譯은如左하다

| | 數量(瓲) | 價格(千圓) |
|---|---|---|
| 硝酸曹達 | 三三〇、四〇 | 二六、六八 |
| 硫酸加里 | 一三〇、三〇 | 六、七〇 |
| 鹽化加里 | 七四、一〇〇 | 二、二六 |
| 硫安 | 二〇一、九〇〇 | 三一、五四 |
| 燐鑛石 | 八〇八、三〇〇 | 三、六五 |
| 獸骨 | 一〇、九〇〇 | 一、三〇 |
| 骨粉 | 一六、八〇〇 | 一、五〇 |
| 大豆粕 | 五三三、二〇〇 | 三三、四四 |
| 棉實粕 | 一二、五三五 | 一、〇〇 |

## 肥料統制協議

農林局、殖產局共同主催에依한 臨時肥料統制要綱改正에關한 協議會는 從來의 朝鮮販賣區域에 順하야 尾崎技師列席下에 左記日程으로 開催되리라한다

| 日程 | 開催地 |
|---|---|
| 第一區 二十三日 | 釜山 |
| 第二區 二十一日 | 裡里 |
| 第三區 二十日 | 京城 |
| 第四區 二十六日 | 平壤 |
| 第五區 二十八日 | 元山 |

## 硫安會社 出荷計畫

【東京】日本硫安會社에서는 六日의重役會에서 本年度配給計畫에對하야 協議하엿는데 出荷配給計畫은 如左하다 (單位瓲)

◆供給
八月一日持越高 六六、〇〇〇
內地硫安 一七、〇〇〇
同副產品 一、〇〇〇
輸入外安 一六、〇〇〇
內地製造豫定 一、二〇六、〇〇〇
滿化品輸入 一三〇、〇〇〇
朝窒品輸入 三〇、〇〇〇
計 一、四六六、〇〇〇

## 代用品 ⑮

### 質

이弱하고 高金인것은 스테이플·파이버 라고 믿엇다 前日 까지 있는데 이것은 에나뻐는 先入觀으로 簡單하게 惡評만을 한다는것은 너무나慘酷하다 이러한 評價를 하는사람에게 限하야 스·파를 使用한 經驗도엄시 떠드는 사람이라고 아니할수없다 그러나 가장人間은自然의 女神이 創作한 天然物을 崇拜戀慕하는傾은 今昔을 莫論하고 變함이업다 例를들면 純綿으로된 帆이나 浴衣가는 것等의 買溜競爭은 其間의事情을餘地업시 證明하고잇다 우리는低回지치고 新環境에 順應하기爲하야 가지努力을 다하고잇스면서도 뼤ー루잔이나 먹어노흔면 醉한氣分으로부터 생각지도안흔 아ー그리운木綿이살에닷는感觸을 누가잊을수잇스랴 이러한郷愁는 連綿하야 人間性의弱點을 暴露시키고잇다 이러하니만큼 木綿代用品에게로憫을 몰린

다는것은 여간容易한일이아니다 이것을 미루어보아 其關係業者들의苦心을 집작할수잇슬것이다

◇……◇

스·파의 試驗未完成時代에는洗濯하기 不便하고 살에처처부든며 毛羽가 일어나고 染色하기困難하다는等 여러가지로 非難이만흔나 其原因은 스·파가 一般大衆에게 처음印象이 그리조치못하엿스므로 其印象이 오래동안 남어잇는것이다 그러나 其後關係業者들이 苦心努力하야 心血을 다해가며 硏究한結果 現在에이르러는 十分 완成을 보게되엿다 只今

同一한때의強力

| | |
|---|---|
| 天然絹絲 | 三·五瓦 |
| 人絹 | 一·七 |
| 羊毛 | 一·六 |
| 米綿 | 一·七 |
| 스·파 | 一·三 |

以上과가튼데 다음은

에 스·파製品에는 從來의 惡評을 取消할만큼 여러가지로 長點을 나타내고잇다 即 第一은 強力한點이나 次記한表의 各種纖維의『테날』의 強力比較에依하여보면 羊毛나 人絹보다는 조금은 不足한程度이다 (纖維의 굴기와

### 保

健上問題인데 이것은 前三菱銀行會長 으로잇던 瀨下淸氏의『스·파는 乳兒에게는 不健康的이다』라고 爆彈的 聲明을發表하야 一時는 贊否兩論이 對立되어 激烈히論議되엿섯다 米國獨逸等의 先進國이 肌着과綱帶

次透過率이 減少될것이 證明되엿다

| 種類 | 透過率% |
|---|---|
| 全스·파 | 六七—七二 |
| 綿花二〇%混紡 | 六一—六七 |
| 綿花三〇%混紡 | 五〇 |
| 綿花五〇%混紡 | 四八 |

以上

◇—◇

乳兒의 가저귀、其他여러가지로 純綿布同樣으로 使用하는 事實을보고 아지못하는 동안의이러한惡評의發生은 消滅된形勢이다 스·파의兒童服等은 紫外線의透過率의良好로 도리어 保健上有効하다고 떠들게되엿다 綿花의의 混紡度合에依하야 다음과가티漸

다음은 浸水되면 弱하게되는 點도 技術의進步됨과함께 改良되여 防水加工에依하야 其不安은 解消되엿다 彈力性도 防皺加工과

### 羊

毛와가티 縮絨에波狀加工에依하야 增加하고 또中空하는

# 缺點은除去되엿스나 價格은아직도遺憾

파·스 2

니라할수업다

가잇슬것은 勿論 當然한일이어 製造된 綿製品이만큼 高低의差

이러한"헨드캡"이잇는 純綿으로 五十一圓五十錢인 差의 高價에잇다

二十手綿糸 一百五十一圓五十錢手金巾一百圓에 對하야 混紡綿絲九月限의 公定價格은 二十로因하야 供給不足도 傳하야 純綿하면 여간高價이므로 斤으로 換算하라는 高價이나 내것이다。이制는하고잇스나 六十五圓(百磅)이價아나 스·파는 最高價格으로 抑藝作으로 百円五十三圓程度의低다 이것은 主要한 米棉의 大懷이라고할까 現在에는 純綿物보다 스·파製品이 割高되여잇鏡敵케되는것은 其價格인데 遺最後로 消費大衆에게 綿絲을리어 歡迎을밧게될것이다 도든 스·파도 가까운將來에는 도서 爲하고弱하다고 非難이잇데依하야 比重이輕하게할수잇고 保溫性도 現著히만하여진다 따라

## 精米用고무롤의 配給統制大綱

穀物檢查所가配給을監督

焦眉의急을 告하고잇는 正租로 十五日 農具商側을 總督府精米用 고무롤의 配給統制에關에招致하야 折衝을行하고 兩三하야 十四日總督府에서 西本商日中에 細目의發表을 볼모양인工課長 下飯坂米穀課長 山本穀데 롤의規格에 對하야서는 先檢所長、穀物協會 橫山理事 고穀의穀協委員會에서 十種類로限무工聯 林理事 其他關係者가參定하엿는바 實際上 不便을 感하集하야 協議한結果 므로 左記의十九種類로 擴張하
一、세로히 優良農具商으로 하 게되엿다
여금 組合을 結成케하야 配 野田、瑞光、日東、스피ー豊年
給을統制할 京光、상에스 케ー오ー、吉田
二、穀物協會는 需要者의 引受 黎明、今尾、かね已、井關、三
數量을集計할 和、얀마ー、湖南、호ー오ー、
三、穀物檢查所가 配給을監督할 國の本、유다가
이라는 大綱을 決定하엿스며

## 麟蹄秋蠶繭共販

【麟蹄】麟蹄郡農會에서는 例年과가티 秋蠶繭共同販賣를 九月

## 新年度春肥의 配合協議會

朝鮮農會에서開催

| | | | | | |
|---|---|---|---|---|---|
| 菜種粕 | 一〇、八三三 | 八六六 | 其他肥料 | 一、六三三 | 一九 |
| 其他油粕 | 三六、一五五 | 三一〇 | 合計 | 三一〇〇、六三三 | 一三七、六七六 |

朝鮮農會에서는 來二十九日三十日兩日各道農會及 各道肥料關係者를 招集하야 遞信會館에서 肥料配給協議會를 開催하게되엿는데 協議事項은 如左하다

一、肥料配合配給에關한件
(가) 配合原料及 配合比例의 決定
(나) 月別及配合所別 配給數量의決定
一、單肥配給에關한件
運賃別及月別配給數量의決定
一、配合肥料의運賃劃一制에關한件
(가) 貨車輸送에依하는것
(나) 工場渡物
(다) 鮮輸送又는濱出物
一、配合肥料及單肥의受渡、荷扱에關한件
(가) 配合肥料及單肥의受渡條件과方法
(나) 受渡地의荷扱者及荷受人
一、配合肥料用 包裝繩叺製產에關한件
(가) 各道의月別產地數量
(나) 買入價格決定에關한希望
一、肥料未納代金理由에關한件

### 東拓榮山浦農場 多收穫苗代品評會

【榮山浦】東拓榮山浦農場에서는 第六回多收穫競作會賞品授與式及 第六回苗代品評會賞品授與式을지난 九月十三日午前十時에 同場內에서 開催하고 農場長梅崎郁三氏의 賞品授與式이 잇섯고羅州郡普通農事主任谷本氏의 祝辭가 잇슨後 閉會하엿다는대 入賞者及賞品代出席人員은 다음과 갓다
一、入賞者百三十名、一、賞品代五百圓 一、出席者二百名

(가) 各郡別未納의狀況及理由
(나) 未納에對한處理及完納豫測
一、配合倉庫建設에關한件
一、配合肥料獎勵用品作製에關한件
또第二日午後는 配合所長會議로할모양인데 그折衝事項은如左하다
一、配合作業及配給上 改善을要하는事項
一、配合荷扱輸送等諸契約에 關한件
一、配合計畫及設備改善에關한件
一、配合所職員服務에關한件

# 漁網染料"탄닌"

## 輸入許可數量一、〇二〇瓲中 二百瓲은配給完了

統制經濟의 強化에伴하야 重要漁業用物資인 漁網『마닐라롭』染料等의 漁網의 不圓滑은 極甚하야 各其需給狀態에 對하야서는 朝鮮漁業組合中央會에서 其對策에 腐心하고잇는데 其中染料(탄닌材)는 漁網保存用으로서 朝鮮에서도 年年히 阿弗利加、보르네오方面에 서約六、七萬圓程度의 輸入을 보고잇고 國內代用品은 到底히 탄닌材에 不及하므로써 全혀 輸入할수밧게업기때문에 爲替關係에依하야 輸入數量에도 相當한 制限이 加하여잇스므로 朝鮮漁業組合中央會에서는 그輸入의링크制等도 考慮되여잇는데 內地方面에서는 南洋으로부터 樹皮를 輸入하야 이에國產品을 混合하야써 生產費를 遞減케할計畫도잇는모양이다 그래서 朝鮮의 本年의 染料需要豫定數量은 一九七二瓲으로 이에對하야 輸入許可數量은 一、〇二〇瓲인바 現在에잇서서는 二〇〇瓲은 各配給濟로 未配付分八二〇瓲은 大體本年度中에 配給될모양이라 한다

## 海州府昇格紀念으로 煙草展覽會開催

來十月十五日부터三日間

【海州】海州邑은 十月一日을期하야 海州府로 昇格되엿는데 海州專賣局出張所에서는 이府制實施를 紀念코저 오는 十月十五日부터 十七日까지 사흘동안 道產業獎勵館에서 煙草展覽會를열고 各種포스타ー 煙草人形等 外國製造의 草煙과 煙草等을 陳列하여 一般住民에게 보이게 되엿다한다

◆元通 十九日 十日間
◆瑞和面 右同
◆麟蹄面 自九月十五日 至九月二十四日 十日間
◆內面 右同 十日間

## 東拓畜產計畫

### 東拓移民에게 獎勵金交附

池邊東拓副總裁는 來二十日頃正式으로 駐在의任에 當할터이데 池邊副總裁는 專혀 總督府와 事業上의 折衝을 行할터므로 同社의 畜產事業은 總督府農林局案에 基하는것으로 거이全鮮的이다 畜產은 牛、馬、豚、兎羊等이 主要한것으로 또이러한事業은 東拓移民即 小作農에對하야서도 一定한 獎勵金을 交附하고 積極的으로 行할모양이

므로 朝鮮農會의 畜產計畫은東拓의 二分一에 不過하는 小規模의것이다

## 故鐵屑最高價格

### 十月一日부터實施

【東京】屑鐵의 回收運動에 對應하야 商工省에서는 故鐵及屑鐵에 公定價格을 設定하기로되엿스므로 이것을爲하야 먼저物品販賣價格規則에 依하야 指定物品으로指定하고 八月卅日의 市價以上으로 販賣함을 禁止하엿는데 다시 七日附官報로서 故鐵及 屑鐵의 最高價格을 告示하야 十月一日부터 이것을 實施하기로 되엿다한다 따라서 十月一日以後 故鐵及屑鐵의販賣에 當하야 指定價格以上으로 販賣한때에는 輸出入品等臨時措置法違反으로서 處罰하기로되엿다

◆商工省告示=物品販賣價格取締規則第一條의 規定에依하야故鐵또는 屑鐵의販賣價格을 左와如히 指定하고 이것을 昭和十三年十月一日부터 施行함
(故鐵又는 屑鐵의 最終販賣價格) (故鐵또는 屑鐵을 原料로 使用하는者에게 販賣하는價格)
一、故鐵또는 屑鐵
(甲) 熔解用
(乙) 伸鐵用(拔物及押物用을 包含함) 一瓲百三十圓
二、故鐵또는 屑銑(鑄物도包含함) 一瓲百圓
(備考) 本指定價格은故鐵또는 屑鐵을原料로 使用하는者의 工場 또는買入所에 第一近接地인 河岸著貯乘渡及 驛著貨車乘渡價格(船又는鐵道以外인때에는 持込乘渡의 價格)으로함
자、平爐用 一瓲百圓
나、電氣爐用 一瓲百十圓

## 伊川郡農會 秋繭共販開始

【伊川】江原道伊川郡은 元來山多野少한地方으로 資源開發 生活改善 副業獎勵의見地에서 天然的으로 散在한 無盡藏의山桑을果然 伊川郡의蠶業上 一大寶庫가되는니만치 當局者들은 銳意蠶業指導獎勵에 不斷의 努力을다하는結果 尙今까지는 秋蠶飼育은 全혀度外視되든것이 今年秋蠶은 二千三百二十枚를 掃立하야 相當한收繭을豫想하며 價格도亦是 春蠶보다 高騰한바로 郡內各共同販賣는 다음과가티 實施한다고한다

伊川繭取扱所 九月八日—九月二十五日
安峽取扱所 九月十日—二十日
文下取扱所 九月十日—二十日
西面取扱所 九月十日—二十日
方丈取扱所 九月十日—二十日

## 對滿支輸出激增

### 今月上旬新義州貿易

【新義州】新義州港九月上旬貿易額은 輸出一百萬一千百七圓 輸入七十五萬九圓 計一百七十五萬一千六百七十六圓으로 百二十五萬二千圓의大出超이다 이를前旬에比較하면 輸出一割九分 輸入이一割減少이며 本年累計는 一千百六萬二千圓에達하야 滿洲北支의圓블럭圈內에對한 輸出의增進을如實히 反映하고잇다 그重要輸出貿易品中 魚類 林檎 石油 고무靴類 原木等은 增加하고 잇지만 米 綿織物 세멘트 가마니는 減少 되엿는데 綿織物은 圓블럭의 輸出抑制로 因함이오 米、세멘트는 需給關係의緩和로 因하야 減少된것이다 그리고 各重要輸出等의 種別金額은 다음과갓다

◆粟 三〇二〇九五 ◆蒸麥一〇八七二 ◆大豆 二二九五 ◆小豆 一五四八 ◆作蠶絲 四〇五五 ◆作蠶生絲 一〇七 ◆石炭 一三七一六七 ◆其他 一三五三六六

十一圓인데、이中에는 小切手가 三千三件 金額이 一百四十二萬五千八百九十二圓 送金小切手二百三十四件 金額六萬六千八百五十三圓 手形五百二十四件 金額이三十六萬三千三百五十六圓 政府預金小切手一百三十九件 金額二萬一千五十八圓 鐵道證書三件 金額이 九百十圓、郵便局鐵道證書七百六十九件 金額五萬六千五百四十圓으로 不渡殘分이된것은 約束手形一件 爲替手形四件 合計六件으로 金額은六百七十圓이라한다

### 木浦手形交換高

【木浦】木浦手形交換所의 八月中交換한 手形은 四千六百六十二件 金額一百九十三萬四千六百

## 忠北麥作配合肥

### 三萬八千七百餘叺

【淸州】忠北道當局에서는 今秋麥作基肥의 配合肥料를 各郡에 配定配付하엿는데 그數字를보건대 麥作基肥(硫安과 過燐酸石灰를 六對四로 配合한것)가三萬七千七百六十七가마니인데 이것을 前年同期에比하면 一萬一百三十九가마니의增加를 보이고잇스며 單肥用 過燐酸石灰 一千九百가마니로 前年一千六百七十四가마니에 比하면 一千六百六十五가마니의 減少를 보게되엿다는

## 全南秋蠶大豐作

### 四十萬石突破豫想

【全南支社發】全南道의 秋蠶은 지금으로부터 約六十日前이 掃立되엿는데 今二十日頃이 最盛況期를 이루게될것으로 豫想하고 잇는데 도 금般秋蠶은 從前에 보지못한大豐作이요 그品質도 良好하다하며 收繭豫想은 四十萬石을突破하리라고 前年에 比하야 一割五分가량의 高價를 보이고 잇스므로 一般蠶業者는 歡喜하고잇다한다

### 德源郡堆肥增產

### 好成果收得

【元山】德源郡에서는 時局關係로金肥의 統制實施化에 따라 그使用量이 大激減될것을 豫想하고 今年度부터 堆肥四百八十萬貫의 增產計畫을 세우고 大大的努力을傾注한結果 豫期以上의好成績을 거두게되엿다고 한다 即 各農家에서는 논一段步當 最低二百貫을 目標로製造케하얏는데 어實施를 爲하야 郡農會員으로 勸誘各面職員을 動員하야各部落에 서堆肥增產에 關한 座談會를開催하고 肥料의 自作自給強化에邁進하야 그成績이大端히 良好하다고한다。

基部에配合하야 配付하는關係로그 와가티 減少될것이라고한다

### 西部朝鮮으로부터 魚介類移入禁止

【奉天】關東州廳에서는 지난十二日告示四十五號로 虎列刺豫防에關한 告示를하야 朝鮮黃海道平南道로부터 大連에오는 旅客에對하여는 健康診斷을 實施하는同時 同地方沿海水面을 通過하는 野菜、果實、魚介類의 移入을 禁止시켯다

### 秋蠶繭共同販賣

寧邊農會에서實施

秋蠶種掃立枚數는 六千五百四

### 旱害와水害로 甲山苗木半減

【甲山】咸南甲山郡甲山面內에서 個人으로 年年히 經營하야오는 落葉松苗木은 漸次技術의 發達과需用者의 激增으로 今年度의 植付一年生苗約九十萬本과 一年生約百二十萬本으로서 過夏의旱害로約三割이나 枯死하엿고 今番水害에 浸水로因하야 約三割은流失又는 埋立시킨바 大體로보아 二年生苗가 四十萬內外一年生苗가 七十萬內外로 郡內需用者에 今年도 又復調達이 不圓滿하리라한다

十四枚이엿는데 蠶兒의飼育成績도 豫期以上으로 良好하다고하며 當郡農會에서는 秋蠶繭共同販賣를 下記에依하야 實施하리라는데 豫定數量은 一萬二千貫

| 販賣場所 | 日 | 期 |
|---|---|---|
| 邑內 | 自九月廿日至九月廿二日 | |
| 院 | 自九月十一日至九月十九日 | |
| 南新 | 自九月十一日至九月十八日 | |
| 松 | 自九月十一日至九月十七日 | |
| 寧 | 自九月十一日至九月十日 | |
| 北新峴 | 自九月十日至九月二十日 | |
| 龍山 | 自九月十日至九月廿二日 | |
| 百 | 自九月十日至九月廿日 | |

# 商品市勢

十六日

▲果實類
苹果(旭) 鎭南浦 三貫 二·五〇—二·八〇
〃(祝) 大邱 二·〇〇—二·二〇
〃(紅玉) 鎭南浦 三貫 一·五〇—二·二〇
〃( 〃 ) 河陽 〃 一·八〇—二·二〇
桃 (白桃) 羅州 三貫 一·五〇—一·七〇
〃(上海蜜) 砂 〃 一·二〇—一·三〇
바나나 臺灣 十貫色付 八·〇〇—九·〇〇
葡萄(大久保) 蜜山 〃 一·五〇—一·八〇
〃(마스캇) 岡山 〃 一·五〇—一·六〇
〃(洋) 慶南 〃 一·五〇—二·〇〇
梨(二十世紀) 羅州 三貫 二·〇〇—二·五〇
〃(長十郎) 蔚山 〃 一·五〇—一·七〇
〃(市原) 〃 〃
〃(博多青) 蔚山 〃
〃(梨) 南浦

▲農產加工品
麥稈眞田 單麥 朝鮮產 一反 一·六〇—一·七〇
經木眞田 內地產 〃 一·〇〇—一·一〇
杞柳 朝鮮產 一貫 一·五〇—一·八〇
筵草 朝鮮產 〃 三·八〇—四·〇〇
漆 內地 〃 一·三〇—一·六〇
椎茸 內地 一斤 一·五〇—一·八〇
楮(黑皮) 〃 〃
楮(白皮) 朝鮮產 十貫 三·〇〇—三·三〇
乾蕨 朝鮮產百斤 一五·〇〇—一六·〇〇
乾栗 一纏 一·五〇—一·八〇
荏子油 內地 一纏 二·五〇—二·八〇
胡麻油 內地 一纏
棉實油 木浦 〃
白紋油 內地 〃
乾蓮根 一斗 六·〇〇—七·〇〇
고사리 朝鮮產 百斤 三五·〇〇—四〇·〇〇
干柿 一貫 二·〇〇—二·五〇
干瓢 栃木 〃 一·〇〇—一·二〇
番椒 朝鮮產 百斤 三〇·〇〇—三五·〇〇
同 粉 各地 〃 三〇·〇〇—三五·〇〇
麥粉 三 三匁 京城 三〇·〇〇—三二·〇〇
〃 日の出印 一袋 三·〇〇—三·二〇
馬鈴薯澱粉 北海道 三貫 八·〇〇—八·五〇
澤庵漬 內地 一樽 三·〇〇—三·五〇
柿澁 一升 一·〇〇—一·二〇
木茸 百匁 一·〇〇—一·一〇
荒莚 스맄피 一枚 一·〇〇
干功大根 十貫 三·〇〇—三·五〇
栗虫巢 七·〇〇—八·〇〇

▲穀用叺及繩
指定價 京畿 一枚 天 ·三〇 人 ·三八
黏山 〃 ·二八 ·三五
忠南 〃 ·二八 ·三五
慶北 〃 ·二八 ·三五
慶南 〃 ·二八 ·三五
榮山浦 〃 ·二八 ·三五
價 全南 〃 ·三〇 ·三八
繩(十五キロ) 米三分八厘 至四分 ·三〇
穀用繩(玄) 米三分二厘 至四分五厘 ·三〇
帝繩 ·三〇

▲肥料
石灰窒素(九月各渡驛) ·二六
硫安(九十同) ·三五
硫燐安 ·三〇
過石(一五%) ·二〇
燐酸아루미나 ·三〇
硫酸加里(各驛渡) 三·〇〇
安東豆粕 九月限 一枚 一·七〇
胡、麻油粕 百匁 ·三〇
農牛大豆粕 ·三〇
硫化燐安 一〇貫 六·五〇
加燐安 〃 六·〇〇
過燐酸(鈴渡)〃 三·〇〇

▲農藥藥品
砒酸鉛 一封度 ·四三
改良가제인 〃 ·三六
데리스石鹼 五百瓦 一·六〇
마도일드밸도ー 二封度 一·三〇
除虫菊 一封度 一·四〇
빨퀴리ー푸링% 一纏 一·四〇
結晶硫酸銅 一〇〇斤 二·〇〇
粉末石灰 四貫 三·〇〇
生石灰 二封度 一·〇〇
蜜드리ー푸 〃 一·〇〇
상게이粉狀데리스 二五瓦 ·三〇
鹽虫用煙草粉 一貫 ·三〇
쿠레오소ー트 一纏 ·三〇

▲家畜飼料
粉末配合 產卵鷄用 一二五斤一號品 六·〇〇
〃 雛用 〃 七·〇〇
〃 中雛用 〃 七·〇〇
〃 三種配合粉餌 〃 六·〇〇
成雞用四種配合粒餌 一·〇〇
雛用一種配合粒餌 上七·〇〇
〃 三種配合粒餌 七·〇〇
〃 上 七·〇〇
玉蜀黍(丸) 一〇〇斤 六·〇〇
〃(中割) 〃 六·〇〇
〃(粉末) 〃 六·〇〇
高粱(丸) 〃 六·〇〇
〃(粉末) 〃 六·〇〇
玄米 五斗 七·〇〇
屑麥 七·〇〇
大麥 七五斤 六·〇〇
無砂糖 一〇〇斤 六·〇〇
骨粉 九〇斤 五·〇〇
魚粉 一〇五斤 六·〇〇
가기 八五斤 八·〇〇
히비 一〇貫 四·〇〇
干蛹 一〇貫 四·〇〇
三菱完全配合 中雛用 一期用 三·〇〇
成雞 一二五斤 三·〇〇
三井成雞用 二·〇〇
〃 初雛用日配號 二·〇〇
〃 中雛用日配特號 二·〇〇
〃 成雞基礎飼料 一〇〇斤 二·〇〇
〃 三種混合 一二五斤 一·〇〇
〃 三種粉餌 一二五斤 一·〇〇
〃 魚粉(特上) 一五貫 七·〇〇

▲穀物
玄米 二等呼値 石 三〇·〇〇
白米 一等 百キロ 三三·〇〇
大麥(上物) 〃 一六·〇〇
〃(並) 〃 一五·〇〇
小麥(上新) 〃 一八·〇〇
〃(並新) 〃 一七·〇〇
大豆(龍山) 〃 一七·〇〇
〃(金浦) 〃 一六·〇〇
小豆(龍山) 〃 一九·〇〇
粟(鐵嶺) 百斤 一〇·〇〇
胡麻(滿洲) 〃 二〇·〇〇
荏子 〃 一〇·〇〇
綠豆 〃 一七·〇〇
黍(高粱) 石 一〇·〇〇

▲家畜類
鷄卵 一箇 ·〇三
生鷄 〃 ·八〇
生兎 〃 ·五〇
生豚 百匁 ·三〇
鷄卵 百個 三·〇〇
鷄肉 〃 ·五〇
四季鳥卵 一纏 一·三〇
豚毛(原毛) 十斤 一·二〇
〃(撰毛) 〃 五·〇〇
雉羽毛 一貫 一·〇〇


# 凝りや痛みはたちどころ

일을해서疲勞하던지여러가지결리고아픈것은、惡血의滯澁으로부터、이러나는것인고로治療하려면제일먼저、患部의老廢毒素를푸러야하는것입니다——그러는데妙布와가튼貼藥이제일速한治療效果를가저옵니다。

## 優秀한貼藥妙布를!

妙布는부치면強力한藥效가곳皮下患部에深達하여、더러운欝血을速히푸러버리고、心身을爽快하게하는獨特한作用을發揮합니다。더욱이끈저거리여、붓는다던지하는不快하미업스며여러분으로부터盛旺히愛用되고잇습니다。

## 効力에定評잇는貼藥

妙布 外用

(主治効能)
◇肩臂痛、腰痛
◇筋肉이아픈데
◇류마치스
◇神經痛、胃膓
◇過勞로아픈데
◇짓 멍 울
◇胸咽喉아픈데
◇靴傷、打撲傷

(定價) 貳拾錢・參拾錢 五拾錢・壹圓

近處藥店에잇습니다
妙布라指命하시고、사시는것이安全합니다

慰問袋에모조록 我將兵勇士에게、疲勞回復에定評잇는用法至便의本劑를아모조록잇지마시고!

東京市麻布區飯倉町廿一番地
本舖 株式會社 渡邊輝綱藥房
振替東京四六〇七番

13—19

# 災民救急의熱火炎炎

## 音樂大會를열고 二百圓巨金醵出
### 城津學生親睦會義擧

【城津】수만흔재민과 막대한재산을 물에장사지내고 메허에서 우는 함남북이재민(罹災民)들에게는 각방면에서 여러가지로구호의손이 뻗치고잇거니와 아로코 날이갈사록 기아(饑餓)와주위가 더할뿐인 저들재민(災民)의 구제에 조고만보탬이라도하겟다는 정신미테서 성진학생친목회(學生親睦會)주최와 숭실청년회 본사성진지국(本社城津支局)후원으로 십일일 오후여섯시부터 당지유치좌(遊藝座)에서 김연수독창회(金蓮洙獨唱會)를열고 사만시민의 뜨거운동정을구하게되엿든바 일반시민은 이뜻기픈독창회(獨唱會)에크게 찬동하야 당일회장(會場)은 정각도 되기전에 입추의여지가 업시 초만원을 일우어 막이열리자 김(金)군의 아름다운음성(音聲)은 청중을 완전히 무아경(無我境)으로 잇끌고 찬조 출연한 고종석(高鍾錫)소년의「피아노」독주(獨奏)가 또한 청중을 열광시키여 재청삼청이연발하는가운데 예정의「프로」를전부 마치고 대성황리에 오후열시 막(幕)이내리엿는데 당야(當夜) 감동된 청중가운데서는 전[illegible]외가 그다지 넉넉지도못한 주머니를털어 즉석에서 금이십원을 의연하는외에 동정금이답지하야 전부 이백팔십일원(二百八十一圓)이란적지안흔 돈을만드러 본사성진지국(本社城津支局)을경유하야 재민에게 보내도록 본사(本社)에기탁하야왓다고한다 (寫眞은 장내를메운청중)

## 松都中學에서도 巨額의義捐寄托
### 開城學生界同情續出

【開城】수마에 유린당한관북수재동포의 가련한정상을 동정하는열은 개성학원에서 불타고잇다 즉지난십사일 미리흠녀학교(美理欽女學校)생도일동은 의복금전등의 동정이잇섯는데 또지난십오일에는 송도중학교(松都中學校)직원생도일동의 명의로오[illegible]의 성금이 본사개성지국에 기탁되엿는바 [illegible]의 열성에감격함을 마지안는다고한다

## 救濟金을寄託
### 吳新小學職員兒童

【平南支社發】평북지방(平北地方)과 함남북(咸南北)지방의 수해의 참상은 누차의 신문지상에 보도로인하여 충분히 인식하고잇스며 현지의 이재민은 서리가나리고 눈이나리는 치운기후를맛나 입을옷도업시 떨고잇는 눈물의기록뿐임으로 급속한구조를 갈망하고잇는터이다 평양부내에서도 수재민구제에대한 여론은 점차 노파가고잇서 구제금품이 본사평남지사에 답지하고잇는것은 누보와갓거니와 부내 오신리(吳新里)소재 오신소학교(吳新小學校)에서는 직원아동들이 한푼두푼 모은 구제금 [illegible]을 모아 십오일본사 평남지사에 위탁햇스므로 즉시송금수속을취햇다

## 汪文淳個人庭球 盛況裡에終了

【江東】「스포-츠」의 가을을마지한주문지정구구락부(汪文淳庭球俱樂部)에서는 총후(銃後)의의무는 오직국민의건강이라는 슬로간을걸고 「스포-츠」정신을 앙양키위하야 매년예사로되여잇는 개인정구대회를 개최코저 지난사일로 예정하엿든바 우천의관계로 부득이 지난십일일로 연기하엿다 [illegible] 날세는 매우 조치아니하엿스나 용감한 「스포-츠」맨들의의기는 [illegible] 오전구시부터 [illegible] 코-트에서 서마전(序馬戰)이열리게되자 고교승일(高橋勝一)씨개회사가 잇슨다음 쟁패전(爭霸戰)이 전개되여 용감한전황을 이루고 오후다섯시에 종료되엿스므로 입상자에게 상품과우승기를수여하고 즉시 폐회하엿다는데 입상자의씨명은 다음과갓다

▲優勝 金東鎭 金[illegible]吉 ▲一等 濱田榮 金德元 ▲二等 李夢大 金日然 ▲三等 金東起 國田

# 咸南水害復舊豫算 尨大·七百餘萬圓
## 一年豫算보다三百萬圓超過
### 知事折衷次急遽上京

【咸南支社發】이번수재의 복구공사비는 십이일까지 모두 각파에서 안을 만들어서 십삼일지방과에서 모흔뒤 이 총액을 가지고서 세천지사가 십사일밤차로 급거상경하엿는데 각방면의 복구예상총액은 별항도로공사의 오백오만원을 필두로 농무관계의 일백칠십팔만원 산림관계의 사십일만원을 합하야 칠백십사만원의 막대한액에 달한다 이것은 함남도의 일년간예산액보담도 오히려 삼백만원이나넘는 거액이며 이번 지사가 파연 어떠케 절충하야 어느정도의 용인을 밧게될는지가 자못 주목되고잇다

## 土木關係復舊費 總額五百五萬圓
### 今年부터三個年間繼續施行

별항=이번재해로인한 복구예산은 십사일에야 그성안을엇게되여 그날밤 세천지사가 안을가지고 총독부로 올라가 절충키로되엿다함은 별항과갓거니와 그중 도로관계예산안을보면 총액은 오백사십사만육천오백원으로 그중에 응급공사(應急)비 삼십구만오천육백원 복구예산은 오백오만구백원이나된다

이가운데 복구공사는 금년부터 삼개년계속공사로서 공사의 내역은 다음과갓다 이가운데서 국고보조는 팔할로서 일할오분은 도비 오분은 지원민부담을 예정하고잇다 복구공사의 내용은 다음과갓다

| | |
|---|---|
| 二等道路 | 一、六一〇、〇〇〇圓 |
| 三等道路 | 八四〇、〇〇〇 |
| 等外道路 | 四五〇、〇〇〇 |
| 直轄河川 | 一、四〇二、八〇〇 |
| 河川 | 一七八、一〇〇 |
| 咸興府 | 三六〇、〇〇〇 |
| 地方市街地 | 二一〇、〇〇〇 |
| 計 | 五、〇五〇、九〇〇 |

## 北京高等警官學校 第一期卒業式擧行

【北京】북지경비(北支警備)의중실과 민중의 직접지도를 목적으로 금년삼월십일에 개교된북경임시정부고등경관학교 (北京臨時政府高等警官學校)제일기생(第一期生)사백칠십명의 졸업식(卒業式)을 지난십일오전구시반경에 동교에서 임시정부위원장 왕극민(王克敏)씨이하 관민다수의참석하에 성대히 거행하엿다는데 특히 금회졸업생 사백칠십명은각방면에 배치하야 북지경비의중임을 맛허 민중의 지도보호에 유감업도록 만전을 도하리라는바 전운에 싸엿든북지의 치안

## 戰後의北京에 日語學習熱澎湃

【北京】전쟁일파후의 북경에는 일본어를 배우라는사람이만흔데 북경근대과학도서관(北京近代科學圖書館)일어학교(日語學校)에서는 지난십일오후세시경에 일어기초강좌고급반(日語基礎講座高級班) 제일기 졸업식(第一期卒業式)과 신설사범과 (新設師範科) 입학식을 동교에서 거행하엿다는데 일어기초강좌졸업생은 어십팔명이며 신설사범과 입학생은 이십일명이라는바 아프로 우수한 일어교수자를 양성하야 일지문화(日支文化)의친선을 도모하리라한다

## 營口普校新築 總工費三萬八千圓

【營口】영구보통학교는 만철연선(滿鐵沿線)에 잇는 재외지정학교(在外指定學校)중의하나로 설비와 내용으에 잇서서우수한 학교인데 지금까지 상업실습소 교사(校舍) 일부를 비려서 잇던바 금춘이래재류동포들의 열성으로 어만원의자발적 기부와 신경대사관의보조금이만이천원을 합하야 총공비 삼만팔천원으로 신시가 만주다루구공장 남편공지에 신교사를건축키로 결정하고 구월수일에착공하얏는데 준공은 십일월이십일이요 청부자는 천전조(川畑組)이라한다

## 前科四犯의强盜 釜山署員이逮捕

【慶南支社發】신호임전구이번정(神戶林田區二番町)앵곡말길(櫻谷末吉)(三二)은 강절도전과사범으로서 금년이월에 동경소관형무소(東京小菅刑務所)를 나와서문사(門司)에서 대련(大連)에가서 만주북지(滿洲、北支)등을 유랑하다가 약일주일전에 부산에나타나서 부내부민소학교(府內富民小學校) 아동용수용의 물품(寶鍾製) 신설개외에 서정(西町)등을 도라다니면서 십오회의절도를 범행하엿다가 십오일부산서원에게체포되엿는데 그피해 어 열천여원이라고한다

# 女船客二十四名中 二十名이溺死
## 務安近海의慘事續報

【木浦】무안군지도면내양리(務安郡智島面內楊里) 박연일(朴連一)은 지난십삼일에 자기소유 전마선(傳馬船)으로 게(蟹)잡으러가는 부녀이십사명을 태워가지고 그부근에잇는 섬으로갓다가 동일오후두시경에 그곳을도라오던중 동면 주정리(住亭里)해안에서 배를대이려하던차에 돌연전복되여 여자이십사명중에 겨우네명만 구조가되고 남아지이십명은 참혹하게도 전부익사하엿다는데 이토록 만흔익사를내게된것은 사공박연일이가 연령이불과십칠세의철부지한청년이기때문에 그토록 구조해를 지공이업섯슬뿐아니라 그당시 섬친사람이업섯고 다만산에서 나무하든아이삼세된 아이들사오명이잇다가 이를목도하고해안으로 달려가서 겨우네명만구조한것이라하는바 이참변에는희비극이얼키어 듯는자로하여곰한층더 동정의눈물을 자아내게할것은 조공순(曺恭順)이라하는사람의집에는 목하만삭이된 임신(姙娠)중의안해와 제수와누이들 삼인이 일시에 익사한것이요 또하나는 기적가태서 일반으로 하야금 감탄케하는것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해안으로 달려간 아이중 황근택(黃根擇)의 맏동이 아들은 수중에서 허덕거리는 여자중 손에닷치는대로 끌어내고보니 그가족자기모친이어서 이비극중에서 한토막의 희극이연출되엿다 한다그런데 이익사자이십명중에는 십육칠세된 처녀가여섯명이라하는대 김모(金某)란처녀는 그런곳에서미인으로 지칭하야 노픈터임으로 더욱애석히 여긴다하며이사자이십명중에 두명은해안으로 끌어올렷스나 응급수당을 못하엿기때문에 인해사망하고 그남아지 십팔명은시체도 찾지못하엿다한다

## 明新校學級增設
### 總工費는十萬圓으로

【載寧】재령명신학교(載寧明新學校)는 현재의 오학급으로는 일반적향학열이 노파가고잇는 현하정세로보아 현상과의 만전을 다하지못할것을 동교승격과동시 검정시험에 불합격생도 백여명이 남아잇는 현상으로 이를구제함에는 학급증가(검정시험에 불합격자 백여명은 실상 검정시험은 표방뿐이요 학급이 부족하기 때문임)가 재일조건으로 되여 학교당국에서는 그대책에 부심중이던바 이제야 그실게는 구체화하야 오는 십 십일 양월중 인가원을 제출할것을 목표로 방금 총공비 십만원으로 교사신축에 대한 제반수속을 다하고잇는데 모양으로 느저도 오는 사월부터는 착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 平南腦炎아직盛勢
## 龍岡郡內에서만死者七十名
### 衛生當局防疫에盡力

【眞池洞】평남도각지에는 유행성뇌염이 창궐하고 잇다함은 누보한바어니와 용강군내각지에서도 이병은계속적으로 유행되여 각면각부락마다 환자의수가 사오인은되리라하며 지난십사일까지 사망자의통계를보면 칠십팔명이라는데 한면에평균여섯명이나된다고한다

【鎭南浦】평남평원 대동 평양부등지에 창궐하고잇는 유행성뇌염은 용강지방(龍岡地方)에까지습래하야 수확기를앞두고 부망한농가에 호열자이상의공포와 전률을주고잇다 십사일용강군용강상에 거주하는 최영청(崔永淸)(六)은 이십일전부터 두통이나며 열이나더니 매일잠만 자므로 가족이동반하고 진남포도립병원에 진찰을왓는데 동박사(東博士)가진찰한결과 유행성뇌막염으로 판명되여 목하격리수용하고 치료중인데 가족의말을들은거데 자기근가에도 요사이 이와가튼병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야 벌써이 삼인이죽엇다고하는데 이병상으로보아유행성뇌염이틀림업다하야 용강서에서는 목하크게경계중이라한다

【岐陽】무서운뇌염자의유행으로 인심이흉흉한강서(江西)군일대에는 설상가상으로 뇌염(腦炎)과 장질부사(腸窒扶斯)가창궐하여 일반군민은극도로공포에싸혀잇다 그리고 현재에판명된환자는 강서군반석면반일리(江西郡班石面班一里)고영수(高永洙)외삼명 (삼십오세이상오십세이하)은 천수뇌막염으로수일전급사하고 동군동진면용정리(東津面龍井里)에는 장질부사가 만연되여 환자가 칠팔명이나되여 경찰당국에서는 소독을하는일방 예방책을강구중이라한다

## 衛生課員現地急行

【全南支社發】기보=북조선일대에서 호열자환자가 날로증가하고 잇스므로 전남도에서는 그방역진을 강화하고저 제이차로 십만여명에게 예방주사를 실시하고저 총독부에 주사약을 신청중이며 도는경찰을 발표하야 경기도이북으로 부터오는어물은 상륙을 금지하고잇다함은 본보에 기보하엿거니와 십오일부안군 지도면(智島面)에 일명의 호열자환자가 발생하엿다 함으로 도위생과에서는 긴장하야 소관목포경찰서와 협력하야 그진상을 조사하며 위생과원을 급파하야 세균을 조사중이라는데 병명은 아직판명되지아니하엿스나 해변가인관계상만일을 염려중이라는데 일반

## 營口普校新築 總工費三萬八千圓

## 魚貝類搬入禁止
### 全北道서도道令發表

【全北支社發】황해(黃海) 평안도지방에 호열자(虎列剌)가 창궐하야 당국에서 철옹성과가튼경계진을치고 배역에 노력하고잇슴은 본보에 기보한 바와갓거니와 전북도 위생과에서는 이에대비하야 구월십사일부로 도령제이십륙호로 황해평남양도에서 잡힌생선채취한조개류등의 본도내이입판매 수수등을 엄금하고 발표당일부터 실시하기로하야 호역(虎疫)예방에만전을다하고잇다

## 大麻奉祀殿建立

【韓山】충남한산 아성(鵝城)공립소학교에서는 수년전부터 현안중에잇든 대마봉사전(大麻奉祀殿)건립에대하야 그동안 동교 아비류(阿比留)교장이하 직원제씨의 꾸준한노력에의하야 드디어 건립에대한예산과 기타제반이 완성되여 지난십오일 [illegible] 극히 장엄한지신제를 거행하엿다한다

## 溫陽市場商人울리던 스리團五名就縛
### 所管署員의活動으로

【牙山】충남온양온천시장 (溫陽溫泉市場)에는 수개월전부터 장날이면 장꾼들의 지갑을절취하는 스리가빈번하야 피해자가상당이만흐므로 장날이면 일반장꾼들은 불안을늣끼게되던바 소관온양경찰서(溫陽警察署)에서는 도난을 방지하기위하야 대활동을한결과 지난십사일(온천장날)도 전과가티 스리단오륙명이 침입하야 장꾼들의 돈지갑을 절취하야가지고 도주하는것을 온양서 지형사(池刑事)가 추격하야 형사(徐刑事)가 추격하야 [illegible] 전부오명을 체포하엿는데 그자들은 모두 주소부정한 김모(金某)외 사명으로 삼십미만의 청년이라고한다

## 伊川郡民의赤誠
### 鍮器五千點獻納

【伊川】사변발생이후 일반군민의 적성은날로 강조되고잇는바 금번이천군에서는 군민들의헌납한유기가 오천[illegible]배점으로 육백[illegible] 이것을가격으로환산하면 [illegible]여원에달한다고 하야 당국자들은 이천군민의 열성을매우칭송한다고한다

## 照明彈

강원도(江原道)내에는 방방곡곡의도로(道路)에 자갈이반자이상 ◇ (百年大計)를위하는 현명한당국의거사이나 출역하는일반농민의사정도생각하여야할일 ◇ 특히 농번기부역이란 농촌민에게는큰고통(春川)

# 失業中의漁業者 生活打開策協議
## 鎭南浦水產業代表召集

【平南支社電話】평남도산업과에서는 금번의 호열자때문에 평남도내의 일만오천여명에 대한 어업자가 당장 고기잡이 기타 업무에 종사치못하고 아프로도 적어도 시월까지는 설치상태에 잇서야하겟스므로 그들에 생활상타격이 만흘것을념려하야 그대책을 강구코저 십팔일오전열시부터 진남포(鎭南浦)에서 전기수산업자대표를 소집하야 대책을 협의중에잇다 이번의회의 결과 당국의 적당한지시로 실직중의 어업자의 생활문제에다 개책이 잇슬것으로 만히 기대되고잇다

## 朱乙溫泉道路 不日開通豫定

【朱乙】전번수해로 자동차가불통되엿든 주을온천도로는 저간온천주민의 열렬한 활동으로 약삼백여메돌가량을 도보로연락할뿐이고 거의 복구시켯든바 금번다시 온천진흥회와 지방유지들의 적극적 노력으로 육백원의 대금을 거출하야 전기도보련락하든삼백메돌을 도로완정되기까지 임시가교를 부설하야는저도 이달하순경에는 자동차를통하게 극력주선중인데 다리에소용되는 목재전부는 당지동척임업소(東拓林業所)에서 단독부담하기로 하엿다는바 이로인하야 일시한산하든 온천장도 다시회락장으로 개생될것이며 온천각여관도 수해로 파손된부분은 벌써복구시켜 노흣스므로 손님에게는 조금도 불편함이업시 전과가티영업하리라고한다

# 長篇小說 林巨正【162】
洪碧初 作 金熊超 畫

평산쌈 (三)

검산이는 팔장을사람이 무안스럽도록 지지러지게 놀리고 너무 놀랄때 착괴한탓이 들어서 놀랄때와는 딴판으로 꽃 틀기를하고 그사람을 노려보앗다 그사람이 키는 구척이요 얼굴은 뚱뚱넙적한데 눈은 부리부리하고 코는 얼골의 주인이 내란 도시 안할자리를 넓게잡고 우로 옷둑 솟기까지하엿다 그우남이 큰코를 검산이가 물끄러미 보다가

「자네가 춘동(春同)이아닌가」

하고 무른니 검산이의 얼골만빤히 보고섯든 그사람은 껄껄우스며 고개를 끄덕이엇다

「나는 자네가 죽은줄 알엇더니 죽지안쿠 살어잇네그려」

검산이의 말을 춘동이란사람은 입내내듯이

「나는 자네가 죽은줄 알엇네」

하고 받하엿다

「죽지안코면 서루 만나는겔세 우리가 대체 얼마전에 만나나 이십년이나 거진되지안엇나」

「한 이십년 되엇슬걸 가만잇게 내가 고모부아저씨 돌아가시던해에 파주 자네집에를 갓섯구 그뒤루 못갓스니까 올에 꼭 열아홉해만인가베」

「자네 올에 설흔메친가」

「여덟일세」

「나버텀 삼년이나 우이던가」

「그럼 자네가 코흘릴때 나는 어른이엇섯네」

「주제넘은소리 하지말게」

「내가 열아홉에 첫장가 들구 고모부아저씨 상청에를 다니러갓섯는데 그때 자네가 나를 이서방어른이라구 불르지 안헛나 내가 거짓말인가」

「상투꼬부랑이니까 이서방이라군 불러줫겟지 올치 참말 그때 자네상투가 컷섯지 그래 우리가 상투치레 코치레 당나귀 무엇치래하구 놀려주엇거니」

「예 이사람」

「우리 어듸가서 좀안저 이야기하세」

「어듸가서 안질께아니라 우리 집으루 나려가세」

「자네집이 어듼가」

「이아래 마산리여」

「내가 지금 여기 산역을 봐주는중인데 언제 마산리까지 갓다오나 저기 어듸 잔듸바헤 가안저서 이야기좀하세」

검산이가 리춘동이와 손을 맛잡고 금정 노흔자리에서 멀즈이 나와서 잔듸바헤 다리들을 뻣고 안젓다 두사람이 다시 서로보며 의외의 만난것을 새삼스럽게 반긴뒤에

「금교역말 어물장사가 부자리진」

「식구는 한치안헤 어머니 우리내외 딸자식하나 원식구는 넷이구 그외에 일군이 서넛잇네」

「자네 어머니가 그저 살어기신가」

「그럼 아직두 사실량이 멀엇네」

「년세가 올에 엇더케되시나」

「올이 한갑인데 새달 스무엿샛날이 환갑날일세」

「일군울 서넛식이나 두엇슬젠 대장깐일이 때 만흔모양일세그려」

「농사두 좀시키네」

「그래 의식걱정은 업나?」

「양식을 남의집에 꾸러다니진 안네」

「고마운일일세」

「산역마치구 나려올때 우리집으루 와서 사는꼴을 좀보게」

「오늘저녁때 상행이 올테니까 자네집에 가게될는지 몰으겟네」

「상행이 오더라두 자네가 상제가 못나올것 무어잇나 저녁밥은 우리집에 와서먹게」

「내일 여기 장사지내는것까지 보구 자네집에 가서 일이일간 묵어가겟네」

「일이일이구 일이삭이구 내가 놔보내구싶을때 놔보낼테니까 아주 그리 알구잇게」

「내가 팔자가 사나우면 아주 자네에게 붓잡혀 바드럽을지 모르지」

「어른에게 욕하지안나 버릇업는놈이구나」

하고 리춘동이가 검산이의 억개를치며 허허허 우섯다

「떼 건너는 모양이네」

하고 리춘동이가 못고

「떼 건너는 모양이데」

하고 검산이가 대답하엿다

「정의를 떼미면서 부자소리듯구 살자면 임북정이에게 공을 만이 바치야될걸」

리춘동이가 심사뒤어진 어투로 말하는것을 검산이는 못고

「더러 독기겟지」

가벼게 흘려서 대답하고 말을 달리 돌리라고

「자네 언제부터 여기와서 사나」

하고 리춘동이더러 물엇다

「작년에 왓네」

「그전에는 어듸서 살앗나」

「역시 평산따이지만 해주정경에서 살다가 이리 떨어왓네」

「농사하나?」

「대장쟁이노릇하네」

「자네가 대장일을 배웟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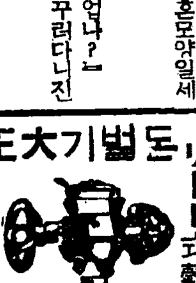
「눈찌기루 배웟네」

「그래 벌리가 좀흔가」

「거지가 만허야 국물이 나지 이런산골동네의 대장간일이 변변한가 그저 낫자루 독기자루나 벼려주는게지」

「자네집 식구는 몃친가」

二重眼瞼手術 公眼科醫院 醫學博士 公炳禹 京城府鍾路 (電話光207番)


リート式穀物膨脹機 도리기벌대王 五合의쌀이八升가되는 新型各種カタログ進呈 大阪市北區[illegible] 兒島製作所 (電話北3238番)

山葉ピアノ オルガン 山葉オルガン四十五圓ヨリ 山葉ピアノ七百五十圓ヨリ 山口樂器店

神經痛 류마지스에 ネウロシン 中央體育研究所 現代體力增進法第三版出來 漢城圖書株式會社發賣

新入會員大募集
今秋特典
此際普通科新入生에게는 其次號一冊을無代로配付하며 兩科를通하야 相當한誠實繼續者에게는 其學年末에 講義錄一冊을 代賞與하고 入會金五十錢도半減함 各且無
高等普通學科講義
普通學校第五・六學年學科講義
高等科 二十冊 一冊六十錢 一年二個月卒業
普通科 十二冊 一冊五十錢 一個年卒業 (速修隨意)
學則附內容見本請求即時無代進呈
本會의機關紙인月刊獨學通信을每月無代進呈
京城府和泉町六 朝鮮高等普通學會 電話(光)一八八四番・振替京城八八九五番

月經催進劑 アゴメンシン「チバ」 아고멘신
月經을促進하고또女子生殖機能障害에効力優秀한女性호르몬製劑로서世界各國의醫藥界에常用됨
月經過少・月經困難 月經不順・子宮發育不全・不姙症・代償性月經・乳汁分泌障碍・月經性皮膚疾患面皰等에適用함
月經過多制限… 月經痛에는… シストメシジン을應用함
兩劑共히副作用업는錠劑及注射液
13—11

年賦定期貸付 普通銀行業務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百四十番地ノ一
株式會社 朝鮮殖產銀行 頭取 林繁藏
資本金參千萬圓
全鮮各地에支店派出所六十四個所及內地大阪에支店잇슴
日本銀行代理店 日本勸業銀行代理店 朝鮮貯蓄銀行代理店

▲土地大分讓開始▼
仁川松嶋臨海住宅別莊地
十萬坪遊園地埋築工事完成紀念賣出し
潮湯、本館本年十二月開館!!
賣出中……遊園地無料開放!!
▲今回の賣出し(最終賣出し)
口數 一〇〇口限り一口の坪數一五〇坪以上
價格 一坪 三圓より
▲賣出期間 九月十六日より、十月十日まで
▲取引方法 御申込の際土地代金の一割契約の際(申込の日より一ケ月以內)四割、所有權移轉登記の際(契約の日より二ケ月以內)殘額頂戴
▲特典 賣出期間中の御申込に限り土地代金の一割引遊園地(潮湯共)御家族優待券上仁川松嶋間バス券贈呈
京城府南大門通四丁目(ツバキビル內)
松嶋遊園京城出張所
電話本局②六七八八番
(案內書、地割圖御申込次第贈呈)

# 朝鮮米統制機關 獨自的對案講究

政府의 米穀配給機構改革案에 對하야 獨自의對策樹立이 切實되는朝鮮은 目下問題圈外에 잇는感이잇는데 案觸米의 配給統制決定에따라 內地의劃一的統制는 必然的이요 이와함께 機構中의 關係에잇는 朝鮮은 早晩統制의 範圍內에 들어갈것이 必至라고보이어 總督府當局을爲始하야 米穀取引關係業者 生産業者間에서는 內地의 動勢를 注視하면서 그對策樹立을 硏究中인데 最近米穀業者及總督府當局者間에는此際機先을制하야 朝鮮獨自의配給機構改革案을 作製하고 中央에 提示하자는見地에서

一、爲先 精米業統制의 見地에서 生産部門과 販賣部門을區別하고 現在의 精米工場을生産部門으로하야 새로히 半官半民的販賣統制會社를 新設하고 이것을 朝鮮米의 統制機關으로하야 內地主要地에支店을 設置하고 內地新機構會社와 聯携시키자는 過渡的案과

二、半頭一步를나가 一千萬圓以上의 一大朝鮮米穀生産販賣統制會社를 設立하야 從來의精米工場을 모두이에 吸收하는 同時에 米倉도이에 包含시켜 金融業者와 提携하고 總督府監督下에 純然한 國策會社로서 此際小乘的利害는 一擲하고 大乘的大計畫을 樹立하자는 二案을가지고 熱心으로 考究中인데 過般來開催되어온 穀協委員會 米穀硏究會等에서도 總督府關係官臨席下에 業者側에서 本案을 提示하야 硏究的對策을 한 모양으로 民間側의 이에對한 態度는 熱意를 띄게되엿다. 單只中小業者는反對的態度를 取하는側도잇서容易히 具體的으로는 結着點에 到達할수업스나 時間의經過如何에 依하야는意外에 急速한 試案이 實現될는지도 모를狀態이므로 今後의 經過가 注目되는바이라한다

## 新穀期檢查方針 玄米檢查를第一義로하고 正租乾燥調製主力

胚芽米나 白米나하는問題는 아즉混沌的情勢인데 內地移出을對象으로하는 總督府穀物檢査所의 新穀期에對한 檢査方針은 자못注目되는바로 大體에잇서서 白米는過精白米를排하고 無砂米에 移行할것은必然的趨勢에잇고 資源愛護의見地에서 精米程度의 差異는도리어複雜化하야 그原料의選擇이 要를 缺하게되므로 今年은 玄米檢査를 第一義로 하는同時에 籾의向上에 重點을 두고 이에 附隨하야 原料正租의 乾燥調製에 主力을 傾注할 方針이다 即現在 無砂米, 胚芽米, 七分搗米等 普及하는 結果 搗精後의 夾雜物除去에 多額의 費用을 要하는것을 避하기爲하야 適品種을 原料로選擇하는傾向이 顯著하므로 適品種即 優良米와 不適品의 價格差가 石當最高 二圓五、六十錢以上하는것도잇는事情에잇서 今後玄米中에 胴割米、赤米、籾、稗其他의夾雜物等이 混入하는때에는 特히 顯著히 賣價에 重大한惡影響을미칠터이므로 그除去에 特別한努力을하도록 要望되고잇다 穀檢에서는各地自體徹底시키려고各支所에 通牒을 發하엿는데 具體的檢査方法으로서는現行等級別赤米及夾雜物混入比率을 若干 引下할必要가 잇서그實施에 對하야 硏究中이며 또本年産米의 早期奬勵에 協力하기爲하야 從來 檢査된 生産米의 搬入도 二割程度의것은 이것을 許容하고 所期의 目的實施에 萬全을期할 方針이라한다

# 中小商救濟急務 總督府具體策考究中

時局의重壓下에잇는 中小工業의救濟에 對하야서는 轉換資金을 準備하야 輸出産業 代用品工業 下請工業等으로 轉換更生케하는것이 考慮되여잇는데 中小商業에 對하야서는 그打擊의範圍 强度는 中小工業보다도다시 廣大深刻함에도 不拘하고거의 不顧하는 狀態에잇다 即이것은 指導當局에 熱意가업다고하는할도 잇스나 一面調査가자못 困難하다는것과 中小工業과가티 轉換更生의道가 容易히發見되지 안는데 原因된다고 보인다 今日까지는 重要物資의入手難及 使用制限의 强化에도不拘코 多少의 在庫도 七、八月의 夏枯期이엿스므로 經營에큰不安이 업섯스나 冬節物仕入期를앞은 昨今의 商品의 入手는全혀 梗塞되여 資金의 金融難과共히 一重二重의 窮乏이加重되고 또 現下時局의 重大化와共히 臨時輸出入品 措置法에基한重要物資의 統制는 드디어强化되여 이와呼應하는 使用制限도 消費節約運動도 本格的으로 徹底化될것이라고 보지안허서는아니되므로 中小商等은 衰弱의一途를 밟을수밧게업서서 總督府當局으로서도 그頹廢하는바 社會問題를 惹起할念慮가잇서 目下 그救濟具體策을 考究中인바 그硏究對象이되는것은 商業組合令의公布에依한 中小商業의 組織化, 이것을基底로하는 共同更生策 中小工業金融의 擴充等으로其中 金融問題에 對하야서는本年度豫算編成期에 잇서서도 考究되여 立案을보앗스나 不幸히도 財務局, 大藏省等에게 阻止되여 流産된經驗이 잇스므로一段內容에檢討를 加하야 朝鮮獨自의對策을 確立하고 그實現에 邁進하려고 決意한것갓다

### 『南鮮合同電氣』 本社問題再燃 結局現狀維持?

南鮮合同電氣의 本社問題는合同後迂餘曲折을지나 結局暫定期間을 設하고 本社를 京城에 두엇섯는데 이暫定期間은 明年三月로써 滿了될모양이다 地方의誘題가 再現될모양이다 地方의誘致熱은依然한것으로 時局關係와 情勢變化에依하야 本社問題는結局 京城에 그대로 두게될것으로보인다

一、南鮮合同은 一地方電氣에서 代表的 配電會社로되고 總督府와의 折衝이만허지것
一、地方으로移轉하면 大邱、釜山의 條件은 依然變化치안허 定키어려운것
一、社員其他도 安定된 今日移轉이不利한것

## 東京自工과合併! 國産自動車增資後

國産自動車工業은 增資認可를 기다려 來二十六日 增資總會를 열고 現在資本金一百三十萬圓을 六百九十萬圓으로하기로 決定하고 來月二十六日 增資新株의拂込을徵收하는데 增資가實現되면 前부터 計畫한바와가티 東京自動車工業과의 合併에邁進할 豫定으로 이미 兩社間에는 合併의 假契約이成立되엇다 但右假契約은 國産自動車工業의 增資內容이 變하엿스므로 多少이에도 變更이잇슬것으로 보이는데 如何튼 이合併에依하야 京仁線富平에 建設하기로되어잇는 製作及組立工場의 着手를急히할 豫定이라한다

# 轉業資金融通에 金融業者側硏究考慮

### 商工業座談會

朝鮮金融組合聯合會主催의 戰時下中小商工業者의 動向을말하는 座談會는 十五日午後四時半부터 同所에서 開催되어 朝鮮銀行橫田理事, 殖銀本田, 商銀德山, 京城府稻垣課長, 京城商議伊藤理事, 總督府星子技師, 朝鮮軍芥川少佐 京日池田主筆, 金聯側에서 金谷金融部長, 齊藤庶務部長等이 出席하야 二時間에 亘한 座談이 交換되엇는데 悲觀論 樂觀論諸種의 意見이 開陳되고 就中轉業問題에 對하야는 最大의 關心을가지고 軍部에서도 그實情에 對하야 調査中이라고 報告되엇다 金融業者側에잇서서도轉業資金融通이 硏究考慮되고잇서 本座談會를 通하야보대에는 痛切한 時局問題로서의 轉業問題에도 一脈의 光明이보이엇다한다

### 簡保一大飛躍 三億突破在邇

九月十日現在 朝鮮簡保의 契約概數는 內地人三十七萬二千七百件 保險金八千百九十三萬圓 朝鮮人百二十四萬六千百件 保險金二億一千百七十九萬圓 合計百六十一萬八千八百件二億九千八百七十二萬圓으로서 昨年五月十二日 二億圓突破後겨우 一年四個月間에 約一億圓의 增加이엇다 느저도 十一月初에는 三億圓을 突破할것으로보이어 事變下의 朝鮮簡保의 躍進을 如實히 示코잇다

## 內地百貨店의 朝鮮內出張販賣 商工課에서防止要求

近者 東京、大阪方面의百貨店等이 朝鮮內에出張販賣하고잇는바 이것은 百貨店法第四條의規定에버서나는것일뿐아니라 百貨店相互間의協定에 防止하는同時에 中小商業者의營業上 調整을圖謀하는 見地에서 改正된百貨店 自制協定을 紊亂케하는것이며 또는 事變대문에더욱 困窮해가는 中小商業者에對한 惡影響을끼치는것이라하야 總督府商工課에서는 十五日付書面으로써 拓務省을通하야 商工省當局에 內地百貨店의 朝鮮內出張販賣를防止하도록 要求하얏다

### 仁川埠頭 荷捌狀況을視察하고

仁川埠頭 其他에서 荷捌狀況을 視察하고 다시 仁川商工會議所에서 仁川卸商聯盟會와 共同主催下에 拔荷防止對策硏究座談會를 開催한다고

### 金化三萬키로 華川七萬키로 漢江水電計畫

漢江水電(資本金二千三百萬圓 發起人代表 有賀光豐氏)은總督府에 設立認可申請中이던바 近江原道知事를 通하야 正式許可케되엇다 同社는 發電能力十萬키로(金化三萬키로 華川七萬키로)로 折半은 日本高周波第二期計畫이고 折半은 京仁一帶의諸工場에 供給하려는것이라한다

### 局鐵上旬荷動

九月上旬中의 荷動狀況은 鐵道局九 繼續하 ...

## 營業을助成 應召商工業者

京城商工會議所에서는 今春來商工相談所를 一層擴充하고 商工經營各般에 亘하야 指導相談機關으로서 活躍을 繼續하여왓는데 今回 京城商工組合聯合會와 協力하야 應召商工業者의營業을 助成하기爲하야 經營相談指導를 하기로 하고이미 專門指導員으로하여금 各應召者의 店舖工場을 訪問시켜 實施指導에 當하고잇다한다

### 仁川拔荷防止協議

京城卸商聯盟會에서는 十六日...

# 今後發展은雄基 淸津은朝鮮系·羅津은滿鐵系 淸會間은朝鮮經營이妥當

朝鮮鐵道專務取締役窟瀨博氏는 適般來 北朝鮮地方及 國境地帶를 視察中이던바 十六日朝歸任하야 如左히 말하엿다 元山에서부터 北朝鮮諸港과問題의 張鼓峰의 現地等을 視察하고왓는데北朝鮮 淸羅兩港의 活氣橫溢에 一驚하엿다 淸羅兩港에 對하야는 淸津은 朝鮮系 羅津은 滿鐵系라는 感을비덧다 淸津에는 漁港施設外에 白頭山의 ... 大工場 ... 日本紡等이 接踵進行되고잇고 淸津會寧間은 滿鐵에 委任하는것보다 朝鮮鐵道局에서 經營하는것이 妥當하지안흘가하고 生각하엿다 茂山開發等으로 보아도 그러케생각된다 羅津은滿鐵의 힘에依하야 諸般의 設備가 進行中이고 雄基港은 只今에는 補助港의觀을 呈하고잇스나 그러나 背後地 其他의關係로보아 發展餘地는 雄基에도 相當히만 라고생각한다

### 東北振興에서 淸津에出張員

東北振興總裁 八田嘉明氏는 總督府의 時局對策調査會終了後 北朝鮮地方을 視察하고 十六日朝再次入京하야다가곳 歸東하는데 同總裁는 北朝鮮視察의 結果北朝鮮의 諸工業勃興에 依한 顯著한 經濟發展은北朝鮮이 日滿經濟『블럭』上에占하는 役割이 重大한것을 痛感하고 特히東北及 裏日本과 北朝鮮及 東滿洲와의 關係가 地理的으로 또는 經濟的으로 今後益緊密하여질것 及北朝鮮의 漁業其他産業及 이에對한 總督府의 施設에 만히 배울點이잇는것을 認識하고 爲先淸津에東北振興의出張員을設置하리라한다

# 銀行金利調整에 大邱兩銀行合流 湖南도近間順應케될듯 銀行合同論도解消

銀行의 金利水準化問題는 中央의銀行態度가 이미決定되엇스나 南朝鮮三行의 態度가 不明하야 同問題의 發展上에 一抹의暗影을投코잇든바 南朝鮮三行中에 大邱商工과 慶尙合同의 二行은 十五日中央諸銀行의 金利調整方針에合流할터의 回答을하얏슴으로 남기는 湖南銀行一行뿐이다 湖南銀行으로서 今後數日동안態度表明을保留하겟다는 旨를 말하얏는데 이것도 朝鮮內의 金融情勢에抑壓되어 結局中央의 銀行方針에順應할것으로 보인다 이리하야 朝鮮內의 銀行에關한 限金利調整에 對한 態度는 一致케되고 同問題는 依然實現性을 倍加케된 同時 金利調整實現難으로 推測되든 地方銀行合同論도 解消케되리라한다

### 五萬圓以下는 貸出안는다 鮮銀의方針變革 庶民機關不侵害

鮮銀의 金利水準化問題의 發展에 伴하야 各銀行의 貸出金利의 是正或은貸出方針의變革에對하야 硏究中인데 鮮銀은 獨自의立場에서 貸出方針에改正을 加할方針下에 目下具體的方法을 硏究中이라한다 鮮銀의大體意向으로서는

一、乙種銀行 金組無盡等의 小額貸出範圍를 侵害치안흘 方針
二、從하야 大體五萬圓(或은三萬圓)以下의 貸出은中止
以上의 方針을가지고 所謂小額貸付를 될수잇는대로 乙銀과其他의 庶民金融機關에게 讓하고 鮮銀은 中央銀行으로서의 使命과機能에 힘쓰리라한다

## 經濟界消息

○朝鮮製鍊總會=朝鮮製鍊에서는 十月三日午前十時부터 府民館에서 臨時株主總會를 開催하고

一、定款改正의件 (取締役會長制新設)
二、取締役二名選任의件

을附議하는데 取締役에는 有賀光豐, 中富計太를 選任할豫定이고 總會後의 重役會에서 會長에 有賀光豐氏 社長에取締役菊池一德氏를選任할터이라고

○國産自動車臨總=國産自動車工業에서도 드디어 近日中에增資가 認可되겟슴으로 來二十六日午後一時부터 朝取에서臨時株主總會를 開催하기로되엇는바 附議事項은

一、定款變更의件
一、增資方法에關한件

의二項을株式配定方法은 九月二十六日現在의 株主에 一對一로 配定하고 殘餘의四萬六千株는 取締役會에 一任하려는案인바 拂込은十月二十六日

# 株式 休養 新動機待

### 前場保合

今朝는 別無新材料로 四圍情勢를觀望하야外電反映에도不拘하고 賣方이모두消極的이어서 東新二低인百四十五圓九 鐘紡一百二十四圓八引前日同標으로 保勢補寄付後 新動機待로 極度의閑散場面을 이루다가 結局東新五圓七 鐘紡四圓九로 底堅大引

### 後場同調

後場은 依然積極味가업서서 東新五高인 百四十六圓二 鐘紡五低인 一百廿四圓四로 區區寄付後 東新五圓八 鐘紡四圓四에大引

## 仕手戰一段落 環境觀望保合

仕手戰의 一段落으로 環境觀望의保合場面인데 歐洲의和戰은決하고저 『체임벌린』英首相이訪獨, 『히틀러』와 重大會談을 하게되어 이會談結果는 자못注目되는바이다 그러나 會談의目標는 平和策을 發見하려는데 잇스나 만큼 畢竟은 戰爭에까지 가지는안흐리라는 觀測이 有力하야 一般도 歐洲動搖는 이며어는程度까지 織込하고 다음의新材料를待望하고잇다

一方 近衛首相의 車中談에依하면 漢口攻略前後에 드디어國民政府를 一地方政權으로 認定한다는 重大聲明을 發表할豫定이라한다 國의旣定方針을 再確言한데 不過하므로 別다른刺戰은주지못하고 도리어 事變處理徹底遂行에依한 長期化를 憂慮하게된것갓다 그러므로 市勢는 至今까지 買方의 目標이던 『마바리』買方의 旆幟도 一段落되고雜株의 整理期에 들어온것가튼氣도잇서 當分間保合이 繼續될것으로보이엇다

### 强氣의大勢論

歐洲不安도織込濟로되어 드디어 漢口陷落期待一本市勢로 되엿는데 이漢口市勢가 果然過去의 南京、徐州市勢의 前轍을 밟을는지 依然疑問이며 諸情勢에는 變化가잇스니만큼 어떠라고 딱잘할수업다 그러한즉 强氣의 强 辭을드리면 如左하다

## 期米 少幅往來 保勢

### 前場少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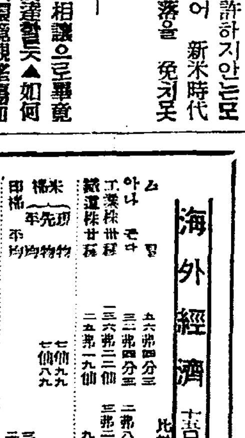
今朝阪地三十五圓三十五錢인 五丁反高를接하고 當은 一圓七十二錢인 昨止同標 中은二圓四十七錢 各一丁高로 三十二圓二十四錢인 先限은 場을 始한後 一往一來를 거듭하다가 結局阪地三十錢의不勢를 보고 七節부터 四番同價인 二十錢에膠着止場하엿다

### 後場不變

後場은 冊一圓廿錢인 前止同標으로 始場後 節十九錢、五節十九錢이엇다

## 反撥은一時的

九月一日現在 內鮮殘存米의增加를보고 一段低落을 告하더니 그發表를 完了하야 市勢의 行動은 一巡되고 反히 强味를찾하는드데 內地의氣溫이 例年보다 ...




株……今朝는變方이無策하야 超閑散 ▲仕手戰도一段落되고 雜株物色買도 整理時期에들어와 當分間保合이 繼續되리라는豫見이有力 ▲이保合期間에 漢口戰을觀望하자는것 ▲歐洲의和戰을決하고저 英首相이訪獨 歷史的會談의眼目은 和平策을發見하는데잇슬것이나 ▲『체』首相이『히틀러』를 訪問한다는點에 會談內容의 依存까지도보는 ▲『어떠한 讓步를하여서라도 戰爭을 防止하려나』고하지는안흘

米……바로電光石火와가티오르내리는 市勢는 兩方의 相讓으로畢竟은 和平策에 到達할듯▲如何튼 市勢는 再次環境觀望場面에 들어와서 ...

# 國債閑散 (東京電話同盟)

依然히環境觀望으로 無活氣閑散인데 人氣는大體頑强하야 甲號五分半中限及 一回四分 當限이 五錢小幅外는 米貨價가 一昆狀態로六分半十五錢 五分半二十錢低로도不透明이엇다

## 今日의市勢 (十六日)

## 今日財界 (十六日)

| ◆米 | 今日後止 | 比前日後止 |
| --- | --- | --- |
| 仁川期米先限 | 三二、八 | 一五低 |
| 大阪期米先限 | 三五、元 | 一低 |
| 仁三等米一石 | 三三、五〇 | 一低 |
| 白米(京城一等) | 三四、〇〇 | 不變 |
| 正租(仁川一等) | 三四、〇〇 | 不變 |
| 玄米FAQ | 一五、〇〇 | 九錢 |

| ◆株 | 今日後止 | 比前日後止 |
| --- | --- | --- |
| 朝新 | 三二、四 | 二高 |
| 東新 | 一四六、八 | 一低 |
| 鐘紡 | 一二三、四 | 四低 |

| ◆商品 (先限單位錢) | 今日後止 | 比前日後止 |
| --- | --- | --- |
| 大阪三品 | | |
| 綿絲 | [illegible] | [illegible] |
| 人絹 | [illegible] | [illegible] |
| 砂糖 | [illegible] | [illegible] |

『漢口가陷落하면 伊太利에서 新政權을 承認하게된다하니이것은 戰勝의國際的으로 承認된것이다 그리고『이플레』는 統制의 裏面에서 나날이深刻化하고잇스니만큼 적어도南京市勢의 一割高一百圓市勢를豫期하여도 조흘것이다 買方은 엇스나 實方은充分히 『쇼크』問題는計算에넣치안코 不遇하여야할것이다』云云

다의 三度低下로 早稻의 漸여 不無하야 昨日의 突高를 示함에 至하엿다 그러나 秋日氣의 一希一憂는 例年常事이만치 低溫을 繼續할것으로 보이지안코 日氣는 다시 溫和할것을 豫期하고 騰勢는 假然 一擇되엿다 要하면 昨今新租 一斤에 九錢二三厘의 唱價가 잇스나 持米側이 實應치아니하야 實買가 잘되지아니함을 보아서 當分米價의 低落을期할수업는것도 事實이나 그러나 아프로 秋日氣의 好順을 몰하는때는 米界의樂觀되는 氣分이어지안흘것이오 又는 例年보다 早새를奬勵하는 關係上集散市場은 不遠한 將來에出廻될것이며 따러서 十限과如한限月은 新米로써 渡米에 供할수도 잇스므로 反撥은 一時的이아닐가하는 商談이多하다

## 南鮮作況一瞥

때는正히 黃熟期에 入하엿다 果然朝鮮의作況은 平年作? 豐作? 秋日氣의 如何에依하야 收穫增減에 莫大한關係를 有하게된다 今朝南朝鮮作況을觀察하고歸任한 金益取引店地方部 李沉鎬氏의談에依하면 慶尙南北道의作況은踏査하지 안혓스므로 알수업스나 全羅南北道 忠淸南北道는 一時適作說보다는 大體良好한편으로 金堤平野는 植付初期부터 稻熱病의 發生地帶인 만치 實稔이 若干不良한 感이업지아니하나 其他는 平年作以上이라고할수잇다고한다 朝鮮全道의 稻作은 局部的으로 不良한곳이 업지아니하나 그러나 全體的으로보다면 平年作은 훨신超越한 모양으로 昨今은 端境期에 臨迫한만치 正米의實勢가 頑强하야 到底히低落을 許하지안는모양이나 分水嶺을넘어 新米時代에入할때는 數段低落을 免치못할것갓다

### 朝取期米取組內容

| | ◆賣方 | ◆買方 |
| --- | --- | --- |
| 當限 | [illegible] | [illegible] |
| 中限 | [illegible] | [illegible] |
| 先限 | [illegible] | [illegible] |

# 正米 無材料로 保勢

### 京城釘付

奧地로부터多少의積出이잇스나 現實的인品薄으로 買物이업고 各地淸算의軟調와 함께 內地入注一趨으로買氣가鬪踏하여 市中人氣는消極이어서閑散場面인데 政府의古米拂下는第一回收穫豫想發表後래야 實施될것으로보아 市勢도前價同標으로 釘付이엇다 ㊂穀良三等三三、七〇 四等三三、三〇 一等白米一三、七〇

### 仁川强保

荊棘材料가업슴으로 場面은活氣가업고 奧地로부터는 多少의賣物이보이나 買方은 內地入注不振의때이라 積極進出을 躊躇하고잇스나 滿品物色買人氣로 氣配는强保合이엇다 ㊂穀良三等三三、七〇 四等三三、五〇 銀坊主三等三三、九〇 四等三三、七〇 多摩錦三等

### 釜山弱保

古米拂下豫定의 宣傳으로 賣方이모두積極進出을쏘히하고잇스나 早稻出廻氣配도强調를띄우고 市勢도十錢의 押上되엇다 ㊂穀良三等三三、四〇 四等三三、二〇 一等白米一四、〇〇

### 大邱强調

天災時期에 當面하야 天候의不良과 病虫害로 매우 稻作의發育이不良한때에다시금 最近에이르러 氣溫이急激히低下되어 稻作에 주는 影響이 甚大하고 內地入注는 依然히不振이나 所持側의 頑强으로 各地期米의 軟調에도不拘하고市勢는五錢高이엇다 ㊂穀良三等三三、七〇 四等三三、五〇 一等白米一三、八五

### 群山不勢

市中은 政府의 古米拂下人氣로 가득찻스나 實施日의不透明으로 氣迷된때에天候는 好順으로 稻作況의良好를想像시키어 人氣는漸次로 軟調이고 兼하야淸算不勢를 傳하야 市勢도五錢低이엇다 ㊂銀坊主三等三三、八〇 四等三三、一〇 一等白米一四、〇〇

### 木浦不變

天候는無類의好順인데 政府의 古米拂下實施는 第一回收穫豫想發表後이래야 實行할것이라는 說이擡頭하야 市中은 依然히氣迷狀態이어서 內地入注薄으로 市勢를左右할만한 荷動이업슴으로 前日同標으로保合이엇다 ㊂銀坊主三等三三、七〇 四等三三、三〇 一等白米一三、七〇

## 內地米消費激增 空前의新記錄示現 ◇…十個月間七千四百萬石

內地에잇서서의 九月一日現在의 殘存米一千六百九十五萬一千石을 基礎로하야 過去十個月間(昨年十一月初부터 今年八月末까지)의 消費實績을 算出하여보면 七千四百萬石으로 前年同期에 比하여보면 百三萬四千石의 激增인데 十年同期에六千五百十八萬石 十一年에 六千三百九十一萬石 十二年에六千九百十二萬石으로 年年增加를거듭하든 米消費高는 今年度에도 亦是 新記錄을 示現하엿다 其原因은小麥의 暴騰과 大麥米等의 軍需緊忙에 基因한것이다

◆供給高 (單位千石 △印減)

| | 十三年度 | 十二年度 | 比較增減 |
| --- | --- | --- | --- |
| 現在高 | 七、四四四 | 八、〇〇〇 | △五五六 |
| 生産高 | 六六、三二〇 | 六七、三四〇 | △一、〇二〇 |
| 輸移入高 | 三三 | 二〇八 | △一七六 |
| △輸移入高 | | | |
| 朝鮮에서 | 九、九六〇 | 六、一四〇 | 三、八二〇 |
| 臺灣에서 | 四、〇三〇 | 四、五八四 | △五五四 |
| 小計 | 一三、九九〇 | 一〇、七二四 | 三、二六六 |
| 小計 | 一三、四五〇 | 一〇、五五〇 | 二、九〇〇 |
| 合計 | 八七、二二七 | 八五、八八八 | 一、三三九 |
| ▽九月一日現在高 | 一六、九五一 | 一六、二三四 | 七一七 |
| ▽差引消費高 | 七〇、二七六 | 六九、六五四 | 一、〇三四 |

## 需給推算樂觀 持越八百七十萬石?

內地의 九月一日在米高를 基礎로하고 本米穀年度中의 需給推算을 行하여보면 如左하다 (單位千石)

◆供給高
現在高 一六、九五一
輸入豫想 八一

| 移入豫想 | |
| --- | --- |
| 朝鮮에서 | 一七、七〇二 |
| 臺灣에서 | 一、一〇〇 |
| 計 | 一八、八八三 |

| | |
| --- | --- |
| 合計 | 三五、八三四 |
| 輸出豫想 | 八九八 |
| 移出豫想 | 一五六 |
| 消費豫想 | 一〇、〇五〇 |
| 計 | 一〇、一五六 |
| ◆差引 繰越高 | 八、七二七 |

(備考) 消費豫想은 前年同期實績에다가 千分之四로 自然增加率을 加算한것이다

即 明年度의 繰越豫想高는八百七十二萬七千石인데 今年作況도 現在와가튼 天候로서 推移될것가트면 前五個年間平均六千二百二十五萬石 程度의 收穫으로될것을 豫想하고잇다 朝鮮、臺灣의增收를 考慮하면 軍需關係其他에依한 消費가 增加되여도今後의 需給關係는 매우 樂觀되여엇다한다

## 海外經濟 (十五日)

### 銀行券 (十五日)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illegible]

### 鋼油粕麥粉

◆阪神鋼粕 ◆阪神鋼油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 金利 手形交換

◆東京金利 ◆大阪金利 [illegible]

### 金銀價

◆京城手形交換高 ◆京城市中金銀價 ◆東京金銀價 [illegible]

### 對外爲替

◆金買入價 [illegible] 以上朝鮮銀行賣

### 正米

◆京城正米 ◆大阪正米標準價 ◆仁川正米 [illegible]

### 正租

[illegible]

### 雜穀

◆京城雜穀 ◆仁川雜穀 [illegible]

###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 株式

◆朝取短期 ◆朝取主要株取組 [illegible]

◆大阪短期 ◆東京現株 ◆東京短期取組 ◆東京短期 ◆朝取短期賣買高 ◆大阪長期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 京城物價 (十六日)

[illegible]

## 期米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大邱期米 ◆木浦期米 ◆群山期米 ◆釜山期米 ◆東京期米 ◆大阪期米 ◆大阪期米取組 ◆各地期米 [illegible]

### 綿絲 ◆大阪綿絲
### 棉花 ◆大阪棉花
### 人絹 ◆各地人絹
### 生絲 ◆橫濱生絲
### 砂糖 ◆大阪砂糖 ◆東京砂糖

[illegible]

株式 期米 玉 京城黃金町 仁川本町 マルタマ取引店

京城 仁川 金益證券 益康

期米 東 仁川海岸町三丁目 趙俊鎬取引店